조사연구 2020-11

2020 지역별 나눔지수 및 기부유형 연구

책임연구원 : 노 법 래(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 윤 민(나눔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박 미 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하 은(나눔문화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 문 영 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임 예 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 차

요약문 ····· **1**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9

제2절 연구목적 및 의의 ····· 31

제2장 이론적 배경 ····· **33**

제1절 나눔 현황 연구 ····· 35

1. 나눔실태 조사 ····· 35
2. Giving Korea 조사 ····· 37
3. 국세통계연보 ····· 40
4. 한국복지패널 연구보고서 ····· 41
5.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 42

제2절 나눔지수 연구 ····· 44

1. 국외 나눔지수 연구 ····· 44
2. 국내 나눔지수 연구 ····· 52

제3절 지역별 나눔 영향요인 ····· 59

1. 나눔 지역비교 관련 요인의 분류 ····· 59
2. 인구통계학적 요인 ····· 60
3. 사회경제적 요인 ····· 61
4. 문화적 요인 ····· 65
5. 제도적 요인 ····· 65
6. 사회적 자본 요인 ····· 66

제3장 분석 방법 ····· 69
제1절 개인기부 및 자원봉사 ····· 71
1. 개인기부 ····· 71
2. 자원봉사 ····· 72
제2절 헌혈 및 장기기증 ····· 73
1. 헌혈 ····· 73
2. 장기기증 ····· 73
제3절 나눔지수 도출 ····· 74
1. 분석 자료 ····· 74
2. 분석 방법 ····· 77
제4절 지역별 나눔 요인 및 유형 ····· 80
1. 분석 자료 ····· 80
2. 분석 방법 ····· 84

제4장 지역별 나눔 현황 ····· 87
제1절 개인 기부 ····· 89
1. 개인 현금기부 개요 ····· 89
2. 지역별 기부 ····· 96
제2절 개인 자원봉사 ····· 121
1. 개인 자원봉사 개요 ····· 121
2. 지역별 자원봉사 ····· 126
제3절 헌혈 ····· 143
1. 헌혈 개요 ····· 143
2. 지역별 헌혈 건수 ····· 145
제4절 장기기증 ····· 147
1. 장기기증 개요 ····· 147

2. 지역별 장기기증 ····· 153
제5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 ····· 157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 개요 ····· 157
2.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 ····· 164

제5장 지역별 나눔지수 ····· 171
제1절 지표별 기초값 ····· 173
1. 핵심지표 ····· 173
2. 확대지표 ····· 179
제2절 지표의 표준화 결과 ····· 185
1. 지표별 표준화 점수 ····· 185
2. 지역별 표준화 점수 ····· 191
제3절 나눔지수 도출 결과 ····· 208
1. 핵심지수 ····· 210
2. 확대지수 ····· 212
3. 나눔지수 ····· 213

제6장 지역별 기부유형 ····· 215
제1절 분석 결과 ····· 217
1. 기술 통계(2019년) ····· 217
2. 지역 유형화 결과 ····· 220
3. 기부 관련 법인 분포(2019년) ····· 226
4. 지역별 기부 수준 유형화 결과 ····· 229
5. 회귀 분석 결과 ····· 237
제2절 소결 ····· 242

제7장 결론 및 제언 ····· 24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47
제2절 제언 ····· 250

참고문헌 ····· 253

표 목차

<표 2-1> 연도별 기부문화연구소 조사연구 ····· 39
<표 2-2> 2009-2018 세계기부지수 상위 20위 국가들(World Giving Index) ····· 45
<표 2-3> 아시아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Doing Good Index)
평가 영역과 주요 지표 ····· 49
<표 2-4> 지수 관련 국내 선행 연구 ····· 54
<표 2-5> 국내 나눔 지수에 관한 선행연구 ····· 56
<표 3-1> 사회조사 중 기부여부 및 기부금액 항목 ····· 72
<표 3-2> 사회조사 중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활동시간 항목 ····· 72
<표 3-3> 지역별 나눔지표의 세부 분석자료 ····· 75
<표 3-4> 통계청 제공 시군구 데이터 설명 ····· 82
<표 4-1> 개인 기부참여 (2015-2019년) ····· 89
<표 4-2> 1인당 연평균 기부금액 (2015-2019년) ····· 90
<표 4-3> 연령별 연평균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5-2019년) ····· 91
<표 4-4> 성별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9년) ····· 93
<표 4-5> 소득수준별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9년) ····· 94
<표 4-6> 가구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 (2019년) ····· 95
<표 4-7> 행정구역별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9년) ····· 96
<표 4-8> 연령별 행정구역별 기부참여율 (2019년) ····· 98
<표 4-9> 성별 행정구역별 기부참여율 (2019년) ····· 99
<표 4-10> 소득수준별 행정구역별 기부참여율 (2019년) ····· 100
<표 4-11> 행정구역별 기부종류 (2019년) ····· 101
<표 4-12>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직접) 횟수 및 금액 (2019년) ····· 102
<표 4-13>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직접) 주기 (2019년) ····· 103
<표 4-14>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언론기관) 횟수 및 금액 (2019년) ····· 104

<표 4-15>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언론기관) 주기 (2019년) ····· 105
<표 4-16> 행정구역별 현금기부(모금단체) 횟수 및 금액 (2019년) ····· 106
<표 4-17> 행정구역별 현금기부(모금단체) 주기 (2019년) ····· 107
<표 4-18>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종교단체) 횟수 및 금액 (2019년) ····· 108
<표 4-19>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종교단체) 주기 (2019년) ····· 109
<표 4-20>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직장) 횟수 및 금액 (2019년) ····· 110
<표 4-21>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직장) 주기 (2019년) ····· 111
<표 4-22> 행정구역별 현금기부(기타) 횟수 및 금액 (2019년) ····· 112
<표 4-23> 행정구역별 현금기부(기타) 주기 (2019년) ····· 113
<표 4-24> 행정구역별 물품기부 횟수 (2019년) ····· 114
<표 4-25> 행정구역별 물품기부 주기 (2019년) ····· 115
<표 4-26> 행정구역별 기부희망분야 1순위 (2019년) ····· 116
<표 4-27> 행정구역별 기부문화확산 1순위 (2019년) ····· 118
<표 4-28> 행정구역별 향후 기부 의사 (2019년) ····· 119
<표 4-29> 행정구역별 유산 기부 의사 (2019년) ····· 120
<표 4-30> 개인 자원봉사 참여 여부 (2015-2019년) ····· 121
<표 4-31> 평균 자원봉사 참여시간 (2015-2019년) ····· 121
<표 4-32>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5-2019년) ····· 123
<표 4-33>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9년) ····· 125
<표 4-34> 행정구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7년) ····· 126
<표 4-35>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아동 등) 횟수 및 시간 (2019년) ····· 128
<표 4-36>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아동 등) 주기 (2019년) ····· 129
<표 4-37> 행정구역별 자원봉사(환경보전 등) 횟수 및 시간(2019년) ····· 130
<표 4-38> 행정구역별 자원봉사(환경보전 등) 주기 (2019년) ····· 131

<표 4-39>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자녀교육 등) 횟수 및 시간 (2019년) ····· 132
<표 4-40>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자녀교육 등) 주기 (2019년) ····· 133
<표 4-41>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지역행사 등) 횟수 및 시간 (2019년) ····· 134
<표 4-42>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지역행사 등) 주기 (2019년) ····· 135
<표 4-43>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재해복구 등) 횟수 및 시간 (2019년) ····· 136
<표 4-44>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재해복구 등) 주기 (2019년) ····· 137
<표 4-45> 행정구역별 자원봉사(기타) 횟수 및 시간 (2019년) ····· 138
<표 4-46> 행정구역별 자원봉사(기타) 주기 (2019년) ····· 139
<표 4-47> 행정구역별 전문 자원봉사 여부 (2019년) ····· 140
<표 4-48> 행정구역별 전문 자원봉사 내용 (2019년) ····· 141
<표 4-49> 행정구역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2019년) ····· 142
<표 4-50> 3개년도 성별 헌혈건수 (2015-2019년) ····· 144
<표 4-51> 3개년도 연령별 헌혈건수 (2015-2019년) ····· 145
<표 4-52> 3개년도 지역별 헌혈건수 (2015-2019년) ····· 146
<표 4-53> 3개년도 성별 장기등 이식건수 (2015-2019년) ····· 149
<표 4-54> 3개년도 연령별 장기등 이식건수 (2015-2019년) ····· 149
<표 4-55> 3개년도 성별 장기등기증희망자 (2015-2019년, 각 년도 누계) ····· 151
<표 4-56> 3개년도 연령별 장기등기증희망자 (2015-2019년, 각 년도 누계) ····· 152
<표 4-57> 3개년도 지역별 장기등 이식건수 (2015-2019년) ····· 153
<표 4-58> 3개년도 지역별 장기등기증희망자 (2015-2019년, 각 년도 누계) ····· 155
<표 4-59> 3개년도 연령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2015-2019년) ····· 159
<표 4-60> 3개년도 연령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횟수 (2015-2019년, 각 년도 평균) ·· 160
<표 4-61> 3개년도 연령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금액 (2015-2019년) ····· 161
<표 4-62> 3개년도 기부횟수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2015-2019년) 162

<표 4-63> 3개년도 기부횟수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2015-2019년) 163
<표 4-64> 3개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2015-2019년) …… 164
<표 4-65> 3개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횟수
(2015-2019년, 각 년도 평균) …… 166
<표 4-66> 3개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금액
(2015-2019년, 각 년도 평균) …… 168
<표 5-1>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 (2015-2019년) …… 174
<표 5-2>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 (2015-2019년) …… 177
<표 5-3>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 (2015-2019년) …… 180
<표 5-4>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 (2015-2019년) …… 183
<표 5-5> 3개년도 지역별-지표별 표준화 점수 (2015-2019년) …… 186
<표 5-6> 2019년 나눔지수 …… 209
<표 5-7> 3개년도 지역별-연도별 핵심지수 (2015-2019년) …… 211
<표 5-8> 3개년도 지역별-연도별 확대지수 (2015-2019년) …… 212
<표 5-9> 3개년도 지역별-연도별 나눔지수 (2015-2019년) …… 213
<표 6-1> 비교 지역의 전반적 특성(2019년) …… 218
<표 6-2> 지역 특성 …… 221
<표 6-3> 지역 유형별 속성 평균 …… 223
<표 6-4> 지역 유형별 예시(2019년) …… 224
<표 6-5> 기부율-기부액평균-기부율변화 충족 케이스 (기부평균액 상위 20위) …… 233
<표 6-6> 기부율-기부액평균-기부율변화 미포함 케이스 (기부율 하위 20위) …… 234
<표 6-7> 법인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237
<표 6-8> 기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239
<표 6-9> 기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241

그림 목차

[그림 2-1] 2015-2019년 기부경험률 추이 ····· 36
[그림 2-2] 최근 1년간 기부, 자원봉사, 헌혈 참여율 변화 ····· 37
[그림 2-3] 최근 1년간 기부경험 ····· 38
[그림 2-4] 최근 1년간 자원봉사경험 ····· 38
[그림 2-5] 최근 1년간 기부·자원봉사 중복 경험 ····· 38
[그림 2-6] 국내 기부금총액 추이 ····· 40
[그림 2-7]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 42
[그림 2-8] 연간 기부액 ····· 42
[그림 2-9]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 42
[그림 2-10] 최근 1년 간 자원봉사 참여율, 시민 기부율, 기부 유형 ····· 43
[그림 2-11] Doing Good Index: four cluster ····· 51
[그림 2-12] 나눔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항목 ····· 58
[그림 2-13] 지역별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8
[그림 3-1] 나눔지수 도출 과정 ····· 77
[그림 3-2] 나눔지수 표준화 점수 설명 ····· 78
[그림 3-3] 나눔지수 도출식 - 가중치 반영 ····· 79
[그림 4-1] 개인 기부참여율 (2015-2019년) ····· 90
[그림 4-2] 1인당 연평균 기부금액 (2015-2019년) ····· 90
[그림 4-3] 연령별 연평균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9년) ····· 92
[그림 4-4] 성별 평균 기부액 및 기부참여율 (2019년) ····· 94
[그림 4-5] 소득수준별 평균기부액 및 기부참여율(2019년) ····· 94
[그림 4-6] 행정구역별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9년) ····· 97
[그림 4-7] 개인 자원봉사 참여 여부 (2015-2019년) ····· 122
[그림 4-8] 평균 자원봉사 참여시간 (2015-2019년) ····· 122

[그림 4-9]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9년) ····· 124
[그림 4-10]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9년) ····· 125
[그림 4-11] 행정구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7년) ····· 127
[그림 4-12] 3개년도 전체 헌혈건수 추이 (2015-2019년) ····· 143
[그림 4-13] 3개년도 지역별 헌혈건수 추이 (2015-2019년) ····· 147
[그림 4-14] 3개년도 장기등 이식건수 추이 (2015-2019년) ····· 148
[그림 4-15] 3개년도 장기등기증희망자 추이 (2015-2019년, 각 년도 누계) ····· 150
[그림 4-16] 3개년도 지역별 장기등 이식건수 추이 (2015-2019년) ····· 154
[그림 4-17] 3개년도 지역별 장기등기증희망자 추이 (2015-2019년, 각 년도 누계) ·· 156
[그림 4-18] 3개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및 기부횟수 추이 (2015-2019년) ····· 158
[그림 4-19] 3개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및 기부금액 추이 (2015-2019년) ····· 158
[그림 4-20] 3개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추이 (2015-2019년) · 165
[그림 4-21] 3개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횟수 추이 (2015-2019년)167
[그림 4-22] 3개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금액 추이 (2015-2019년)169
[그림 5-1] 3개년도 전국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 추이 (2015-2019년) ····· 174
[그림 5-2]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 추이 (2015-2019년) ····· 175
[그림 5-3] 3개년도 전국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 추이 (2015-2019년) ····· 176
[그림 5-4]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 추이 (2015-2019년) · 178
[그림 5-5] 3개년도 전국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 추이 (2015-2019년) ····· 179
[그림 5-6]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 추이 (2015-2019년) ····· 181
[그림 5-7] 3개년도 전국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 추이 (2015-2019년) ····· 182
[그림 5-8]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 추이 (2015-2019년) ····· 184

[그림 5-9] 3개년도 개인 현금기부 표준화 점수 추이 (2015-2019년) ····· 187
[그림 5-10] 3개년도 개인 자원봉사 표준화 점수 추이 (2015-2019년) ····· 188
[그림 5-11] 3개년도 헌혈 표준화 점수 추이 (2015-2019년) ····· 189
[그림 5-12] 3개년도 장기기증 표준화 점수 추이 (2015-2019년) ····· 190
[그림 5-13]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서울 (2019년) ····· 191
[그림 5-14]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부산 (2019년) ····· 192
[그림 5-15]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대구 (2019년) ····· 193
[그림 5-16]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인천 (2019년) ····· 194
[그림 5-17]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광주 (2019년) ····· 195
[그림 5-18]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대전 (2019년) ····· 196
[그림 5-19]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울산 (2019년) ····· 197
[그림 5-20]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세종 (2019년) ····· 198
[그림 5-21]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경기 (2019년) ····· 199
[그림 5-22]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강원 (2019년) ····· 200
[그림 5-23]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충북 (2019년) ····· 201
[그림 5-24]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충남 (2019년) ····· 202
[그림 5-25]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전북 (2019년) ····· 203
[그림 5-26]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전남 (2019년) ····· 204
[그림 5-27]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경북 (2019년) ····· 205
[그림 5-28]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경남 (2019년) ····· 206
[그림 5-29]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제주 (2019년) ····· 207
[그림 6-1] SOM 유형화 결과 ····· 220
[그림 6-2] 지역 유형 분포(2019년) ····· 222
[그림 6-3] 법인수 및 평균 모금액 분포 ····· 226

[그림 6-4] 법인수와 평균 모금액의 지역편차(2019년) ····· 227
[그림 6-5] 법인 지역 내 모금액의 누적 분포(2019년) ····· 228
[그림 6-6] 지역 유형화 벤다이어그램 ····· 229
[그림 6-7] 기부 수준 유형별 특성 (기부율, 상자그림) ····· 231
[그림 6-8] 기부 수준 유형별 특성 (기부평균액, 상자그림) ····· 231
[그림 6-9] 기부 수준 유형별 특성 (기부변화율, 상자그림) ····· 232
[그림 6-10] 기부 유형의 지역 분포 ····· 236

요 약 문

Ⅰ. 연구과제명

『2020 지역별 나눔지수 및 기부유형 연구』

Ⅱ.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이로 인한 사회적 위험 심화

- 2000년대 세계적 금융 및 경제 위기가 야기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불평등 심화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발생에 따른 세계 경제의 위기, 경기 위축 및 노동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중산층 몰락, 양극화 심화, 고용 감소, 청년 실업 급증 등의 사회문제 대두. 인구오너스 시대 본격화, 1인 가구 급증 등 인구·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돌봄 수요 확대

□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 복지재정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원 확보가 주목받고 있음
- 특히,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는 나눔(philanthropy)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 확대

-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복지재원 마련,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회자본의 생산과 축적 측면에서 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이 기부, 자원봉사 등 민간나눔자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나눔 자원 규모에 대한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선행연구는 나눔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나눔 지수 구성의 논리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전국 및 지역 단위에서의 나눔 규모 파악을 가능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민간나눔자원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핵심 주체인 개인과 법인을 중심으로 지역의 나눔자원 총량을 추계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한 나눔활성화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
- 다만, 나눔 총량 측정에 포함한 항목들 중 법인 매출대비 기부 등 일부 항목이 지역의 나눔을 대표하기에 제한적이며, 나눔 정의를 반영하여 포함한 부가지표의 타당성 문제가 확인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직관적이며 유용한 나눔지수 도출이 요구됨

□ 본 연구의 방향성

- 나눔지수에 대한 선행연구의 접근방법과 결과에 기초하면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나눔지수 항목을 재검토 하고 지수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모금 법인(또는 재단)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모금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부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기부금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요한 나눔 인프라로 판단할 수 있음. 이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함
- 나아가 나눔지수 산출 과정의 간결성과 직관적 이해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별 개인 나눔수준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화 및 개인 나눔수준 매핑을 활용한 시각화를 통해 연구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연구목적 및 의의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인기부와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의 지역별 나눔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기기부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부 추이와 지회별 개인기부자 규모, 기부금액을 파악함
- 둘째, 핵심적인 나눔 지표를 구성하여 광역시도 단위별 나눔지수를 산출함
- 셋째, 지역의 나눔 현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지역 및 개인차원에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함

□ 본 연구의 의의

-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는 지역별 나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 및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모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함

Ⅲ. 이론적 배경

1. 나눔 현황 연구

□ 국내의 기부 및 나눔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나눔실태 조사, 아름다운재단에서 실시하는 Giving Korea 조사, 국세청 통계연보, 한국복지패널,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나눔실태 조사의 분석결과 최근 5년간 기부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1년간 자원봉사/헌혈 경험이 있다는 응답 또한 2017년 결과에 비해 상승함
-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비영리기관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기부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3%, '자원봉사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3%로 분석됨

- 국세청에서 최근 발간된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18년 공제대상 기부금은 2017년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 14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응답자의 13.74%만이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며 나눔 관련 다른 조사에 비해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서울시의 나눔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8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부 경험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확인됨

2. 나눔지수 연구

□ 국외의 나눔지수 연구들은 단순한 질문에 대한 응답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나눔지수를 측정함. 영국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의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를 비롯하여 세계나눔환경지수(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아시아 공익활동 환경평가 지수(Doing Good Index) 등이 대표적임

- 세계기부지수는 나눔의 국제 비교가 가능한 대표적인 지수임. 나눔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문항은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세 영역의 참여율을 합산하여 도출한 평균값을 나눔지수로 산출하여 국가별 순위를 정함. 미국은 10년간 세계에서 기부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기부 지수 순위는 57위임
- 세계나눔환경지수가 높은 지역(미국, 캐나다, 북유럽 및 서유럽, 오세아니아 등)은 국내총생산량(GDP) 수준 또한 높음. 전체 평균 지수 보다 낮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정치 환경은 나눔 단체에 규제적인 것으로 분석됨. 한국은 운영 편의성과 사회문화적 환경 관련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나눔 환경이 상위권에 포함됨
- 아시아 공익활동 환경평가 지수는 정부 규제, 세금 및 재정 정책, 공익 생태

계, 정부 조달로 구성됨. 평가 결과, 가장 적절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대만으로 나타남. 한국에 대한 종합 평가는 비영리섹터 내 스캔들 폭로, 새로운 기부방법(온라인)에 대한 관심, 새로운 형태의 사회조직인 사회적 기업이 기존 기부자와 비정부기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함

□ 나눔지수 관련 국내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음. 김교성 외(2015) 『한국사회나눔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한창근 외(2016) 『민간나눔자원 총량추계 및 나눔지수 도출 연구』, 김소영 외(2018) 『2018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및 나눔지수 도출연구』가 대표적임

- 김교성 외(2015), 한창근 외(2016)에서는 나눔종합지수를 기부지수, 핵심지수, 부가지수로 구분하여 기부지수에는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을 포함하고, 핵심지수에는 기부지수와 상호부조, 부가지수에는 사회참여 및 네크워크를 포함하여 구성함. 해당 연구들은 종단적으로 각 지역의 나눔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수를 도출하여 민간자원영역에서 이용 가능한 전체자원을 분석하고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나눔 지수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김소영 외(2018) 연구는 김교성 외(2015), 한창근 외(2016)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한 연구의 지표들을 준용하고 현물기부, 헌혈, 장기기증의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확장된 상호호혜의 나눔인 상호부조, 사회적 네트워크, 단체참여의 지표들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 지역별 나눔 영향요인

□ 지역별 나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 인구통계학적 요인, ② 사회경제적 요인, ③ 문화적 요인, ④ 제도적 요인, ⑤ 사회적 자본 요인(혹은 친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지역별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개인 소득 수준이 언급됨
- 기부자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언제 기부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부자의 지역별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함.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얼마나 인지하는지와 관련된 '필요의 인식'과 지역 내에 기부 캠페인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와 관련된 '권유' 요인이 지역 기부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 필요의 인식은 저소득층 비율, 장애인/노인 비율, 언론 영향력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권유 요인은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의 수가 포함됨. 이 외에도 지역의 소득수준, 지역의 지출 수준, 돈과 부에 대한 태도, 종교 유무, 종교 종류, 이주민 비율, 도시·농어촌 여부, 인구밀집 정도, 지역의 모금 법인 또는 모금 재단 등이 지역별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언급됨
- 문화적 요인으로는 기부에 대한 인식, 정치 문화에 대한 인식 측면이 제시됨. 기부에 대한 인식의 경우, 기부를 관대함의 표현이라고 보는지 이타주의의 발현이라고 보는지 여부와 관련되며, 자선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지역에 사는 개인은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위해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됨
- 제도적 요인으로 기부 관련 세금 인센티브와 규제는 특히 국가 수준에서 기부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자선단체 운영의 용이성과 투명성, 정부 효율성과 부패 통제 정도 또한 지역별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의 호혜성, 신뢰, 규범을 근거로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됨. 이러한 이유로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신뢰, 호혜성, 사회적 유대, 소속감, 지역문화, (친사회적) 규범, 시민참여(투표율) 등이 사회적 자본 요인에 포함됨

Ⅳ. 분석 방법

1. 개인기부 및 자원봉사

□ 개인기부 및 자원봉사는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 개인의 현금 및 물품기부 분석 시 조사 시점 기준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바탕으로 기부경로, 횟수, 금액, 주기 등을 파악하였으며, 개인 자원봉사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활동시간 위주로 파악함

2. 헌혈 및 장기기증

□ 헌혈 자료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의 시·도별 헌혈 실적 데이터를 활용함

- 국내 헌혈 현황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헌혈자의 거주 지역이 아닌 혈액이 모이는 장소로만 지역 구분이 가능함
- 통합된 통계치가 제시된 지역의 경우, 헌혈의 집을 기준으로 헌혈 건수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도출 근거가 부족한 세종은 전국 평균치로 대체함

□ 장기기증 현황 파악을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기증 통계연보』를 사용함

- 장기등 이식건수는 각 년도 장기이식, 안구이식, 골수이식 및 말초혈이식 건수를 합한 것이며, 장기등기증희망자는 장기등과 안구를 기증희망 서약한 사람을 의미함
- 통계연보는 기증희망자를 제외한 자료를 의료기관 지역 기준으로 제시하였다고 밝힘

3. 나눔지수 도출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눔지수를 도출하였으며, 선행 연구와 연계성을 유지하되 간결성과 직관성을 보완하여 기초값을 조작화함

- 핵심지표 항목인 개인 현금기부와 개인 자원봉사는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기부자 수 및 자원봉사자 수로, 확대지표 항목인 헌혈과 장기기증은 지역별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 및 장기등 이식건수로 조작화함

□ 기초값 산출 후, 표준화 작업을 거쳐 최종 지수를 도출하였음

- 표준화 작업 시, 각 지표항목이 평균 100, 표준편차 10이 되도록 표준화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전국 평균(100)을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였음
- 나눔지수 산출 과정에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핵심지표와 확대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핵심지수, 확대지수 나눔지수를 도출함

4. 지역별 나눔 요인 및 유형

□ 지역별 나눔 요인 및 유형의 분석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데이터, 국세청 법인 공시자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군구별 데이터를 활용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데이터는 기부건별로 기부자 고유 ID, 기부액, 기부자 주소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함
- 국세청 법인 공시자료는 지역내 기부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국세청 사이트(홈텍스)에서 2019년 공익법인 공시 자료 가운데 사회복지법인과 지정기부법인 전수의 결산서류를 수집함. 각 결산자료에 대한 크롤링(crawling) 과정을 통해 법인명, 법인주소, 총 모금액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취합함
- 설명변수로 활용한 QOL, 출산율, 총인구수, 노령화 비율, 서비스업 비율, 1인당 지역총생산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투표율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자료, 빈곤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의 자료를 활용함

□ 유형화를 위해 Kohonen Map이라고도 불리우는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 SOM)를 활용함. 본 분석에서 도출한 지역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기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확증적 검토를 위해서 선형혼합효과회귀(linear mixed effect regression, LMER) 모형을 활용하여 관찰함

Ⅴ. 지역별 나눔 현황

1. 개인 기부

□ 개인 기부 참여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하락 추세에 있음

- 연령별 기부참여율의 경우 2015년과 2017년에는 20~24세 집단을 제외하고 하락하였으나, 2017년과 2019년에는 20대 이하 집단을 제외하고 소폭 상승함. 평균 기부금액도 2015년 대비 2017년은 하락하였으나, 2019년에는 상승하는 추세가 확인됨
- 성별 기부참여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 기부금액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게 분석됨
- 소득수준별 월평균 소득구간에 따른 기부참여율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율이 높았으며, 평균기부액 또한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함
- 월 가구소득 구간별 기부금 평균 액수를 산출한 결과, 대체로 가구소득과 기부금액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별 기부참여 및 평균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부참여율과 평균기부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32.8%),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19.3%)로 분석됨. 지역별 기부 참여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 미만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23.6%), 20~29세 연령층

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23.5%), 30~3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40.4%), 40~4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46.6%), 50~5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43.9%),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25.1%)으로 분석됨

- 성별 기부참여율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기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분석됨
- 소득수준별 기부참여율에 대한 분석 결과, 소득 상위 집단과 소득 중위 집단은 강원지역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소득 하위 집단의 기부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분석됨
- 지역별 기부 종류를 살펴보면, 현금만 기부하는 지역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88.8%), 물품만 기부하는 지역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7.9%였), 현금과 물품 모두 기부하는 지역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2.8%)로 분석됨
- 지역별 현금기부 횟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연간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8.8회), 평균 기부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719,920원)로 분석됨

2. 개인 자원봉사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15년 18.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17.9%, 2019년에는 16.2%로 낮아짐

- 평균 자원봉사 참여시간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24.2시간으로 낮아짐
- 연령별 2017년 자원봉사 참여율 및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13~19세의 참여율이 76.1%로 가장 높고, 평균 시간은 65~100세가 가장 높게 분석됨
-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 집단의 참여율이 15.4%로 가장 높았고, 평균자원봉사시간은 소득 하위집단이 35.17시간으로 가장 높게 분석됨

□ 지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6.0%), 평균자원봉사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34.9시간)으로 분석됨

3. 헌혈

□ 전국 헌혈건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2,791,092건으로 확인됨

- 남성과 여성 모두 2015년에 비해 2017년, 2019년 헌혈건수가 감소하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헌혈건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 2019년 기준, 남성의 헌혈건수는 전체의 73%였으며, 여성은 27%를 차지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6-19세, 20-29세의 경우 헌혈건수가 감소하였으나, 3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전체 헌혈건수에서 비중이 높은 16-19세, 20-29세의 헌혈 감소가 전반적인 감소 추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2019년 지역별 헌혈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의 헌혈건수가 900,964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35,973건으로 가장 적음

- 3개년 간 전체 헌혈건수의 3분의 1 가량이 서울에서 기록됨
-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10개 지역의 헌혈건수는 전체 추이와 유사하게 3개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강원은 증가 후 감소, 대전, 울산, 경기, 충남 및 경남은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4. 장기기증

□ 전국의 장기등 이식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2019년 5,77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증가폭은 감소하였음

- 장기등 이식건수는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말초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남성의 장기등 이식건수는 2019년 전체의 62.8%, 여성은 37.2%를 차지함. 반면, 장기등기증희망자 수는 여성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장기등 이식건수가 가장 많은 연령 집단은 50-64세로 나타났으

며 해당 집단은 3개년 간 지속적으로 50%에 가까운 비중을 보여줌. 한편, 연령별 장기등기증희망자 수는 장기등 기증건수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40-49세와 50-59세의 비중이 높은 편임

□ 2019년 기준, 장기등 이식건수 및 장기등기증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나타남

- 세종과 경북은 3개년도 간 장기등 이식건수가 가장 낮은 0건을 기록하였으나, 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역 기준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음을 고려하여 지수 산출 시에는 전국값으로 대체하였음
- 장기등기증희망자 또한 세종 지역이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연평균 기부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개인 기부자의 연평균 기부횟수는 4.9회였던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5.8회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5.2회로 감소함
- 2019년 기준 개인 기부자 중 50-59세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약 30%), 70세 이상이 가장 작음(3.6%). 반면, 평균 기부금액은 7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연간 기부횟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69세였으며, 20대가 가장 낮았음
- 3개년간 기부횟수별 개인 기부자 수를 살펴보면 1-3회 기부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12회 기부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음. 또한, 전체의 50% 이상이 연간 3만원 미만 기부하고 있음

□ 지회별 개인 기부자 수는 서울과 경기가 가장 많으나, 개인 평균 기부금액이 가장 높은 지회는 부산과 대구로 나타남

- 지회별 개인 기부횟수는 울산이 7.6회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3.2회로 가장 낮은 값을 보임

Ⅵ. 지역별 나눔지수

1. 지역별 기초값

□ 나눔지수 분석을 위해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 자원봉사자 수, 헌혈 건수, 장기등 이식건수로 조작화하여 기초값을 산출하였음

- 전국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개인 현금기부)는 2015년보다 2017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다소 상승하여 25.5%의 기부 참여율을 보였으며, 2019년 기준 세종이 32.8%(0.3276)로 가장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인 반면 대구는 19.3%(0.1926)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참여율로 나타남
- 전국 인구 수 대비 자원봉사자 수(개인 자원봉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 16.1%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였으며, 2019년 기준 세종 지역이 22.7%(0.2270)로 가장 참여율이 높고 부산이 11.4%(0.1140)로 가장 낮았음
- 전국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헌혈)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9년 100명당 약 5.4건의 헌혈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음. 2019년 100명당 10.9건의 헌혈이 이루어진 대전 지역의 값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지역은 100명당 1.6건으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함
- 전국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장기이식)는 증가 추세이며, 2019년 100만명당 111.3건의 장기등 이식이 이루어짐. 서울 지역이 100만명당 382.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100만명 당 5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2. 지표의 표준화 결과

□ 기초값들이 서로 상이한 단위와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를 위해 각 지표 항목별로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이 되도록 표준화를 실시함

- 표준화를 통해 각 지표 항목의 전국 평균은 100이 되므로 지역별 표준화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지역별 값 도출이 어려운 세종(헌혈, 장기기증)과 경북(장기기증)은 전국 값을 대체하여 대입하였음

□ 핵심지표를 구성하는 개인 현금기부 및 개인 자원봉사는 지역별 추이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2019년 기준 세종 지역이 두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

- 2019년 개인 현금기부는 세종(121.3), 서울(113.1), 광주(108.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79.9), 부산(87.1), 충북(91.8) 순으로 낮게 나타남. 또한 개인 자원봉사의 경우, 세종(122.9), 전남(110.1), 충남(109.7) 순으로 높았으며, 부산(76.1), 대구(89.0), 인천(91.0) 순으로 낮은 값을 보임

□ 확대지표 항목에 해당하는 헌혈과 장기기증은 지역별 추이가 다양하나, 핵심지표 항목에 비해 추이 변동이 크지 않음

- 2019년 기준, 헌혈은 대전(117.7), 강원(114.3), 광주(113.8) 순으로 높았고, 경기(82.5), 경북(88.1), 전남(89.4) 순으로 낮은 값을 보임. 한편, 장기기증은 서울(134.3), 대구(109.5), 부산(102.5) 순으로 높고, 충북(92.5), 제주(93.5), 전북(94.0) 순으로 낮게 나타남

3. 나눔지수 도출 결과

□ 표준화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지수와 확대지수를 도출하였으며,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나눔지수를 산출하였음

- 2019년 기준, 핵심지수 1위는 세종(122.1)으로 나타났으며, 부산(81.6)이 가장 낮았음. 확대지수는 서울(123.0)이 가장 높고, 경기(89.7)가 가장 낮게 분석됨
- 최종 나눔지수 및 순위는 2019년 세종(114.8)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부산(88.2)이 가장 낮게 나타남

□ 핵심지수는 연도별로 변동이 큰 편이었으며, 확대지수는 핵심지수에 비해 추이 변화 및 순위변동이 크지 않았음

- 핵심지수의 경우, 세종은 2017년과 2019년 연속하여 가장 높은 점수 및 순위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점수와 순위의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확대지수는 헌혈과 장기기증 자료가 특정 기관(헌혈의 집, 장기기증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 추이 및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서울은 3개년도 연속 1위를 차지한 반면, 경기는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Ⅶ. 지역별 기부유형

1. 분석결과

□ 결과변수인 기부율과 기부평균액, 기부변화율 특성, 국세청 법인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한 모금기관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기부율 최솟값은 111.5, 최댓값은 6.639, 중위값은 1.118, 평균은 1.299(표준편차 914.9)인 것으로 나타남. 기부평균액 최솟값은 5,469원, 최댓값은 274,990원, 중위값은 27,348원, 평균 35,283원(표준편차 30,979원)으로 확인됨. 전년대비 기부율 변화로 정의되는 기부변화율의 최솟값은 -63.77%, 최댓값은 817.7%이고, 중위값은 6.254%, 평균 21.46%(표준편차 84.66)로 분석됨
- 지역별 기관 수의 최솟값은 0개, 최댓값은 33개였으며, 중위값은 3개이고, 평균 한 지역당 3.895개의 모금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관의 평균 모금액으로 정의되는 기관평균규모의 경우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583억원, 중위값은 29,088,043원, 평균 5억 9천만원인 것으로 분석됨

□ 설명변수인 투표율, QOL, 출산율, 총인구수, 노령화 비율, 서비스업 비율, 빈곤율, 1인당 지역총생산의 지역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투표율 최솟값은 34.8%, 최댓값은 71.4%, 중위값은 59.3%, 평균 59.04%(표준편차 5.313)로 나타남. 지역 삶의 질 최솟값은 0.929, 최댓값은 0.985, 중위값은 0.957, 평균 0.957(표준편차 0.01109)로 확인되었으며, 출산율 최솟값은 0.504명, 최댓값은 2.538명, 중위값은 1.024명, 평균 1.056명(0.281)임

- 지역 총인구수 최솟값은 9,556명, 최댓값은 784,035명, 중위값 117,680명, 평균 187,548명(표준편차 164,248)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정의되는 노령화 비율은 최소 7.6%, 최대 39.9%, 중위값 19.35%, 평균 21.6%(표준편차 8.184)로 확인됨. 제조업대비 서비스업 비율 최솟값은 0.232%, 최댓값은 46.68%였고, 중위값은 2.186%, 평균값 4.278%(표준편차 5.916)임
- 지역의 빈곤율 최솟값은 1.137%, 최댓값은 8.075%, 중위값은 3.75%, 평균 3.667%(표준편차 1,268), 1인당 지역총생산 최솟값 7.953, 최댓값 418.8, 중위값 29.24, 평균 40.53(표준편차 39.5)으로 확인됨

□ 지역 유형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농어촌형3(빈곤)'이라고 명명한 지역은 빈곤율, 출산률, 노령화 비율이 매우 높아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띄고 있음. 충청도 일부,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에 위치한 중소형 도시 지역은 삶의 질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므로 '중소형3(QOL)'이라고 명명함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경기도 남양주시, 화성시 등은 '밀집형4(인구/산업밀집)'로 명명하였으며, 총인구수가 많고, 서비스업 비율과 지역총생산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인구수와 출산율과 노령화 비율이 낮고 총인구수와 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서울시 강남구 등은 '밀집형3(고소득)'지역으로 명명함. 이외에도 탈산업화 비율과 노령화 비율, 빈곤율의 특징에 따라 '중소형2(노령/불평등)'유형,'밀집형2(서비스)' 유형,'농어촌형1(경계)' 지역으로 명명함
- '농어촌형3(빈곤)'의 출산율은 모든 유형에 비해 가장 높고(1.30명), 노령화 비율이 가장 낮은 것(28.84%)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빈곤율은 4.00%로 모든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임. 한편 '밀집형3(고소득)' 지역은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매우 낮고(0.98명), 노령화 비율도 낮은 편이며(11.67%), 서비스업 비율이 높고(6.94%), 지역총생산이 높은 것(36.27%)을 확인할 수 있음
- '밀집형4(인구/산업밀집)' 지역의 경우 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편이며(6.38%), 모든 유형에 비해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1.39%)이 특징임. 이외에도 '밀집형2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업 비율이 9.2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고 출산율이 매우 낮은(0.96명) 특징이 있는데, 주로 거주하지 않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모여 있는 지역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기부 관련 법인 분포를 분석한 결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이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함. 작은 규모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국세청에 공시 자료가 있는 기부 관련 법인이 1개 이하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기부 관련 법인 분포와 모금 규모의 지역 편차는 높은 수준임. 법인 수의 경우 한 지역에 많게는 33개 조직이 밀집된 경우도 있었으며, 국세청 공시 자료에 보고가 전혀 없는 지역도 존재함. 지역적 편차는 평균 모금액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남

□ 지역별 기부 수준에 대한 유형화는 기부율, 기부액평균, 전년대비 기부율 변화를 기준으로 각 값의 중위값 이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하였고, 기부 수준의 유형별 특성은 기부율과 기부평균액, 기부변화율로 나누어 상자그림으로 나타냄

- 기부율과 기부율의 로그값을 살펴본 결과, 기부율의 중위값은 기부율만이 높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1분위수에서 3분위수를 나타내는 범위는 기부율과 전년대비 기부율이 모두 높은 지역에서 더욱 넓게 나타남. 특히 기부율과 전년대비 기부율이 모두 높은 지역에서 중위값의 6배 수준인 아웃라이어 지역이 발견되며 다른 지역에 비해 기부율이 높은 지역이 존재함을 시사함
- 기부평균액의 상자그림을 살펴본 결과,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기부평균액만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지역은 1분위수에서 3분위수 사이의 범위도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중위값의 3-4배 수준인 아웃라이어들도 다수 발견됨. 즉, 이러한 결과는 기부율이나 전년대비 기부율은 낮지만 기부액수가 매우 높은 지역들이 존재함을 의미함
- 전년대비 기부율 상자그림을 살펴본 결과, 변화율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변화율만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해당 지역에서는 중위값을 벗어나는 아웃라

이어들도 다수 발견되어 전년대비 변화율이 높은 지역이 존재함을 확인함

- 2016년과 2019년 기준으로 기부유형의 지역분포를 비교한 결과, 기부율, 평균 기부액, 기부변화율이 모두 높은 지역의 수가 2016년에 비해 2019년 증가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임. 기부율과 기부액이 높았던 지역이 기부변화율도 높은 지역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포착되며, 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함.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는 남부 지방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들도 확인됨
- 기부액과 기부변화율이 모두 높았던 경기 지역 일부(파주, 김포)는 기부액만이 높은 지역으로 변화함. 2016년 기준으로 기부율과 기부변화율이 모두 높았던 강원도 지역(철원, 춘천)이 기부율만 높은 지역으로 변화함. 또한 기부액과 기부변화율이 높았던 가평, 양평, 여주 지역은 기부변화율만 높은 지역으로 변화함. 2016년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높았던 인제 지역은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낮은 지역으로 변화함. 해당 지역들에서 기부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지역의 특성이나 이벤트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지역들이 모두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므로, 아웃라이어 존재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부 지표들이 좀 더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법인 설립 및 활동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지역 유형은 법인 활동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법인의 수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특성을 보이는 “밀집형4”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밀집형3”과 “중소형1”을 제외한 모든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회귀계수 값을 통해 살펴볼 때 그와 같은 차이는 지역의 규모, 경제적 수준과 거의 일정한 서열 관계가 있음을 확인함.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인 “농어촌형3”의 계수값이 가장 큰 음의 값($b=-5.82$, $p<.001$)을 나타냄
- 법인 평균 모금액의 회귀 분석 결과에서도 지역 유형 간 일정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법인수에 비해서는 지역 규모와 결과 변수 사이에 서열적 관계가 약하게 포착됨. 이는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법인 수는 많지 않아도 모금액이

큰 일부 사례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다만, 법인 평균 모금액의 경우도 “농어촌형3”의 계수값이 유의미하게 가장 큰 음의 값(b=-6.15, p<.01)을 보임

□ 기부 수준과 관련된 세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은 법인 활동이 지역 특성과 결합하여 기부 행위를 촉진하는 역할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부율과 지역 특성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진행함

- 법인 수는 기부율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0.2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 기부 전문 기관 활용이 일정 수준에서 지역내 기부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법인 규모, 혹은 모금 역량과 관련된 법인 평균 모금액의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음
- 지역은 전반적인 수준에서 기부율에 영향을 미치며, 기부율에 대한 시기 효과도 부분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음. 이는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기부 행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법인의 수와 지역 유형 간 교차효과는 “밀집형3”과의 교차효과를 기준으로 모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러한 효과는 일정 수준에서 지역 규모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부액 평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법인 수가 기부액 평균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법인의 평균 모금액은 기부 평균액에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b=0.46, p<.05) 나타남. 이는 모금 관련 기관의 규모나 모금 역량에 따라 기부자의 기부액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함
- 기부 평균액의 경우, 지역 유형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음. 다만 시기 효과는 기부 평균액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방향은 반대로 포착됨.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역 평균 기부액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남
- 기부율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법인, 지역 유형, 시기 및 상호작용 효과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함. 결과변수 총변량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결정계수도 .04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2. 소결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기부 관련 법인의 분포와 모금 규모에 있어 높은 수준의 지역 편차가 있음
- 둘째, 기부 수준에 있어 다양한 지역적 편차가 존재함
- 셋째, 회귀분석 결과 기부 관련 기관이 기부 행위에 일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연구 결과들이 갖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외 기부 관련 지표들이 지난 1년간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만으로 기부 지표를 산정하였지만, 본 연구는 기부율, 기부액, 기부변화율로 기부 지표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국내 기부의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제시함
- 둘째, 그간의 연구들은 지역 비교를 위해 도시 혹은 농어촌 지역인지 여부 혹은 인구 밀집지역인지 여부로만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시군구 210개를 대상으로 삼아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을 통해 기부 지표들을 분석함
- 셋째, 지금까지 지역의 유형화로 기부 수준을 포착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선행연구 결과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기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변수들을 통해 유형을 구성하여 지역 유형이 기부 수준에 일정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함
-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지역 내 모금기관의 영향력이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 내 모금기관의 존재가 기부 수준에 일정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Ⅷ.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는 지역별 나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 및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모색의 목적을 갖고 있음

- 이를 위해 나눔 규모와 나눔지수를 지역별로 파악하고, 지역별 나눔 규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 지역별 나눔 규모는 공신력 있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기부,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현황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기부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함
- 특히, 나눔지수를 구성하여 지역별 나눔 규모를 보다 직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화 및 개인나눔수준 매핑을 활용한 시각화를 통해 지역의 나눔 현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함

□ 개인기부,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현황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개인기부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1년(2018년 5월~2019년 5월)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9년 기준 25.1%이고, 기부한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4.9%로 분석됨. 지난 5년간 개인 기부참여율의 변화는 하락 추세에 있음. 실제로 기부에 참여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1인당 연평균 기부금액을 검토한 결과, 2019년 기준 평균 약 41만원으로 나타남. 지난 5년간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평균 기부금액은 증가 추세에 있었음. 지역별 기부참여율을 비교하면, 세종시가 32.8%로 가장 높게 분석됨. 평균 기부액은 대구가 가장 높았고, 인천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다음으로, 지난 1년(2018년 5월~2019년 5월)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6.2%로 확인되었고, 83.8%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지난 5년간 자원봉사 참여율의 변화는 하락 추세에 있었음. 최근 5년간 평균 자원봉사 참여시간 추이의 큰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2015년과 2017년 사이에서 소폭 등락이 있었음. 지역별 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 세종시가 16.0%로 가장 높았고, 자원봉사 평균 시간은 울산이 34.9시간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가장 낮음
- 전국 헌혈건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5년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2019년도 기준 헌혈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의 32.3%임. 서울은 3개년 간 전체 헌혈건수의 3분의 1 가량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경기와 부산의 헌혈 건수 및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국 장기등 이식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음. 특히 2019년 장기등 이식건수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장기이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말초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지역별 장기등 이식건수는 의료기관 지역 기준으로 수집되었으며, 2019년 기준 서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기부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개인 기부자 분석 시 모금회 지회 기준(중앙 포함)으로 데이터를 제시하였는데, 개인 기부자 수는 서울과 경기 지회가 높은 반면, 평균 기부금액은 대구, 부산, 제주 지회와 중앙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나눔 현황 자료 중 개인 기부자 수, 개인 자원봉사자 수, 헌혈 건수와 장기등 이식건수를 지역별 인구 수로 나누어 나눔지수를 위한 기초값으로 활용함. 해당 기초값을 바탕으로, 핵심지표(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와 확대지표(헌혈, 장기기증)를 구성하고,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인 표준화 점수로 재환산 함

- 2019년 기준, 개인 현금 기부는 세종(121.3)이 가장 높고 대구(79.9)가 가장 낮았으며, 개인 자원봉사는 세종(122.9)이 가장 높고 부산(76.1)이 가장 낮음. 헌혈은 대전(117.7)이 가장 높고 경기 지역(82.5)이 가장 낮았으며, 장기기증은

서울(134.3)이 가장 높고 부산(92.5)이 가장 낮음.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표 항목이 전국 평균(100.0) 이상인 지역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인천, 경기, 충북 지역은 모든 지표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이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핵심지수와 확대지수 및 최종 나눔지수를 산출하고 지역별 순위를 살펴봄. 2019년 핵심지수는 세종(122.1), 전남(106.1), 강원(105.4), 대전(104.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81.6)이 가장 낮음. 확대지수는 서울(123.0), 대전(108.2), 광주(105.9), 강원(105.1) 순으로 높았고, 경기 지역(89.7)이 가장 낮음. 핵심지수와 확대지수를 종합한 나눔지수는 세종(114.8), 서울(110.1), 대전(105.8), 강원(105.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91.2), 경기(92.1), 인천(94.5)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음. 특히 서울 지역은 3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함

□ 지역 기부 유형화 및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 내 기부 행위 촉진 및 기부 문화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인의 분포는 높은 수준의 지역적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법인 분포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차가 있었지만, 평균 모금액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역 불균형이 발견됨. 이는 관련 기관이 지역 사회의 규모나 경제적 자원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한편, 기부 관련 행위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보임. 규모가 작은 지역도 기부율과 같은 지표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이는 10만명당 기부자 수라는 기부율 계측의 특성상 분모에 해당하는 지역 인구수가 적으면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과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기부 관련 조직의 높은 지역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기부율이 높다는 점은 한국 사회 기부 문화 확산의 자발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역 단위에서 보았을 때 기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기부액 평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기부 문화 확산과 함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한국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역의 소액 기부자들의 기부 행위를 유지,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개입 전략이 필요함

- 회귀분석 결과에서 기부율의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음. 이는 기부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역 간 편차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고착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추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기부율 변화에서도 부정적 추세가 포착될 수 있을 것임. 기부 촉진, 기무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부 문화의 고른 확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2. 제언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역별 나눔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 모금수준의 편차를 극복하고 기부 문화를 골고루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특히, 기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인이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빈곤율과 노령화율이 높은 지역에는 법인이 부재한 경우, 나눔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둘째, 기관의 모금전략 구성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결과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 모색에 시사점을 제공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기부를 확대하고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기부 방법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기부 방법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2차 자료의 활용 및 접근 한계와 범위의 협소함을 확인함. 이는 정확한 분석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따라서 나눔 연구의 지속성

과 정확성 제고 및 나눔문화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또한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나눔의 지역별 차이 발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연구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함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 위기는 장기적 경기침체를 야기하였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세계 경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World Bank, 2020).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중산층 몰락, 양극화 심화, 고용 감소에 따른 청년 실업 급증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김교성 외, 2015; 한창근 외, 2016),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 본격화, 1인 가구 급증 등 인구·가족 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돌봄 수요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영향은 경기위축과 노동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김형용 외, 2020).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은 복지재정 부족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원 확보는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Schulz and Hafliger, 2007). 특히, 공공부문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는 나눔(philanthropy)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Fyfe, 2005). 나눔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복지재원 마련의 의미는 물론이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생산과 축적 측면에서 중요하다(조주희 외, 2014). 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 인식을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576만 명에서 2045년 2,7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노인부양비는 2011년 15.0명에서 2020년 21.7명으로 급증하고 있다(통계청, 2020. 「장래인구추계」).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 가구에서 2018년 585만 가구로 증가하였고, 일반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5년 27.2%에서 2018년 29.3%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19, 「1인 가구」).

반영하듯이 사회복지자원 총량 연구 또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 규모 중심에서 점차 기부, 자원봉사 등 민간나눔자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범위와 내용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하에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간나눔자원 규모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해 왔다. 해당 연구들은 나눔 개념에 대한 정교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전 연구에서 수행한 접근방법과 결과에 기초하되, 분석 및 접근방법을 수정·보완하며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 왔다(조주희 외, 2013; 김교성 외, 2015; 한창근 외, 2016; 김소영 외, 2018). 선행연구를 통해 나눔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나눔지수 구성의 논리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전국 및 지역 단위에서의 나눔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나눔자원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핵심 주체(provider)인 개인과 법인을 중심으로 지역의 나눔자원 총량을 추계한 연구 결과는 지역별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나눔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나눔 총량을 측정하기 위해 포함한 항목들 중 법인 매출대비 기부 등 일부 항목들이 지역의 나눔을 대표하기에 제한적이라는 한계와 나눔 정의를 반영하여 포함한 부가지표의 타당성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와 동시에 직관적이고 유용한 나눔지수 도출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의 연구 설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눔지수에 대한 선행연구(조주희 외, 2013; 김교성 외, 2015; 한창근 외, 2016; 김소영 외, 2018)의 접근방법과 결과에 기초하면서 상술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나눔지수 항목을 재검토하고 지수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모금 법인(또는 재단)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모금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부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기부금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노연희, 2016) 주요한 나눔 인프라로 판단하여 분석에 반영하고자 한다. 나아가 나눔지수 산출 과정의 간결성과 직관적 이해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별 개인 나눔수준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화 및 개인 나눔수준 매핑을 활용한 시각화를 통해 연구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민간나눔자원 확대 전략은 사회문제가 대두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불평등 심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World Bank, OECD 등

에서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의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면(OECD, 2019) 민간나눔자원 확대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과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기부와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의 지역별 나눔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기기부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부 추이와 지회별 개인기부자 규모 및 기부금액을 파악한다. 둘째, 핵심적인 나눔 지표를 구성하여 광역시도 단위별 나눔지수를 산출한다. 셋째, 지역의 나눔 현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지역 및 개인차원에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분석을 위해 『사회조사』, 『혈액사업통계연보』, 『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개인 기부 수준에 대한 매핑(choropleth map)을 활용한 공간시각화를 통해 기부 수준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파악한 지역별 나눔 규모와 나눔지수 차이 및 지역별 나눔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별 나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 및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나눔현황, 나눔지수, 기부 유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지역별 나눔지수 도출 및 기부유형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지표구성 과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사회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부, 개인자원봉사 현황을 파악하고, 『혈액사업통계연보』와 『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기증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기부자 현황을 파악한다. 5장에서는 지역별 나눔지수를 산출하고, 6장에서는 지역별 개인기부수준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형화 및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진행하며 개인 기부수준 매핑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시각화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결론 및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함의를 제시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나눔 현황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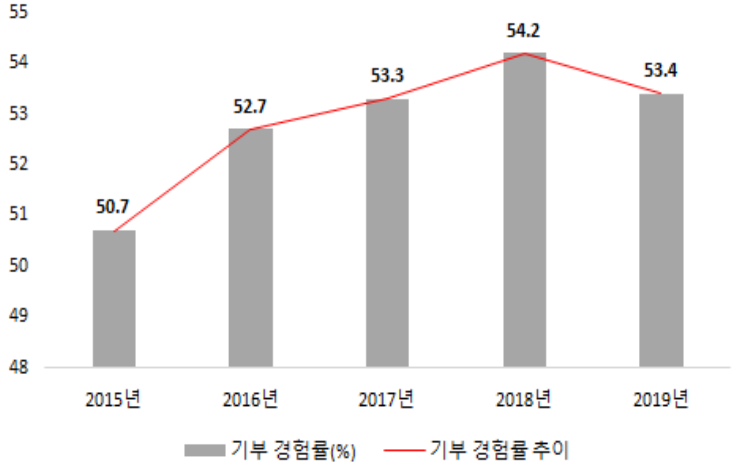
국내의 기부 및 나눔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나눔실태 조사, 아름다운 재단에서 실시하는 Giving Korea 조사, 국세청 통계연보, 한국복지패널,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각 조사 내용을 개괄하고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나눔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눔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나눔실태 조사는 한국사회 나눔 전반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 국내 나눔 전반의 실태 분석과 나눔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나눔실태 보고서는 2013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간된 『나눔실태 2018』은 2017년 한 해의 기부 경험에 대한 문항과 나눔 참여에 대한 기본 인식, 기부단체/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나눔실태 2018』에서 정의하는 기부 개념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익목적을 위해 현금이나 물품(음식, 옷, 장난감 등)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조금, 정치적 후원금, 친목회비, 십일조 그리고 주일헌금, 보시와 같은 종교적 헌금 등은 제외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나눔실태 2018』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3.4%가 최근 1년(2018년 8월에서 2019년 7월까지) 사이에 기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2018년도 기부 참여비율인 54.2%보다 0.8%p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기부 경험이 있는 534명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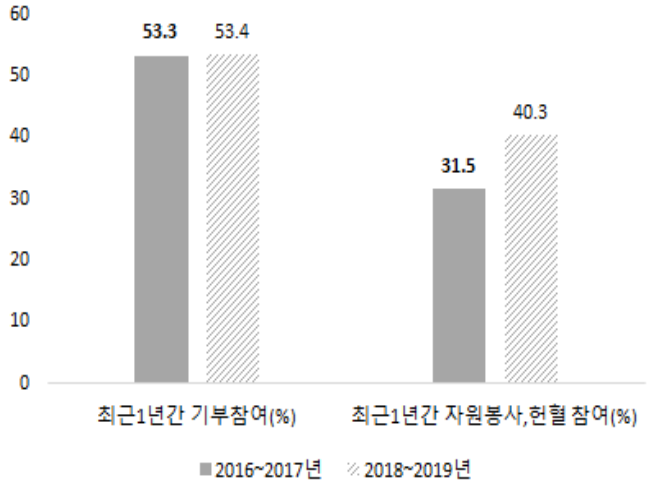
자들은 평균 39.6만원을 현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10~50만원 미만'을 기부한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방법으로는 57.9%가 '지로/계좌이체'로 기부한다고 응답하였다. 기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9.1%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52.8%가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기부를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을 꼽았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의 기부 경험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간 기부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나눔실태 2018』.

[그림 2-1] 2015-2019년 기부경험률 추이

또한 최근 1년간 자원봉사/헌혈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40.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결과이다. 자원봉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335명에게 자원봉사를 하게 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지인, 모금 기관, 관련 조직, 종교단체 등 주위의 요청을 받아서'가 29.9%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원봉사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



주: 최근 1년간 기부, 자원봉사, 헌혈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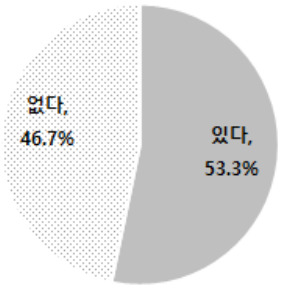
[그림 2-2] 최근 1년간 기부, 자원봉사, 헌혈 참여율 변화

2. Giving Korea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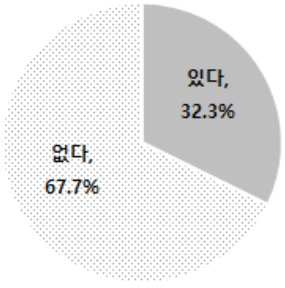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나눔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영리기관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홀수년도에는 법인, 짝수년도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연구인 『2018 기빙코리아(일반국민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기부를 경험한 사람은 53.3%(1,072명)이고 기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46.7%(939명)로 분석되었다. 2015년 조사에서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 45.6%인 것과 비교할 때 기부 경험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원봉사 경험은 경험한 사람이 32.3%(650명),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67.7%(1,361명)로 분석되며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에 비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부와 자원봉사 경험 중복 여부에 대해 22.5%(452명)가 모두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기부 경험만 있는 사람이 30.8%(620명), 자원봉사 경험만 있는 사람은 9.8%(198명)로 기부경험자의 비율이 자원봉사 경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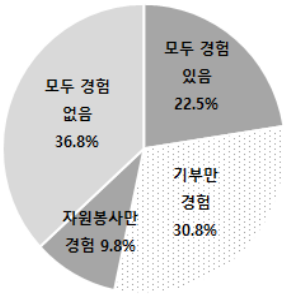
기부자의 경우 국내 사회복지 혹은 자선분야에 기부한 비율이 73.9%로 가장 높았으며, 해외구호 분야가 31.1%로 그 뒤를 따랐다. 2017년 한 해 동안 기부자들의 총 기부액 평균은 24.9만원이었으며, 20만원 이상 금액의 기부 비율은 31.3%, 1~5만원 금액의 기부 비율은 30.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기부자들이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는 '기부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가 42.2%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한 해 비기부자 중 일생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9%로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83.4%가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라고 응답했으며, 71.2%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확대'라고 응답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 단체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그림 2-3] 최근 1년간 기부경험



[그림 2-4] 최근 1년간 자원봉사경험



[그림 2-5] 최근 1년간 기부·자원봉사 중복 경험

자료: 아름대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2018). 2018 기빙코리아_일반국민 조사 결과표

기부문화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나눔 관련 조사의 연도별 설문 대상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연도별 기부문화연구소 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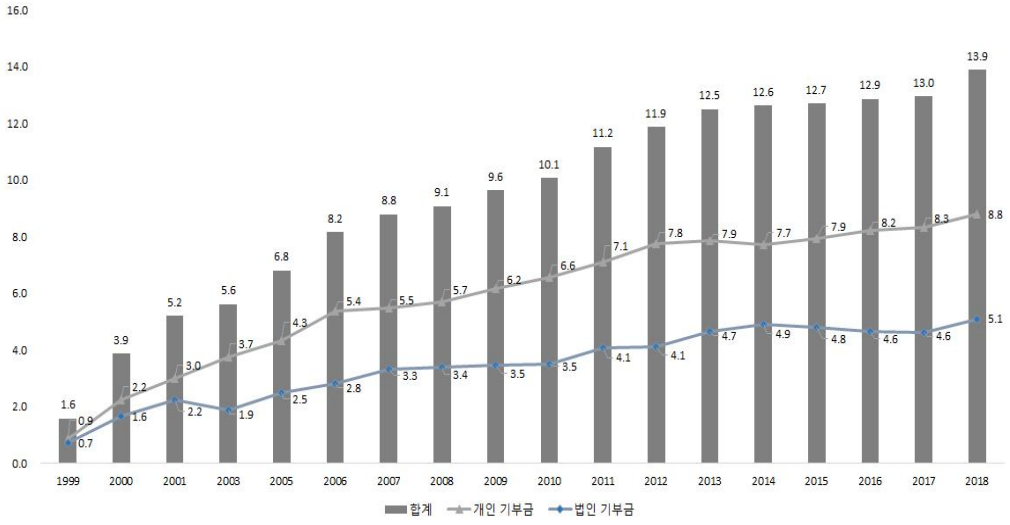
년도	설문 대상		특징
2019	비영리공익법인		· 비영리공익법인의 실무조직, 윤리와 투명성, 이사회, 사업환경/전망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
2018	개인	일반국민	· 2018년에는 일반국민과 모금 실무자로 나누어 설문이 진행됨 · 일반 국민 대상 문항은 기부 실태, 자원봉사 실태, 기부관련 세부사항(기부요청방식 호감도, 삶의 만족도, 기부 및 기부단체 관련 의견, 기부관련 신뢰도) 등을 포함 · 모금실무자 대상 문항은 한국사회 기부자 관련 특성, 기부단체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모금환경에 대한 인식 및 신뢰도 등을 포함
		모금실무자	
2017	비영리공익법인		· 기존의 기업기부지수를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황 및 실태조사로 개편
2016	개인	기부자	· 기부실태조사 문항 위주로 대폭 축소됨 · '기부자 인식조사 설문지', '비기부자 인식조사 설문지', '모금실무자 인식조사 설문지' 세 가지 설문지로 구성됨
		비기부자	
		모금 실무자	
2015	국내 다국적기업		· '국내 다국적기업 사회공헌조사 설문지', ' 기업사회공헌 실태조사 설문지' 두 가지 설문지로 구성됨 · 기업사회공헌 실태조사 설문지의 경우 2013년의 설문지에서 문화진흥에 대한 세부문항이 생략됨. 다른 문항은 동일
	기업		
2014	개인		· 자원봉사 실태, 현금 및 현물 기부 실태, 종교적 기부, 상호부조 등 다양한 나눔의 형태를 조사 · 조사범위에 비해 전체 표본수가 1,000여명으로 작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표본수가 확보되지 않음
2013	기업		· 국내 매출액 2,000위 이내 기업의 기부 활동, 문화진흥 활동, 해외구호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 사회공헌 활동 추진의 결정요인 및 방해요인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됨

자료: 아름대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2013~2019). Giving Korea 2013~2019.
주: 김소영 외(2018: 42) 연구에서 정리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내용에 2018년과 2019년 내용을 추가하여 구성함

3. 국세통계연보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9년 『국세통계연보』는 신규통계 20개를 포함하여 총 510개의 통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제대상 기부금 내역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국세청의 세법상 공제대상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 2019.12.27.).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기부금 총액은 [그림 2-6]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된 2018년 공제대상 기부금은 2017년도 12조 9천 억 원에 비해 다소 상승 총 13조 8천 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단위: 조원)



[그림 2-6] 국내 기부금총액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이와 같이 국세청 통계연보는 국내 기부금 총액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부금 항목에 정치적 후원금, 우리사주조합, 임의단체 공무원 회의, 종교적 기부금은 포함하였으나 민간의 중요한 나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원봉사

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구성한 나눔자원 항목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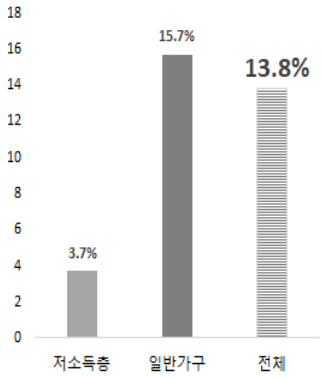
4. 한국복지패널 연구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은 외환위기 이후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형성에 기여하고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2006년에 출범한 패널조사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19년 14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기준 시점은 2018년이며 전체 조사 대상인 6,612가구 중 95.75%인 6,331가구가 조사 완료되었다(여유진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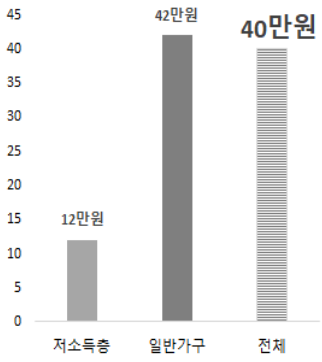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나눔과 관련된 문항은 가구원 설문지 중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에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2018년 1년간 얼마 정도 기부하셨습니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1년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13.74%만이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며 나눔 관련 다른 조사에 비해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3.66%, 일반가구의 경우 15.65%가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여 일반가구의 비율이 저소득 가구보다 4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과대표집 된 표본의 성격이 다른 조사들에 비하여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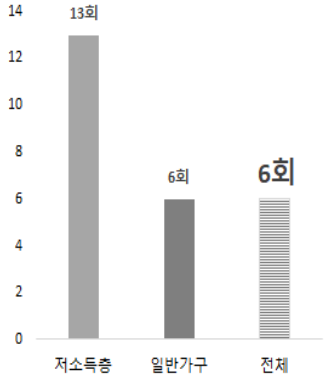
가구원의 기부액수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 기준으로 평균 약 40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가 평균 약 42만원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의 평균인 12만원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이다. 연간 자원봉사횟수는 전체 가구에서 6회로 나타났으며, 이를 소득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평균 13회로 일반가구(6회) 보다 봉사활동 참여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정도와 연간 기부 액수의 크기가 일반 가구보다 적게 나타났으나 자원봉사활동 횟수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7]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그림 2-8] 연간 기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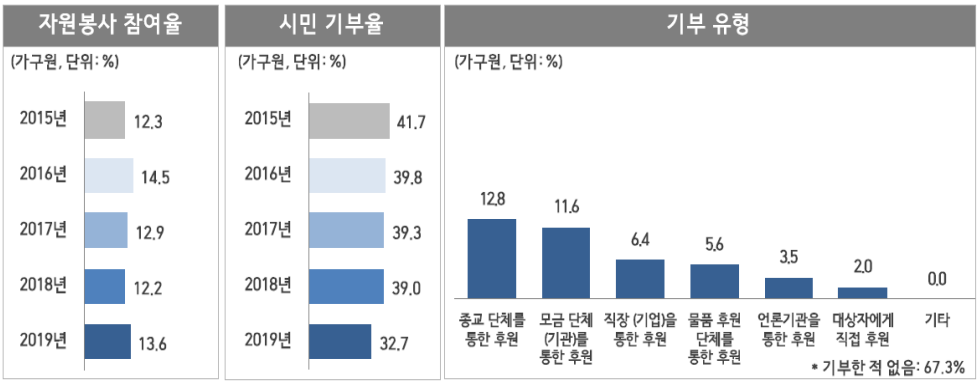
[그림 2-9]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자료: 아름대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2018). 2018 기빙코리아_일반국민 조사 결과표

5.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서울시의 나눔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서울시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시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는 종합통계조사이다(서울특별시, 2020). 2003년부터 매년 서울 25개 구에 거주하는 20,000가구의 세대주 및 만 15세 이상의 세대원 5,000명,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형태는 격년주기의 순환조사로, 기본 모듈(인구와 가구, 경제, 주거와 생활)은 매년, 모듈 A(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거버넌스, 복지와 여성, 가치와 의식)와 모듈 B(교육과 보육,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는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는 모듈 B로 진행되었고, 나눔 관련 부분은 포용 분야의 '기부' 항목과 스마트시티 분야의 '자원봉사'에 포함되어 있다. 자원봉사 활동 여부는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경험이 있으십니까?'와 '참여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음 분야별로 연간 참여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의 두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 기부는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주십시오.'의 두 질문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2019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3.6%로 2018년 12.2%보다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에 대한 문항에서 서울 시민의 32.7%가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2015년 41.7%, 2017년 39.3%와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부 방법은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이 12.9%로 가장 많았고, 모금 단체(기관)를 통한 후원이 11.6%, 직장(기업)을 통한 후원이 6.4%, 물품 후원단체를 통한 후원이 5.6%,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이 2.0%로 나타나 종교단체나 모금 기관을 통한 후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10] 최근 1년 간 자원봉사 참여율, 시민 기부율, 기부 유형

자료: 서울특별시(2020). 2020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2019년 기준). p 70.

제2절 나눔지수 연구

1. 국외 나눔지수 연구

국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눔지수 연구들은 단순한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나눔지수를 측정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에서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세계나눔환경지수(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아시아 공익활동 환경평가 지수(Doing Good Index) 등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World Giving Index (세계기부지수)

World Giving Index(세계기부지수)는 나눔과 관련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대표적인 지수이다. 조사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전 세계 140여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나눔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문항은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세 영역의 참여율을 합산하여 도출한 평균값을 나눔지수로 산출하여 국가별 순위를 정한다(김교성·강정한, 2015; 김소영 외, 2018; Charities Aid Foundation, 2019: 4).

『World Giving Index 2019』는 World Giving Index 시행 10년을 기념하는 보고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주요 12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의 누적 결과가 제시되었다. 10년간 누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기부지수는 58%로 10년간 세계에서 기부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미얀마와 뉴질랜드의 기부지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특히, 뉴질랜드는 세 가지 기부 지수 모두 상위 10위에 드는 유일한 국가로 나타났다.

<표 2-2> 2009-2018 세계기부지수 상위 20위 국가들(World Giving Index)

	세계기부지수		이웃돕기	기부	자원봉사
	순위	점수(%)	점수(%)	점수(%)	점수(%)
미국	1	58	72	61	42
미얀마	2	58	49	81	43
뉴질랜드	3	57	64	65	41
호주	4	56	64	68	37
아일랜드	5	56	62	69	38
캐나다	6	55	64	63	37
영국	7	54	60	71	30
네덜란드	8	53	53	71	36
스리랑카	9	51	55	50	46
인도네시아	10	50	42	69	40
케냐	11	47	68	38	37
말타	12	47	45	71	24
스위스	13	45	48	56	32
아랍에미리트	14	45	63	52	19
오스트리아	15	45	53	53	27
덴마크	16	44	52	58	22
라이베리아	17	44	77	12	43
독일	18	43	56	49	26
투르크메니스탄	19	43	53	32	43
시에라리온	20	42	74	21	33
· · ·	· · ·	· · ·	· · ·	· · ·	· · ·
한국	**57**	**32**	**43**	**34**	**20**

자료: Charities Aid Foundation(2019). World Giving Index - Ten years of giving trends.

보고서 내용에는 2009-2018년 10년간 조사에서 기부 수준 상승이 가장 가파른 국가와 이와 반대로 하락 수준이 가장 가파른 국가들도 보고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부 수준 상승이 가장 가파른 국가는 인도네시아, 케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라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이티, 르완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락 수준이 가파른 국가는

모로코,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모리타니,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폴란드 순이다.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기부 지수 순위는 57위(참여율 32%)로 분석되었다. 2017년 보고서에서의 순위가 62위(34%)였던 결과와 비교하면, 10년간 기부 지수 순위는 2017년보다 높은 수준이나 참여율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부 영역별 10년간 기부 지수 순위와 참여율을 살펴보면 이웃돕기 78위(참여율 43%), 기부 38위(34%), 자원봉사 53위(20%)를 기록하여 다른 영역에 비해 기부 순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세계기부지수 10주년을 기념하여 성별, 연령대별 기부 영역별 참여율을 공개하였다. 남성은 이웃돕기 49%, 기부 29%, 자원봉사 22%이며, 여성은 이웃돕기 46%, 기부 29%, 자원봉사 19%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15-29세에서 이웃돕기 49%, 기부 25%, 자원봉사 20%, 30-49세에서 이웃돕기 50%, 기부 31%, 자원봉사 21%, 50세 이상에서 이웃돕기 45%, 기부 32%, 자원봉사 2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나눔 행동의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World Giving Index는 기부/나눔에 대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가별 표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과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나.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세계나눔환경지수)와 Global Philanthropy Tracker

미국 인디애나 대학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연구팀의 세계나눔환경지수(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는 전 세계의 나눔 현황을 파악하고 나눔 활성화 강화 요인과 억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포괄적인 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나눔을 수행하는 단체 운영의 용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을 ①운영의 편의성(ease of operating), ②세제혜택(tax incentives), ③국제적 유동성(cross border flows), ④정치적 환경(political environment), ⑤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environment)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항목을 구성하고, 나눔 지원 환

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1.0에서 5.0 범위의 척도로 제시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된 총 79개국 중 약 2/5는 나눔 활동에 제한적인 환경으로 분석되었으며, 3/5은 나눔활동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분석되었다.2)

보고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눔환경지수가 높은 지역(미국, 캐나다, 북유럽 및 서유럽, 오세아니아 등)의 국내총생산량(GDP)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평균 지수인 3.41보다 낮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국가는 나눔 단체에 규제적인 정치 환경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운영의 편의성과 사회문화적 환경 관련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4.37점으로 조사되며 나눔 환경이 상위권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18).

최근, 미국 인디애나 대학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연구팀은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와 유사한 Global Philanthropy Tracker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 국제 및 부문 간 협력에서의 역할 수행, 국가간 혁신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 등 나눔 활동이 갖는 장점이 부각됨을 강조했다. 물론, 팬데믹 상황은 국경을 초월한 나눔 활동을 위하여 법적인 환경을 조정할 필요성과 함께 전 세계적인 나눔 기반을 개선할 필요성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Global Philanthropy Tracker 보고서는 개인과 기관 기부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자선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포착하고, 자선활동의 구체적인 흐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0).

2020년 Global Philanthropy Tracker 보고서에서는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송금액(remittances), 민간자본투자(private capital investment) 세 가지 유형의 자원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하위소득, 중하위소득, 중상위소득, 상위소득 등 경제 소득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47개의 경제국들은 ODA, 송금액, 민간자본투자 등을 포함해서 8,340억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기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https://globalindices.iupui.edu/environment/index.html

47개국에 대한 분석 결과, 상위소득 국가에서 국가간 기부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 유출(philanthropic outflows)의 대부분은 26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국가에서 발생하였으며, 상위소득 국가가 2018년 67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자선 유출액(philanthropic outflows)이 476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국이 50억 달러, 캐나다가 29억 달러였으며, 한국은 9억 달러로 7위에 해당하였다. 또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자선유출액(philanthropic outflows) 비중 역시 미국이 0.23%로 가장 높고, 덴마크가 0.21%, 영국이 0.1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한국은 0.05%로 14위로 나타났다.

조사한 국가 중 18개국만이 자선활동 금액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수혜국(beneficiaries)에 대한 정보를 발표한 국가는 16개국 이었고, 수혜국(beneficiaries)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나이지리아, 탄자이나,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 뿐 이었다. 보고서에서는 16개국의 양질의 국가 간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위한 국제 기준을 수립할 것, 기부기관 간 투명성 및 데이터 공유 규범을 구성할 것, 정부가 수집한 자선활동의 유입 및 유출에 대하여 개방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다. Doing Good Index (아시아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

Doing Good Index(아시아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는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enter for Asia Philanthropy and Society; CAPS)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18개 아시아 국가 내 비영리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부와 관련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비교한 연구이다.

Doing Good Index에서의 지표는 정부 규제, 세금 및 재정 정책, 공익 생태계, 정부 조달 네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 규제 분야는 사회 투자의 용이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부 활동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평가한다. 둘째, 세금 및 재정 정책에서는 기부자와 수혜자에게 주는 재정적 혜택을 다룬다. 셋째, 공익 생태계 분야는 소셜 섹터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제도적 연대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달 분야는 소셜 섹터에 대한 정부 조달의 유무와 절차를 다룬다. 각 영역에 대한 정의와 주요 지표들을 <표 2-3>과 같다.

<표 2-3> 아시아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Doing Good Index) 평가 영역과 주요 지표

구분	정의	주요 지표
정부 규제 (Regulations)	사회 투자의 용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부 활동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평가	① 효율성 - 등록을 위해 받아야 하는 승인 횟수, 승인 소요시간, 단일창구 존재여부 ② 기금의 흐름 - 해외 기부금 수령을 위한 승인 횟수, 해외 기부금 승인 소요시간, 해외 기부금 한도, 기금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들 ③ 책무성 - 보고를 위한 의무사항 개수, 이사회의 법적 책임 유무, 고위급 간부의 법적책임 유무, 규제의 집행 여부 ④ 소통 - 법의 접근성 및 가독성, 정책수립과정 참여
세금 및 재정정책 (Tax and Fiscal Policy)	기부자와 수혜자에게 주는 재정적 혜택 평가	① 기부자를 위한 혜택 - 개인 및 기업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요청이 수월함, 유산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 기업기부 의무화 ② 수혜자를 위한 혜택 - SDO를 위한 세금면제, 정부보조금 수령가능성, 미사용 잉여금에 대한 처벌
공익생태계 (Ecosystem)	소셜섹터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제도적 연대를 평가	① 대중의 인식 - SDO에 대한 신뢰도, 대중에 알려진 스캔들, 개인기부 수준 ② 제도적 인식 - 자선, SDO, CSR를 위한 혜택, 기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 기념일 ③ 인적 인프라 - 직원과 자원봉사자 고용, 역량강화 지원, 비영리섹터, 기부를 위한 대학교육 과정, 임금격차 ④ 거버넌스 - 이사회 존재여부와 구성원, 이사회 내 기업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 유무, 엘리트와의 연계
정부조달 (Procurement)	소셜섹터에 대한 정부조달의 유무와 절차 평가	① 조달사업 참여의 기회 접근성 - 조달사업 참여 자격, SDO에 특화된 혜택 ② 조달사업 진행절차 - 정보접근성, 투명성, 절차의 편의성

자료: 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2020). Doing Good Index 2020.

최근 발표된 『Doing Good Index 2020』은 2018년 조사보다 3개 국가가 더 포함되어 총 18개의 국가에서 2,189개의 사회공익단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145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며, 소셜 섹터에서 개인과 기관의 임시방편적인 기부를 넘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기부를 견인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0점에서 5점으로 18개국의 점수를 부여하고 각 국가를 Doing Well, Doing Better, Doing Okay, Not Doing Enough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

아시아 기부 시장 환경 요소를 평가한 결과 가장 적절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대만으로 분석되었으며, 해당 국가들은 Doing Well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미비하거나 복잡한 한국, 홍콩,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등은 Doing Better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등은 Doing Okay 그룹에, 기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열악한 캄보디아와 네팔은 Not Doing Enough 그룹에 해당되었다.

한국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모두 Doing Better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공익단체 재정 출처는 개인기부가 82%, 기업기부가 55%, 정부보조금이 33% 순으로 나타났다. 법의 이해도에 대한 질문에서 77%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조달계약이 있는 단체의 비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SDO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서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는다고 응답한 단체는 13%에 불과하였다. 단체의 개인 기부에 대하여 개인기부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81%로 분석되었고, 개인 기부가 낮은 주요 원인으로 사람들이 SDO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사람들이 기부를 할 충분한 자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새로운 기부방법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하여 26%의 단체가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0%가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국에 대한 종합평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비영리 섹터 내 대규모의 스캔들 폭로, 새로운 기부방법(온라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조직인 사회적 기업이 기존 기부자와 비정부기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도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로 관심을 돌리면서 소셜섹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고되어 소셜섹터에 호의적인 기부환경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11] Doing Good Index: four cluster

자료: 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2020). Doing Good Index 2020.

지금까지 살펴본 나눔 국제 지수들 중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와 Doing Good Index는 나눔을 증진하는 국가별 환경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해당 지표에는 나눔 단체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국가의 법적·제도적 규제나, 개인과 기관이 나눔을 선택하게 하는 세금 정책 등이 포함되어 국가의 개인 기부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지표로 국가의 나눔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는 79개국, Doing Good Index는 아시아 18개국 등 일부 국가의 나눔 환경만을 평가하고 있으나 World Giving Index는 Gallop의 World Poll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2018년 기준 143개 국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가장 많은 국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많은 수의 국가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표본 수 평균은 약 1,000명이며 일부 소규모 국가는 500명~1,000명 정도로 제한적이다.

표본의 제한은 조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 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어려운 섬 등 외딴 지역의 경우 조사가 어렵다는 문제에서 기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표본 선택의 편향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Charities Aid Foundation, 2019: 22). 또한 모든 국가에 동일한 세 개의 질문으로 조사가 시행되므로 해당 질문만으로는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역별 나눔 지수 구성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국외 나눔 지수는 World Giving Index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나눔 지수의 구성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한계로 인해 나눔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6개국에 불과하다(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0). 즉, 현재 상황에서 국가별 나눔 규모를 추산하고 지수화하여 비교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 나눔지수 연구

나눔지수 관련 국내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해왔다. 2015년 『한국사회나눔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2016년 『민간나눔자원 총량추계 및 나눔지수 도출 연구』, 2018년 『2018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및 나눔지수 도출연구』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나눔지수를 다루지는 않았으나, 나눔지수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의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수 연구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김용하 외(2009) 연구는 OECD 30개 국가들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해 행복지수(well-being)를 측정하였다. 행복지수는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 연관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요인을 포함한 객관적 지표와 생활만족도로 산정한 주관적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지표 구성 과정에서 자료의 대표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남상호 외(2012) 연구는 OECD 30개 국가의 보건복지지수를 구성하여 각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보건복지지수는 보건지표(건강, 비의료적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 보건의료이용)와 복지지표(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를 도출한 후 종합지표를 산출하여 구성하였다. 이봉주 외(2014)의 연구는 아

동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8개 영역과 47개 지표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시도별로 비교하였다.

김미곤 외(2017)의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요인별 가중치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하는 연구로 행복지수를 도출해 안정성과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영역과 각 영역의 측정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역과 지표의 타당성을 묻는 1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 영역과 지표 체계는 삶의 가치와 목표 영역 등의 7개 영역과 36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에서 각 영역과 하위지표의 상대적 가중치를 확인하였고, 동시에 일반 국민 대상으로 행복도와 영역별 만족도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가와 일반국민 조사의 차이가 드러났는데, 전문가들은 일, 건강, 관계 영역에 중요도를 두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삶의 가치와 평가, 생활의 질과 경제적 만족, 주거와 환경의 질, 거버넌스의 질 영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또한 구성한 척도로 국민의 행복도와 행복격차를 살펴본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행복 수준을 나타내었다. 행복 격차 분석에서 저소득층은 행복의 평균이 낮고 내부 분산도 또한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이외에도 행복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지수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지수 관련 국내 선행 연구

년도	분석대상	지수유형	지수결과	비고
김용하 외 (2009)	OECD국가 행복지수	①경제적 자원 ②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③사회적 요인 ④환경 ⑤주관적행복	·종합순위1위(지수값)는 스위스(0.74) ·한국25위(0.47)	국가 비교
남상호 외 (2012)	OECD국가 보건부문과 복지분야로 나누어 지수화	·보건지표 ①건강상태②비의료적건강 결정요인③보건의료자원 ④보건의료이용지표 ·복지지표 ①경제활력②재정지속 ③복지수요④복지충족지표 ⑤국민행복	·한국은 보건복지종합지수에서 상위그룹에 속함(20위/34개국) ·한국은 경제활력도와 복지재정 지속성 분야에서 양호한편이었음	국가 비교
이봉주 외 (2014)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지수, 전국16개 시도의 만8세, 만10세, 만12세 학생과 학부모	·8개 지표 -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교육, 위험과 안전,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종합지수 - 대전1위 - 경북하위	국내 지역 비교
김미곤 외 (2017)	전문가조사와 일반국민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행복 수준 및 불평등 설문조사	·삶의 가치와 평가, 관계,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일, 건강, 거주 및 환경의 질 등 7개 영역 36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학력수준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행복수준 ·저소득층은 행복의 평균이 낮고, 내부 분산도도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큼	한국인 행복 지수 도출 및 국민 행복 수준 평가

자료: 김용하 외(2009), 남상호 외(2012), 이봉주 외(2014) 연구내용은 김소영 외(2018: 59) 재인용.

상술한 연구들이 나눔지수 도출시 참고할 수 있는 '지수' 관련 연구였다면 본 연구의 핵심인 나눔지수를 도출한 선행연구는 김교성 외(2015)와 한창근 외(2016) 그리고 김소영 외(2018) 연구이다. 세 연구는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행하였으며, 나눔 개념을 확장한 대안적 개념을 수립하여 나눔지수를 도출하였다. 각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교성 외(2015)와 한창근 외(2016)에서는 나눔종합지수를 크게 기부지수, 핵심지수,

그리고 부가지수로 나누고 기부지수에는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 핵심지수에는 기부지수와 상호부조, 부가지수는 핵심지수와 사회참여 및 네크워크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 분석자료는 2차 자료인 통계청 『사회조사』를 원자료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간과 공공기업의 기부금 자료, 적십자사의 혈액통계연보, 장기기증 연보, 푸드뱅크의 전국단위 현물기부 통계, 재정패널 등 다양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17개 지역별 나눔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나눔 개념을 확장하여 헌혈과 장기기증, 가구단위 경조사비도 나눔에 포함하며 한국사회의 나눔 특성을 반영한 특징이 있다. 해당 연구들은 종단적으로 우리 사회 특히 각 지역의 나눔 수준을 간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지수를 도출하고, 추이를 추적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며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분석하고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나눔 지수 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관점을 공유하는 연구로 김소영 외(201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 민간과 공공 법인의 기부금 총액을 합산하여 민간나눔자원의 총량을 파악하고, 9개의 나눔 지표를 통하여 광역시도 단위별 나눔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시계열적으로 나눔 자원의 규모나 수준 추이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2017년 기준으로 민간나눔자원은 9조 2,621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나눔지수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핵심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개인 현금기부는 서울, 자원봉사는 제주, 법인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은 대전에서 가장 높았다. 현물 기부 관련 지표들에서는 개인 물품기부는 서울, 헌혈은 대전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가지표 중, 가구 상호부조는 전남, 사회적 관계망은 제주, 단체참여는 인천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해당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해왔던 나눔 관련 연구에서 적용한 다양한 나눔 정의를 수용하여 확장된 개념으로 나눔을 정의하고, 지수를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핵심적 지표인 개인 현금 기부, 자원봉사, 법인 기부 등을 나눔 자원 추정에 사용하여 향후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눔 지수의 경우 김교성 외(2015), 한창근 외(2016)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한 이전 연구의 지표들을 준용하였으나 세 가지 지표 이외에도 현물기부, 헌혈, 장기기증의 지표를 추가하며 더

욱 확장된 상호호혜의 나눔인 상호부조, 사회적 네트워크, 단체참여 지표들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와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나눔지수를 확인하고 나아가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관점을 가장 밀접하게 공유하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5> 국내 나눔 지수에 관한 선행연구

년도	분석대상	지수유형	지수결과	비고
김교성 외 (2015)	한국 나눔자원 지수, 개인, 가구, 기업	기부지수(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 핵심지수(기부지수, 상호부조), 부가지수(핵심지수, 사회참여와 네트워크)	2011년 기부지수는 서울1위, 핵심 및 부가지수는 서울과 울산이 1위 2013년 기부, 핵심, 부가지수모두 서울과 대전1위,	국내 지역 비교
한창근 외 (2016)	한국 나눔자원 지수, 개인, 가구, 민간기업, 공기업		2015년 기부지수는 강원1위, 핵심지수는 강원1위, 부가지수는 강원1위	국내 지역 비교
김소영 외 (2018)	민간 나눔자원 총량 추계, 나눔지수, 개인, 법인	민간나눔자원 총량 - 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 법인 현금기부 기부지표 - 기부지표(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 법인매출 대비 기부), 확대지표(개인 물품기부, 헌혈, 장기기증), 부가지표(가구 경조사비, 사회적 관계망, 단체참여)	2017년 개인, 법인의 나눔 자원 총량 9조 2621억원 각 1위 지역은 개인 현금기부 서울, 자원봉사 제주, 법인 기부 대전, 개인 물품기부 서울, 헌혈 대전, 가구 상호부조 전남, 사회적 관계망 제주, 단체참여 인천	총량 추계 및 국내 지역 비교

자료: 김교성 외(2015), 한창근 외(2016) 연구내용은 김소영 외(2018: 59) 재인용.

상술했듯이 국내에서 진행된 나눔 지수 관련 연구들은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행되었다. 해당 연구들은 기부, 자원봉사, 이웃도움 등 세 질문만을 포함하여 나눔 지수를 구성한 World Giving Index와 비교할 때 더욱 다양하고 확대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의 다양한 기부 관련 자료들과 결합하여 나눔 추이를 추적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구에서 구성한 나눔지수를 통해 국내 광역시도별 지역 비교를 시도해 지역 간 차이를 규명한 것도 해당 연구가 갖는 차별화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의 한계로 나눔 지수 비교가 시군구 단위로 확장되지 못하고 광역시도별 지역차이 비교에 그쳤다는 점과 일부 지역의 경우 법인 매출대비 기부 지표가 지역의 나눔을 대표하기 제한적이라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지수를 단순히 차이로 환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나눔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나눔 유형을 구분하고 각 지역의 나눔 유형이 갖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나눔지수에 대한 선행연구(김교성 외, 2015; 한창근 외, 2016; 김소영 외, 2018)를 통해 사회 전반의 나눔 수준과 각 지역별 나눔 수준의 추이 파악 및 비교가 가능했음을 고려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2019년 나눔지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보다 간결하게 나눔지수를 산출하고 도출된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값을 조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의 나눔지수 도출 과정에서 고려한 법인 매출대비 기부 항목이 지역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부가지표 포함의 타당성 문제 등 기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나눔지수를 구성하기 위해 활용한 나눔지표와 각 지표에 포함된 항목을 정리하면 [그림 2-12]와 같다.

김교성 외(2015), 한창근 외(2016) 나눔지수 연구

지표명			항목
부가지수	핵심지수	기부지수	①개인 현금기부
			②개인 자원봉사
			③법인 현금기부
			④개인 물품기부
			⑤헌혈
			⑥장기기증
			⑦가구경조사비
			⑧사회적관계망
			⑨단체참여

→

김소영 외(2018) 나눔지수 연구

지표명				항목
나눔지수	확대기부지수	기부지수	기부지표	①개인 현금기부
				②개인 자원봉사
				③법인 매출대비기부
			확대지표	④개인 물품기부
				⑤헌혈
				⑥장기기증
			부가지표	⑦가구경조사비
				⑧사회적관계망
				⑨단체참여

↓

본 연구의 나눔지수

지표명	항목
핵심지표	①개인 현금기부
	②개인 자원봉사
확대지표	③헌혈
	④장기기증

[그림 2-12] 나눔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항목

제3절 지역별 나눔 영향요인

1. 나눔 지역비교 관련 요인의 분류

지역별 나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류하기 전에 지역비교 관련 요인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한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chuyt(2010)는 국가수준의 자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언급하였으며, Bieilefeld, Rooney, Steinberg(2005)는 미국 주(state)의 기부가능성과 기부총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주의 경제적 요소, 지출 관련 요소, 정치적 요소 등을 설명하고 있다. Zheng, Chen, Ong(2019)는 환경 자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개인적 요인(나이, 성별, 교육수준, SES), 문화적 요인(종교, 유물론 영향), 지역 수준 요인(환경 운동의 역사, 복지국가 레짐)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Einolf(2017)는 비서구 114개 국가의 자선·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부 관련 지역비교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인구통계학적 요인, ② 사회경제적 요인, ③ 문화적 요인, ④ 제도적 요인의 네 가지로 분류가능하다.

추가로 최근 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요인은 '사회적 자본' 요인(혹은 친사회적 요인)이다. Putnam의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언급되는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부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살펴보는 국외 연구는 Bekkers & Veldhuizen(2008), Clerkin et al. (2013), Glanville, Paxton, Wang(2016) 등이며, 국내 연구는 박세경 외(2009), 임선영, 민소영(2015), 강철희, 황지민, 오양래(2015) 연구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기부 관련 지역비교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섯 번째 요인으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 요인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다.

2. 인구통계학적 요인

지역별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수준의 차이를 통하여 자선 행동의 지역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가령, 기부를 증진하는 개별적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구성원의 기부 가능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Wiepking & Handy, 2015).

성별 차이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기부 및 자원봉사 관여도가 더 높다고 보고된다(강철희, 유재윤, 박소현, 2012; 강철희, 황지민, 이경혜, 2015; 최은숙, 이석호, 2011). 다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부참여 비율은 높으나 기부금액은 남성의 기여가 더 높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구지윤, 2013).

연령 역시 기부 행동의 주요 지표로 언급된다(Schuyt, 2010). 국내에서는 연령이 기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강철희 외, 2012; 강철희 외, 2015; 임선영, 민소영, 2015). 이와 동시에 연령이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하게 보고되는데, 30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 헌혈자 비율이 낮으나(Bekkers & Veldhuizen, 2008), 퇴직자나 노인이 많을수록 자원봉사 비율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대표적이다. 이는 퇴직이나 노화가 지역의 비영리단체와의 연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Clerkin et al., 201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부 수준이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교육 수준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설명이 소개되고 있다. 첫째, Wiepking & Handy(2015)는 한 국가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기부에 더 관대한 이유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수입과 지식의 형태로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Schuyt(2010)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세계시민'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기부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실증연구들에서도 이와 같은 가설을 지지하고 있는데, Clerkin et al(2013)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의 기부가 더 활발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Bekkers & Veldhuizen(2008) 연구에서는 지역거주자들의 교육 수준은 헌혈자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부 금액에는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혼 여부 역시 주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소개되는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많이 기부한다는 결과는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바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강철희 외(2012), 임선영, 민소영(2015)에서, 국외 연구에서는 Clerkin et al.(2013)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많이 기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외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Schuyt(2010)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가족 규모의 축소 등의 요인이 국가 수준의 기부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소득 수준 역시 기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다. Bekkers(2016)는 개인의 재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기부참여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서의 높은 가구소득, 재정적 안정감 등이 높은 자선 수준과 연관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소득 수준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 수준 역시 지역의 나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찰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3. 사회경제적 요인

기부자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누가 기부하는가'(인구통계학적 요인)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언제 기부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부자의 지역별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한다(Bekkers, 2016). 기부자들이 언제 기부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얼마나 인지하는지와 관련된 '필요의 인식'과 지역 내에 기부 캠페인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와 관련된 '권유' 요인이 지역 기부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Bekkers(2016)는 '필요의 인식'은 지역의 자선적 기부를 추동하나, 잠재적으로 '권유'가 많은 기관 근처에 살수록 기부를 더 많이 한다는 가설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한편 지역의 소득수준이나 지출 등 재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은 '비용과 이익'의 측면에서 지역의 자선 수준과 연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Bekkers가 제시한 기부의 지역별 특성 요인 중 '필요의 인식', '권유', 그리고 '비용과 이익'의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필요의 인식'은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를 얼마나 밀접하게 인식하는가와 관련된다. 국내의 연구들은 지역의 저소득층 비율, 장애인/노인 비율 등이 개인의 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임선영과 민소영(2015)은 지역의 저소득층 비율이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나, 지역의

아동, 노인, 장애인 비율은 기부참여와 금액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황성철(2000)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의 후원금 모금이 일반지역보다 더 낮으며, 자원봉사자수도 더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언정(2011)은 지역의 높은 노인비율 등 지역사회의 복지수요가 높을수록 여러 기부 이슈 중 지역사회 문제에 기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언론의 영향력도 기부자들이 '필요를 인식'하기 위한 요인으로 설명된다. Bekkers(2016)는 지역의 사회복지 필요를 '인식'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뉴스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가 있고 뉴스미디어가 높은 수준일 때 사회적 필요를 더 잘 인식하여 기부하게 되며, 특히 미디어가 초점을 맞추는 대상에 따라 지역의 기부 대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McDonald & Scaife(2011)는 미국과 호주의 기부문화에 대한 미디어의 효과를 탐구하고 있다. 두 국가의 미디어에서 모두 자선을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나 기부 장려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미국의 경우 자선활동을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장려되지만, 호주의 미디어에서는 자선을 과소평가하여 덜 장려된다고 결론을 내리며 기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지역에서의 기부의 '권유' 가능성은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의 수 등과 관련되어 연구되었다. 국내 연구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수 등 기부 권유 가능성이 기부에 영향을 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Bekkers(2016)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데, 임선영과 민소영(2015)은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 수가 기부참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부금액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언정(2011)은 지역의 복지관 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 문제에 기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보고한다. 국외 연구에서도 지역에서 활발한 자선기관수와 기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ielefeld, Rooney, Steinberg, 2005).

'비용과 이익'은 지역의 소득 및 지출 수준과 연관된다. 개인의 재정수준 뿐 아니라 경제가 안정된 지역에 사는 경우 재정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높은 GDP, 국부, 낮은 불평등 수준이 기부와 관련된다고 분석한다(Bekkers, 2016). Schuyt(2010) 역시 세계적으로 자선 수준이 높아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전반적인 부의 증가를 언급하고 있다.

기부 지수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의 소득수준과 기부수준과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다. 2018년 Global Philanthropy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GDP나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자선지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데, 미국과 캐나다, 북유럽 및 서유럽, 오세아니아 등 소득수준 높은 국가에서 자선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Bielefeld, Rooney, Steinberg(2005)는 미국의 주(州)의 기부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 빈곤할수록 기부가 적어지며,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기부가 많아진다는 가설은 대체로 사실이나 종교적 기부 영역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Einolf(2017)는 국가의 GDP가 서구국가와 비서구국가의 자선참여를 모두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소득격차가 클수록 전체 기부가능성과 비종교적 기부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종교적 기부는 오히려 적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ielefeld, Rooney, Steinberg, 2005).

소득 수준 뿐 아니라 지출과의 연관성도 중요하게 보고된다. Bielefeld, Rooney, Steinberg(2005) 연구에서 지역의 전체 지출, 건강지출과 기부의 상관관계 드러났으나, 교육지출이나 서비스 지출과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는 광역수준의 공공복지지출 규모는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 금액 등 개인의 자원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정진경, 송정안, 2016).

객관적인 소득 및 지출 수준 뿐 아니라 돈과 부에 대한 태도 역시 국가별 기부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Wright(2001)는 미국은 기부가 국내총생산의 2%를 차지하지만, 영국의 자선기부가 GDP의 1%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를 돈과 부에 대한 태도에서 탐색하였다. 미국은 돈을 좋은 것, 성공과 성취의 척도로 판단하지만, 영국은 착취의 결과물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관대한 기부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종교의 유무, 종류, 가치도 지역별 기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개된다. Clerkin et al.(2013)은 종교에 참여할수록 총 자원봉사시간과 기부금이 증가하며,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종교의 유형도 중요한 영향요소이다. Bekkers & Veldhuizen(2008)은 종교에 따라 기부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Einolf(2017)는 서구국가에서는 개신교 비율과 종교적 다양성이 높은 자선 참여를 설명하지만, 비서구국가에서는 유대인 비율, 불교 비율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서구/비서구 국가에서 종교 유형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Wiepking & Handy(2015)와 Bekkers(2016)는 한 지역/국가의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 역시 기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이주민 비율도 기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소개된다. 지역사회에 오래 사는 사람과 자주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자선 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된다. 지역사회에 오래 사는 사람은 더 많은 소셜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자주 이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선택한다(Clerkin et al., 2013).

도시 혹은 농어촌 지역인지, 인구 밀집지역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도 영향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이현기(2012)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시간에 있어 읍/면이 동보다, 광역시가 도보다 자원봉사시간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기부 지속시간 영향요인을 탐구한 양성욱(2018)은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거주자나 도농복합군 거주자에 비해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이 짧다고 보고한다. Bekkers & Veldhuizen(2008)는 인구 밀집지역에서 헌혈 비율이 낮으며 계좌이체를 통한 기부 금액이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

상술한 요인들 이외에도 기부와 나눔의 지역비교 과정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모금 법인 또는 모금 재단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의 모금 법인 또는 재단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모금 활동을 수행하며 주민이 스스로가 모금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부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Graddy & Morgan, 2006). 이러한 측면에서 모금 법인 또는 재단과 같은 조직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나눔을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손선옥 외, 2018), 모금 전략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로 이해할 수 있다(고경환 외, 2015).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모금 법인이 수행하는 기부자 관리와 모금 촉진 활동 등은 지역 기부자의 기부에 대한 관심 확대를 통한 기부 활성화는 물론이고 잠재 기부자들의 기부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간 복지재원 획득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노연희, 2011). 실제로 기부 관련 교육, 기부 요청 등이 기부 동기를 강화하고 기부처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노연희, 2016).

따라서 기부와 나눔의 지역 비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존재하는 모금 법인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문화적 요인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부에 대한 인식이나 정치 문화에 대한 인식 등 문화적 요인도 언급된다. 기부에 대한 인식의 경우, 기부를 관대함의 표현이라고 보는지 이타주의의 발현이라고 보는지 여부와 관련된다(Wright, 2001). 자선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은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위해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되고 있다(Bekkers, 2016). 정치·문화 측면에서는 도덕적 정치문화가 높을수록 기부가 많아지며, 개인주의적 정치문화 높으면 기부가 적어진다고 본다(Bielefeld, Rooney, Steinberg, 2005). 또한 시민참여의 지표인 총선 투표율이 헌혈 및 자선 활동과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kkers & Veldhuizen, 2008).

5. 제도적 요인

기부 관련 세금 인센티브나 규제 등 제도적 요인은 국가 수준에서 기부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Global Philanthropy Index에서 측정하는 자선 변수에는 자선단체 운영의 용이성과 세금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Center for Asia Philanthropy and Society가 제공하는 Doing Good Index에도 ① 정부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비영리 단체 설립이나 인증이 얼마나 호의적인지, ② 기부를 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③ 공익 비영리단체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조달할 기회가 있는지 등을 중요한 기부 지표로 규정하고 있다.

Bekkers(2016)는 펀드레이징에 대한 규제 수준과 자선기관의 투명성 정도가 대중의 자선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 Bielefeld, Rooney, Steinberg(2005)는 세금 비율(tax rate)이 높을수록 기부를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세금 혜택과 기부의 연관성 사이에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함을 보고한다. Wright(2001)는 미국은 기부

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가 잘 구성되어 있으나 영국은 세금 리턴이 거의 없어 세금 전략으로 기부하는 경향이 없으므로 미국에 비해 국내총생산대비 기부금액이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 Einolf(2017)는 서구국가에서는 정부 효율성과 부패 통제가, 비서구국가에서는 정부효율성이 높은 자선 참여를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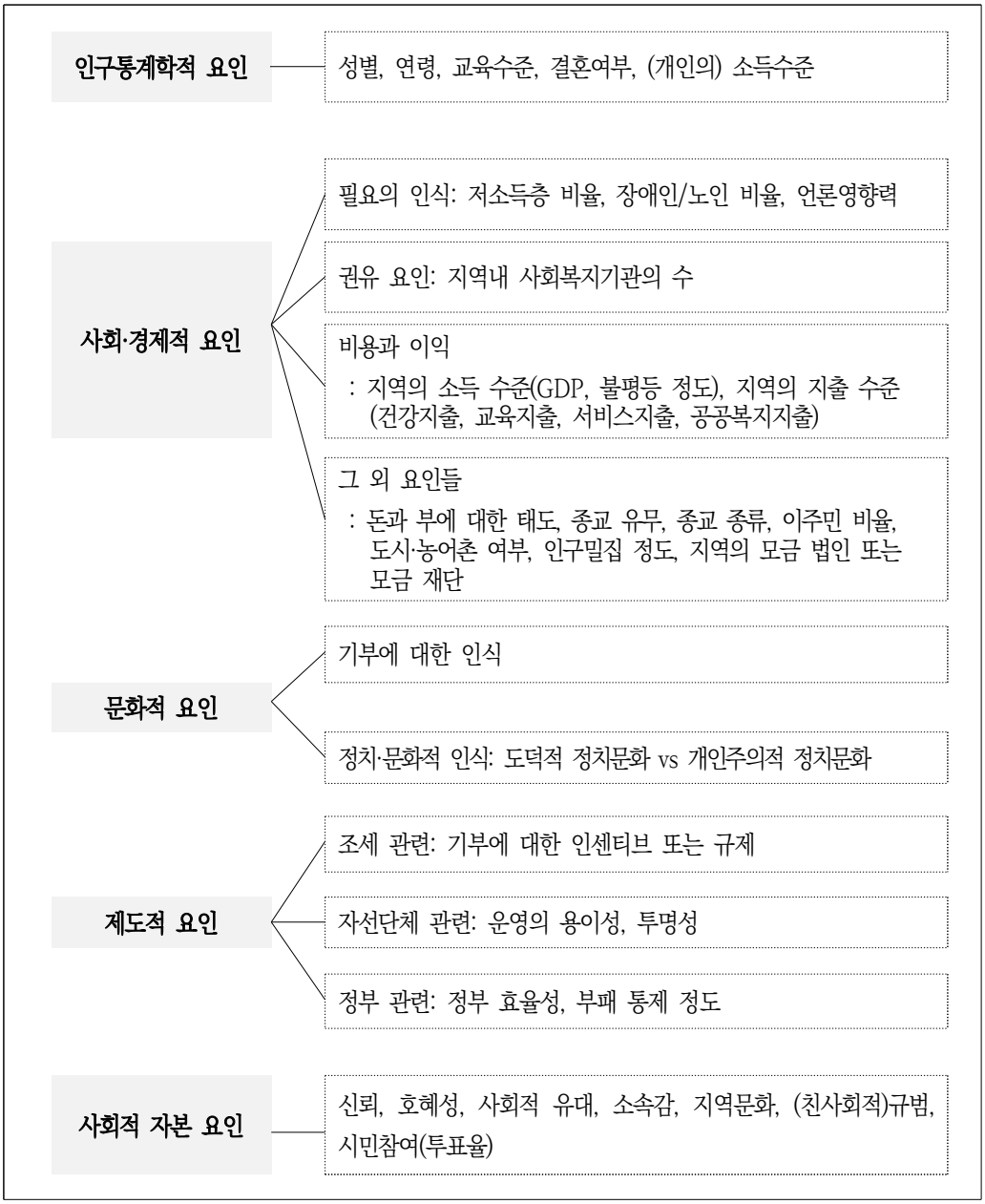
6. 사회적 자본 요인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의 호혜성, 신뢰, 규범을 근거로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박세경 외, 2009). Glanville, Paxton, Wang(2016)은 사회적 자본 요소를 지역 수준의 신뢰, 사회적 유대로 분류하여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역 수준의 신뢰는 자선단체에 대한 자원봉사와 기부에 정적 영향을 주며,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신뢰 및 사회적 유대의 조합)은 자원봉사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 다만, 사회적 자본이 비공식적 도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lerkin el al(2013)은 사회적 자본을 소속감, 사회적 연결, 지역문화로 분류하여 기부와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에서 더 오래 살아 더 많은 소셜 네트워크 가진 개인이 자선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는 자선활동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요청(ask)'임을 시사한다. 또한 자주 이사하는 사람들의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주 이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소속감은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낸 시간과 관계없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kkers & Veldhuizen(2008)은 사회적 자본을 친사회적 규범(친구/이웃을 돕는 비율, 자원봉사 의사 비율)과 시민참여(투표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 중 친사회적 규범은 기부와 정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으나, 시민 참여 지표인 투표율과 부분적으로 상관관계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과 복지자원의 연관성이 다수 보고되었다. World Value Survey 등의 2차 자료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

교연구를 수행한 박세경 외(2009)는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과 기부행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철희 외(2015)는 사회자본을 신뢰, 호혜성, 규범으로 분류하여 나눔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였는데, 규범은 기부 노력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호혜는 자원봉사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 신뢰는 기부노력과 자원봉사시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임선영과 민소영(2015)은 사회적 자본 척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기부금액과 기부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13]과 같다.



[그림 2-13] 지역별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장 분석 방법

제3장 분석 방법

제1절 개인기부 및 자원봉사

개인기부 및 자원봉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확률표본 추출된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도가 높고 결과의 일반화에 매우 용이하다. 또한 개인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문항과 주관적 인식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어 본 연구의 자료로 적합하다. 『사회조사』는 통계청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5년, 2017년, 2019년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개인기부

개인의 현금 및 물품기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2018.5.15.~2019.5.14.)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경험에 동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현금 및 물품기부 내용을 파악하였다. 기부내용은 크게 기부경로, 횟수, 금액, 주기 등으로 응답되었다. 현금 기부의 경로는 크게 6가지(대상자에게 직접 후원,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 직장을 통한 후원, 기타)로 나누어 질문하였고,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3-1> 사회조사 중 기부여부 및 기부금액 항목

질문항목	질문내용
기부여부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8.5.15.~2019.5.14)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현금만 기부 ② 물품만 기부 ③ 현금과 물품 모두 기부
기부내용	귀하가 지난 1년 동안(2018.5.15.~2019.5.14.) 기부하신 현금(후원금)을 기부 경로별로 총 '횟수'와 '금액', '기부 주기'를 써넣어 주십시오. 물품기부(음식, 옷, 장난감, 책 등)는 기부하신 총 '횟수'와 '기부 주기'를 써넣어 주십시오.

2. 자원봉사

개인 자원봉사의 경우 사회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2018.5.15.~ 2019.5.14.)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했는지, 참여 했다면 어떤 활동에 연간 몇 회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회당 평균 얼마의 시간을 참여했는지 여부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자원봉사 활동분야로는 총 6가지(①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②환경 보전, 범죄 예방 등과 관련, ③자녀교육 등과 관련, ④국가 및 지역 행사 등과 관련, ⑤재해 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과 관련, ⑥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가 제시되었고,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3-2> 사회조사 중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활동시간 항목

질문항목	질문내용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활동시간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8.5.15.~2019.5.14.)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활동 분야별 참여횟수 및 1회 평균 활동 시간, 활동 주기를 써넣어 주십시오.

제2절 헌혈 및 장기기증

1. 헌혈

헌혈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혈액사업통계연보』의 시·도별 헌혈 실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혈액사업통계연보』자료는 국내 헌혈 현황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지표 산출 자료로 적합하다. 다만 헌혈 통계를 산출할 때, 헌혈자의 소속 지역에 대한 모호함이 있을 수 있어 헌혈자의 거주 지역이 아닌 혈액이 모이는 장소 기준의 지역 구분만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계 집계 시 17개 시·도의 개별 건수를 제시하지 않고, 일부 지역의 경우, 통합된 통계치를 제시하기도 한다.[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 지역의 헌혈의 집을 기준으로 계수된 헌혈 건수의 비율을, 수치가 통합된 지역의 전체 헌혈 건수에 대입하여, 각 지역의 헌혈 건수를 산출하였다. 세종의 경우, 별도의 헌혈의 집이 부재하여 전국 평균치로 대체하였다. 지표는 위의 방법으로 산출한 지역별 헌혈 건수를 해당 연도 해당 지역 인구수[4]로 나누어 지역별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로 최종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2. 장기기증

장기기증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장기기증자 수는 분류별(장기/안구/골수 및 말초혈) 중복되는 각 년도 장기이식 건수, 안구이식 건수, 골수이식 건수, 말초혈이식 건수를 합하여 '장기등 이식건수'로 명명하였다. 또한, '장기등기증희망자'는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등), 안구(각막)를 기증희망 서약한 사람으로, 각 년도 통계연보에서 누계로 제공된 장기등기증희망자 수를 작성하였다.

---

3) 가령, 대구와 경북은 각 지역의 수치가 아닌 대구 경북을 합친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이 두 지역의 헌혈 건수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도 지역을 합산하여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4) 통계청(KOSIS)에서 제시한 주민등록인구를 참고하였다.

계산된 시·도별 장기등 이식건수를 해당 연도 해당 지역 인구수[5]로 나눈 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장기기증자 수로 환산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의 경우, 기증희망자를 제외한 자료는 의료기관의 지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제3절 나눔지수 도출

1. 분석 자료

나눔지수 도출을 위한 분석은 앞서 [그림 2-12]에서 살펴본 나눔지표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장 제1절과 제2절에 서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정리한 후(제4장), 나눔지수 도출 시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특히, 지난 연구와 연결되면서도 보다 간결하게 산출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값을 조작화 하였다.

첫째, 핵심지표에 해당하는 개인 현금기부와 개인 자원봉사의 경우, 인구 수 대비 기부자 수와 자원봉사자 수로 조작하였다. 이전 연구의 경우 기부 금액과 자원봉사 시간의 화폐환산 금액을 별도로 추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결하게 조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구 수 대비 기부자 수 및 자원봉사자 수로 조작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조작화를 통일하였다.

둘째, 확대지표에 해당하는 헌혈과 장기기증 또한 조작화를 통일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헌혈은 지역별 1,000명당 헌혈 건수, 장기기증은 100만명당 장기기증 횟수로 조작화하여 상이한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수 대비 헌혈 건수와 장기등 이식건수로 정의하여[6] 기초값

5) 통계청(KOSIS)에서 제시한 주민등록인구를 참고하였다.

6) 1,000명당 혹은 100만명당 기준의 차이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선행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으나, 다른 지표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차이가 있는 경우 원활한 해석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 때, 기준을 통일할 경우 소수점의 차이만 있을 뿐 표준화 값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작화 기준은 통일하고, 해석 시에만 100명당 혹은 100만

을 산출한 후 나눔지수 도출에 활용하였다.

각 지표에 해당하는 분석자료는 <표 3-3>과 같으며, 해당 지표별 기초값은 본 연구 보고서 제5장 제1절에 작성하였다.

<표 3-3> 지역별 나눔지표의 세부 분석자료

지표	항목	기초값 조작화	자료
핵심 지표	개인 현금기부	각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기부자 수	통계청 사회조사
	개인 자원봉사	각 지역별 인구 수 대비 자원봉사자 수	통계청 사회조사
확대 지표	헌혈	각 지역별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장기기증	각 지역별 인구 수 장기등 이식건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

* 2019년 조작화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2015, 2017년의 자료 역시 새로운 조작화에 준하여 재분석하였으며, 해당 수치를 추이 확인에 사용하였다.

가. 개인 현금기부

개인 현금기부의 기초값은 지역별 '기부 참여율'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기부 참여율'은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각 해당 연도의 국민 전체 인구 정보를 활용하여 전체 기부자 수를 추계하고 지역별 인구수 대비 기부자 수를 추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 총인구는 51,069천명이고, 이 중 남성은 25,609천명, 여성 25,461천명으로 분석되었다. 단, 2015년의 인구정보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하였고, 2010년 기준 총 인구 수는 48,580천명(남성 24,167천명, 여성 24,413천명)이었다.

명당 값을 함께 서술하였다.

나. 개인 자원봉사

개인 자원봉사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파악하였다. '자원봉사 참여율'도 인구주택총조사 각 해당 연도의 국민 전체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자원봉사 참여자 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 참여자 수를 산출하였다.

다. 헌혈

나눔지수 도출을 위해 헌혈 관련 현황 자료 중 '지역별 헌혈 건수'를 활용하였다. 지역별 헌혈 건수를 각 지역의 인구수로 나누어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를 산출하여 지수 도출 시 사용하였다. 이 때 지역별 헌혈 건수는 17개 시·도의 헌혈 건수를 의미하며(<표 4-52> 참조), 세종의 경우 헌혈 실적을 도출할 근거가 부족하여 값을 산출할 수 없었으므로, 표준화 시 세종은 전국값으로 대체하였다.

라. 장기기증

장기기증의 경우, 지역별 '장기등 이식 건수'를 각 지역의 인구수로 나누어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 건수'를 산출한 후 지수 도출 시 사용하였다. 장기등 이식 건수는 <표 4-57>을 활용하였다. 『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 자료의 경우, 이식기관 기준으로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어 장기등 이식 건수 값이 부재한 지역(세종, 경북)이 존재한다. 이에 표준화 시 세종과 경북은 전국값으로 갈음하였다.

2. 분석 방법

나눔지수 도출 분석을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나눔 실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2개(핵심지표, 확대지표)로 구성하였다. 핵심지표는 개인 현금기부와 개인 자원봉사로 이루어져있으며, 확대지표는 헌혈과 장기기증으로 구성되었다. 이 때, 나눔지수를 구성하는 각 항목들(현금기부,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표 3-3>에 제시된 조작화 방법을 바탕으로 4개 지표 항목의 지역별 기초값을 산출한다[7]. 둘째, 각 지표의 기초값들은 각기 단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지역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이 되도록 표준화 점수를 산출한다. 셋째, 각 지표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지수를 도출한다.

기초값 산출		표준화		지수도출 (가중치 반영)
(지역별 인구 수 대비) - 개인 기부자 수 - 개인 자원봉사자 수 - 헌혈 건수 - 장기등 이식건수	→	- 개인 현금기부 표준화 점수 - 개인 자원봉사 표준화 점수 - 헌혈 표준화 점수 - 장기기증 표준화 점수	→	- 핵심지수 - 확대지수 - 나눔지수

[그림 3-1] 나눔지수 도출 과정

가. 표준화 작업

각 지표의 기초값의 단위와 수준이 상이하므로 수치 간 비교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서는 기초값들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봉주 외(2020)에서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지수 도출 시 사용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각 지표의 기초값 별로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점수(s_{it}^{j})를 도출한 후, 이를 평균 100, 표

7) 지표별 기초값은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기부자 수', '인구 수 대비 자원봉사자 수',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 그리고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를 의미한다.

준편차 10인 표준화 점수로 재환산하여 최종 표준화 점수(z_{it}^{j})로 사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3-2]와 같다. 이 때, 각 지표별 전국 평균은 100이 되므로, 100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표준화 점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00보다 큰 표준화 점수를 가지는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가지며, 100보다 작은 경우는 해당 지표 항목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값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준화 방법은 각 지역의 전국 평균 대비 표준화 점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지표의 표준화 결과는 본 연구 보고서 제5장 제2절에 작성하였다.

$$s_{it}^{j} = \frac{X_{it}^{j} - \mu_{t}^{j}}{\sigma_{t}^{j}}$$

$$z_{it}^{j} = 10 \times s_{it}^{j} + 100$$

X_{it}^{j} 지역 i의 시점 t에서의 지표별 기초값

s_{it}^{j} 지역 i의 시점 t에서의 지표별 표준점수 $s \sim N(0,1)$

z_{it}^{j} 지역 i의 시점 t에서의 지표별 최종 표준화 점수 $z \sim N(100,100)$

j : 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지표 항목)

i :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역)

t : 2015, 2017, 2019 (연도)

[그림 3-2] 나눔지수 표준화 점수 설명

나. 나눔지수 계산

나눔지수는 핵심지수(핵심지표의 평균 표준화 점수)와 확대지수(확대지표의 평균 표준화 점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지난 나눔지수 도출 연구(김소영 외, 2018)보다 간결한 구성이다. 또한, 기부지수-확대기부지수-나눔지수[8] 순으로 지수를 확장하며

8) 기부지수: 개인 현금, 법인기부, 개인 자원봉사
확대기부지수: 기부지수 항목 + 개인 현물, 헌혈, 장기기증
나눔지수: 확대기부지수 항목 + 가구 상호부조, 사회적 관계망, 단체참여 지표

산출하였던 선행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핵심지수와 확대지수에 속하는 지표는 배타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핵심지수는 핵심지표 표준화 점수의 평균, 확대지수는 확대지표 표준화 점수의 평균을 의미한다[9].

최종 나눔지수 도출 시에는 지수 간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였는데, 김소영 외(201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지수에 속하는 2개 항목(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에는 각 1점의 가중치를, 확대지수에 속하는 2개 항목(헌혈, 장기기증)에는 각 0.5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최종 나눔지수 도출을 위한 수식은 다음 [그림 3-3]과 같다.

$$GI_{it} = \frac{\sum_{j=1}^{2} z_{it}^{j}}{2}$$ 지역 i의 시점 t에서의 핵심지수

$$CI_{it} = \frac{\sum_{j=3}^{4} z_{it}^{j}}{2}$$ 지역 i의 시점 t에서의 확대지수

$$EI_{it} = \frac{\sum_{j=1}^{4} w^{j} z_{it}^{j}}{3.5}$$ 지역 i의 시점 t에서의 나눔지수

$$w^{j} = 1 \text{ for } j = 1, 2$$
$$= 0.5 \text{ for } j = 3, 4$$

[그림 3-3] 나눔지수 도출식 - 가중치 반영

9) 핵심지수는 '(개인 현금기부 표준화 점수)+(개인 자원봉사 표준화 점수)/2'로, 확대지수는 '(헌혈 표준화 점수)+(장기기증 표준화 점수)/2'로 산출하였다.

제4절 지역별 나눔 요인 및 유형

1. 분석 자료

지역별 나눔 요인 및 유형의 분석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데이터, 국세청 법인 공시자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군구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원별 데이터 수집 내용과 기초 가공 과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데이터

본 연구는 지역 단위의 기부 수준을 계측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에는 기부건 별로 기부자 고유 ID, 기부액, 기부자 주소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부자 주소 정보에 대한 텍스트 가공 과정을 통해 시군구 단위로 거주 지역을 분류하였으며, 개인별로 연간 기부횟수와 총기부액을 구하였다. 이를 다시 시군구 단위로 취합하여 평균 기부액을 계산하였다. 아울러 지역별 기부자 수를 해당 연도의 해당 시군구 인구 자료와 결합하여 10만명 당 기부자 수로 기부율을 계산하였다.

나. 국세청 법인 공시자료

지역 내 기부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국세청 사이트(홈택스)[10]의 2019년 공익법인 공시 자료 가운데 사회복지법인과 지정기부법인 전수의 결산서류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서 818건의 결산 자료가 수집되었다. 각 결산자료에 대한 크롤링(crawling) 과정을 통해 법인명, 법인주소, 총 모금액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취합하였다. 주소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법인이 속한 시군구를 파악하였으며, 지역내 법인의 수와 총 모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0)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다. 통계청 제공 시군구 데이터

설명변수로 활용한 지역 삶의질(QOL), 출산율, 총인구수, 노령화 비율, 서비스업 비율, 1인당 지역총생산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투표율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를 활용했다. 지역 QOL의 경우 측정에 활용된 주요 하위 차원의 구성이 건강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다만, 건강 지표가 삶의 질과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점과 아울러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주관적 행복감과 같은 정서적 상태와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다루는 척도로 본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지역의 빈곤 수준과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의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비율로 측정된 국민기초보장 수급 비율의 경우 지역의 빈곤 수준을 엄밀하게 드러내는 지표로서 한계가 있다. 수급 자격의 취득과 실질적인 빈곤에서 일정한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빈곤선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조 수급 여부는 행정적으로 판단된 공식적 빈곤 상태로 보아도 무방하고, 현재 한국 공공부조의 수급 기준은 상대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빈곤율의 대체 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의 기준 연도와 변수에 대한 설명을 다음의 <표 3-4>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3-4> 통계청 제공 시군구 데이터 설명

변수명	기준연도	변수설명	자료원
투표율	(2008, 2012) 2016, 2020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수 대비 투표자수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QOL (지역삶의질)	2016-2019년	시군구 살의 질 지수. 건강관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기술체계를 시군구별로 종합한 지표	KOSIS (원데이터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출산율	2016-2019년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KOSIS (원데이터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총인구수	2016-2020년	연앙인구.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年央)개념으로 재작성한 것	KOSIS (원데이터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노령화 비율	2016-2020년	연앙인구 기준,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 인구의 비율	KOSIS (원데이터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서비스업 비율	2016-2017년	지역 내 제조업인구 대비 서비스업 인구 비율	국가통계포털 KOSIS (원데이터 : 전국사업체조사)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빈곤율)	2016-2020년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비율. 수급자 유형 중 일반수급만 포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1인당 지역총생산	(2015-)2016년	지역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GRPD). 지역내총생산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액을 의미	국가통계포털 KOSIS (원데이터 : 통계청 지역소득)

지역 비교 자료의 특성상 변수별로 생산되는 시기와 빈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투표율은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수 대비 투표자수 비율을 의미한다. 2016년과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지역 삶의 질 지수는 2016-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인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체계를 시군구 별로 제시한 지수이다.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제시된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2016-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인구수와 총인구수 대비 65세 인구 비율로 계측된 노령화 비율은 2016-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앙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지역 내 제조업인구 대비 서비스업 인구비를 의미하는 서비스업 비율은 2016-2017년 자료를 활용했다. 빈곤율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율은 수급자 유형 중 일반수급자만을 포함하였으며 2016-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1인당 지역총생산(GRPD)은 지역 인구 대비 지역내총생산으로 제시된다. 지역내총생산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액을 의미한다. 2015-2016년 자료만 공개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였다. 연도별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누락된 값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지역 비교 연구에서는 크게 유형화와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지역 비교 연구의 특성상 지역 속성 변인 간에는 높은 수준의 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징, 제도적 변인, 취합된(aggregated) 개인 변인 등 다양한 층위의 변수들이 결합되어 활용되기 때문에 분석에서 다루는 변인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적 성격을 다루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기존에 시도된 바가 많지 않은 기부 관련 지역 비교 연구의 경우 이런 복잡한 변인 간 구조를 다룰 수 있는 분석 모형 수립에 필요한 이론이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을 일종의 조합(configuration) 구조로 이해하는 유형화는 분석적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 기부 형태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탐색적 수준에서 기부와 관련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유형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지역 유형과 기부 촉진 조직의 역할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지역의 기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관찰할 것이다.

가. 유형화: Self-organizing Map(SOM, Kohonen Map)

유형화와 관련된 기법은 다양하게 있고, 자료 특성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honen Map이라고도 불리는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 SOM)를 활용하고자 한다. SOM은 고차원의 자료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유형화를 가능하게 하며, 무엇보다 유형화 결과를 2차원의 평면에서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서 각 유형의 내적 이상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는 이점 또한 있다. 일반적으로 유형화 분석에서 유형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는 지역 유형에 대한 엄밀한 유형화가 목적이 아니고 지역 특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회귀분석에서 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되도록 지역의 다양성을 다루되, 특정 유형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비율로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모형을 결정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유형을 10개로 나누었을 때, 비교적 고른 유형 분포를 보였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였다.

나. 회귀분석: Linear Mixed Effect Regression(LMER)

본 분석에서 도출한 지역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기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확증적 검토는 선형혼합효과회귀(linear mixed effect regression, LMER) 모형을 활용하여 관찰하고자 한다. 비교 연구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모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지역을 무작위효과로 각 영향요인을 고정효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LMER은 종단자료와 같은 내재된(nested) 형태의 자료 분석에 있어 결측치 등에 의한 패널 간 관측 길이가 다른 언밸런스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패널 자료는 결측치가 거의 없고 패널 간 관측 시기도 동일하게 구성된 장점이 있다. 그러나 LMER이 최근 종단 자료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도 이를 채택하였다.

제4장 지역별 나눔 현황

제4장 지역별 나눔 현황

제1절 개인 기부

1. 개인 현금기부 개요

가. 기부참여 및 평균 기부금액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개인의 기부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지난 1년(2018년 5월~2019년 5월)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9년 기준 25.1%이고, 기부한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개인 기부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5년 29.2%에서 2017년 25.5%, 2019년 25.1%로 하락 추세에 있다. 하락 폭은 2015년과 2017년 사이가 3.7%p로 더욱 컸으며, 2017년에 비해 2019년의 개인 기부 참여율은 약 0.4%p 하락하였다.

<표 4-1> 개인 기부참여 (2015-2019년)

구분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기부함	11,479	29.2	9,569	25.5	9,112	25.1
기부안함	27,803	70.8	27,914	74.5	27,198	74.9
총 계	**39,282**	**100.0**	**37,483**	**100.0**	**36,310**	**100.0**

『사회조사』를 통해 1인당 연평균 기부금액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기부에 참여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2019년 기준 평균 약 41만원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기부 참여율의 최근 변화 추이와는 반대로, 지난 5년간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평균 기부금액은 2015년 약 30만원에서 2017년 약 38만원, 2019년 약 41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한편, 기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고려한 1인당 연평균 기부금액은 2019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2015년(약 8만원)과 2017년(약 9만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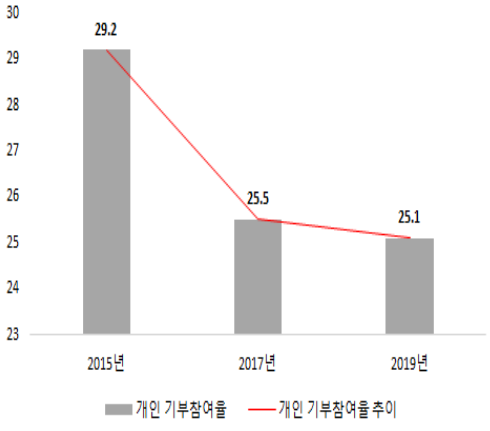
<표 4-2> 1인당 연평균 기부금액 (2015-2019년)

(단위: 원)

구분	2015년		2017년		2019년	
기부표본	300,918	(310,284)	381,037	(377,529)	413,978	(405,893)
총 표본	81,140	(85,046)	88,878	(91,738)	97,640	(97,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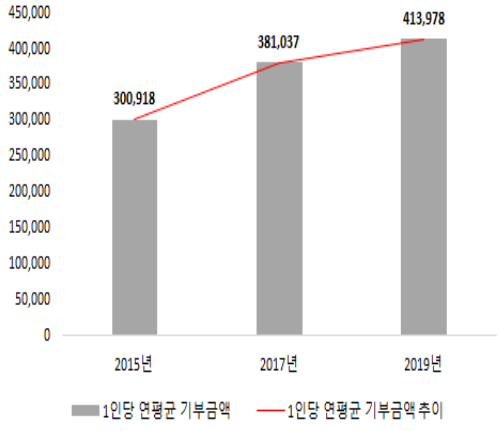
주: 평균 기부금액은 조사 표본을 통해 확인한 기부금액이며, 괄호의 숫자는 가중치 적용 금액임.

(단위: %)



[그림 4-1] 개인 기부참여율 (2015-2019년)

(단위: 원)



[그림 4-2] 1인당 연평균 기부금액 (2015-2019년)

나. 연령별 기부참여

연령에 따른 연평균 기부참여율과 평균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45~49세 연령대에 있는 집단의 평균 기부참여율이 36.9%로 가장 높았고 평균 기부금액은 60~64세 집단이 556,886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20~24세 집단의 기부참여율은 14.5%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 기부금액은 13~19세 집단이 77,131원으로 가장 낮았다. 13~19세 중고등학생의 기부참여율은 2015년 29.5%에서 2017년 19.4%로 하락하였고, 2019년에도 추가적으로 4%p가 하락하여 15.1%를 기록하였다. 2015년과 2017년을 비교하였을 때는 기부참여율이 20~24세 집단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하였으나,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20대 이하 집단을 제외하고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평균 기부금액도 두세 집단을 제외하면 2015년 대비 2017년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2019년에는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평균 기부금액의 상승폭은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졌다.

<표 4-3> 연령별 연평균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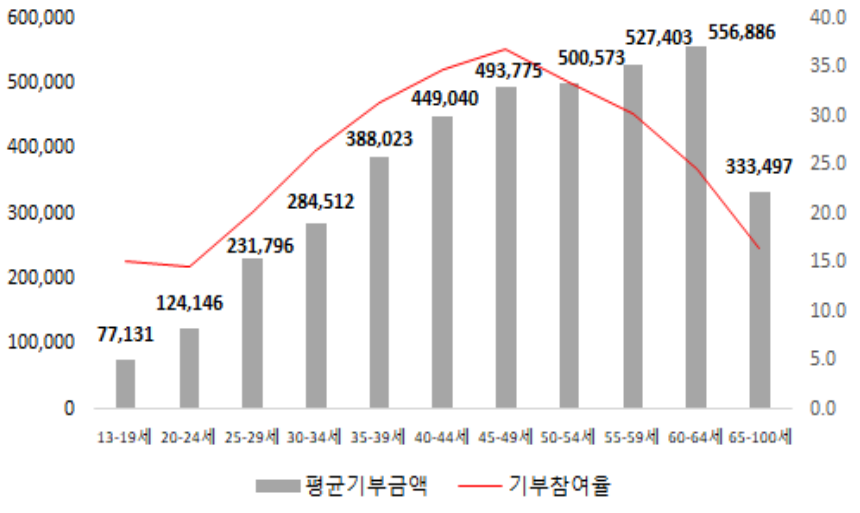
(단위: %, 원)

구 분		기부참여율	평균 기부금액
2015 사회조사	13~19세	29.5	38,652
	20~24세	15.1	120,640
	25~29세	23.1	244,478
	30~34세	27.9	291,306
	35~39세	29.9	313,744
	40~44세	35.0	346,501
	45~49세	35.1	357,409
	50~54세	33.9	378,133
	55~59세	31.2	411,367
	60~64세	26.8	385,488
	65~100세	16.2	275,914
2017 사회조사	13~19세	19.4	60,116
	20~24세	15.4	120,673
	25~29세	20.8	179,088
	30~34세	25.0	260,351
	35~39세	29.0	292,996
	40~44세	32.9	311,827
	45~49세	33.0	340,554

구 분		기부참여율	평균 기부금액
	50~54세	30.7	358,812
	55~59세	27.3	349,817
	60~64세	21.5	339,022
	65~100세	11.3	312,944
2019 사회조사	13~19세	15.1	77,131
	20~24세	14.5	124,146
	25~29세	20.3	231,796
	30~34세	26.4	284,512
	35~39세	31.3	388,023
	40~44세	34.7	449,040
	45~49세	36.9	493,775
	50~54세	33.4	500,573
	55~59세	30.3	527,403
	60~64세	24.6	556,886
	65~100세	16.4	333,497

주: 평균 기부금액인 실제 기부를 한 기부표본을 대상으로 산출한 기부금액임

(단위: 원, %)



[그림 4-3] 연령별 연평균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9년)

다. 성별 기부참여

성별 기부참여율과 평균 기부금액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기부참여율이 26.4%로 분석되며 남성(24.9%)에 비해 약 1.5%p 높았다. 평균기부액은 남성이 450,387원으로 여성(363,494원)에 비해 약 86,000원 높았다.

<표 4-4> 성별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9년)

(단위: %, %, 원, 원)

성별 집단	기부참여율	평균기부액(기부집단)	평균기부액(전체)
남(49.5)	24.9	450,387	106,529
여(50.5)	26.4	363,494	88,330

라. 소득수준별 기부참여

가구의 월평균 소득구간별[11] 기부참여율과 평균기부액을 살펴본 결과, 소득 하위 집단의 기부참여율은 21.1%, 소득 중위 집단 38.2%, 소득 상위 집단 54.2%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기부액은 소득 하위 집단이 341,978원, 소득 중위 집단이 491,383원, 소득 상위 집단이 644,944원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기부액도 증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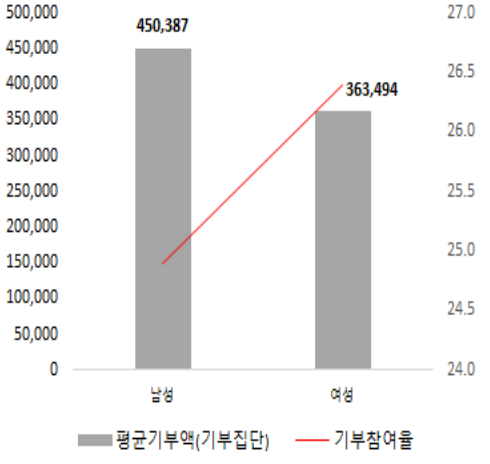
11) 가구소득은 가구주에게만 정보가 있었으나, 가구 ID를 기준으로 동일한 가구에 있는 가구원들에게 가구소득 정보를 입력하였고, 이를 균등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균등화 가구소득은 서로 다른 가구원 수를 가진 가구들의 후생수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소득을 의미한다. 월 가구소득이 300만원이라고 응답을 하였더라도 가구원수가 1인일 때와 4인일 때의 실제 생활수준의 차이는 동질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준화하는 방식은 OECD의 기준을 차용하여,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에 제곱근을 씌운 값으로 나누어주었다.

<표 4-5> 소득수준별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9년)

(단위: %, %, 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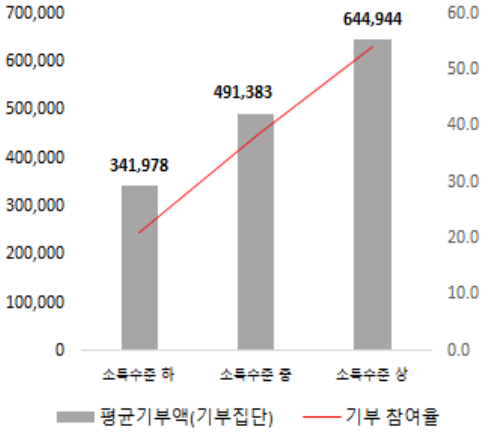
소득 집단	기부참여율	평균기부액(기부집단)	평균기부액(전체)
하(75.7)	21.1	341,978	66,959
중(22.1)	38.2	491,383	179,170
상(2.1)	54.2	644,944	327,971

(단위: 원, %)



[그림 4-4] 성별 평균 기부액 및 기부참여율 (2019년)

(단위: 원, %)



[그림 4-5] 소득수준별 평균기부액 및 기부참여율(2019년)

마. 가구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

월 가구소득 구간별 기부금 평균액수를 산출한 결과,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가구소득과 기부금액은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집단의 기부금 평균액수가 968,062원으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 집단의 기부금 평균이 268,865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소득집단을 300만원 및 500만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도 유사하였다.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의 기부금 평균은 644,944만원이었고,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의 기부금 평균은 341,978원이었다. 가구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월 가구소득의 구간 정보를 활용하여 중앙값을 산출하였다. 800만원 이상 집단의 중앙값은 850만원으로 간주하였다. 중앙값에 12를 곱하여 연 가구소득으로 변경하여 가구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을 살펴본 결과, 100만원 미만 집단의 소득대비 비율이 0.04%로 가장 높았고,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집단의 소득대비 기부금 비율이 0.00%로 가장 낮았다.

<표 4-6> 가구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 (2019년)

집단 구분	집단 (비율, %)	소득대비 비율(%)	
		전체집단	기부집단
월 가구 소득 구간	100만원 이하 (15.8)	268,865	0.045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2.0)	324,935	0.018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7.9)	373,823	0.012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4.6)	380,242	0.009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7.6)	658,620	0.012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0.8)	779,909	0.012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1)	533,895	0.007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0.1)	326,460	0.004
	800만원 이상 (0.2)	968,062	0.009
소득 3집단 구분	하 (75.7)	341,978	0.019
	중 (22.1)	491,383	0.010
	상 (2.1)	644,944	0.008

2. 지역별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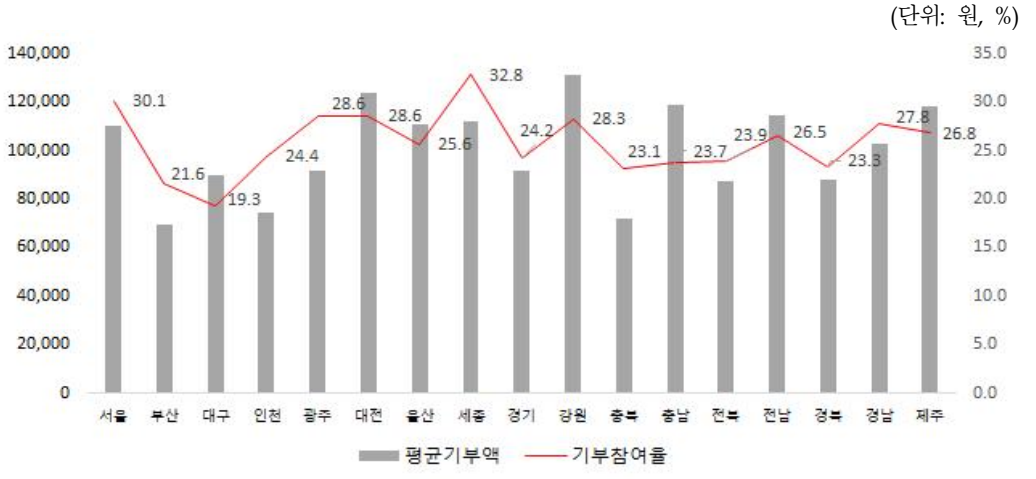
가. 지역별 기부참여 및 평균 기부금액

기부참여율과 평균기부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32.8%였으며, 다음으로는 서울 30.1%, 광주·대전이 28.6%, 강원 28.3%, 경남 27.8% 순으로 높았고, 대구는 19.3%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21.6%인 부산이었다.

<표 4-7> 행정구역별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9년)

(단위: %, 원, 원)

행정구역	기부참여율	평균기부액(기부집단)	평균기부액(전체)
서울	30.1	396,472	110,010
부산	21.6	337,364	69,429
대구	19.3	**494,379**	90,118
인천	24.4	328,122	74,633
광주	28.6	338,261	91,551
대전	28.6	451,340	123,465
울산	25.6	449,038	111,053
세종	**32.8**	368,764	111,787
경기	24.2	408,320	91,834
강원	28.3	479,749	**131,023**
충북	23.1	339,098	72,208
충남	23.7	522,277	118,890
전북	23.9	390,004	87,535
전남	26.5	455,646	114,768
경북	23.3	401,901	88,098
경남	27.8	395,290	102,559
제주	26.8	462,689	117,973



[그림 4-6] 행정구역별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9년)

나. 지역별 연령과 기부참여

지역별 기부 참여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 미만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23.6%였으며, 다음은 서울 19.8%, 충북 19.0%, 경남 18.7%, 세종 17.5%, 인천 17.0% 순으로 높았다. 20~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23.5%였으며, 다음은 세종 22.6%, 경남 19.4%, 대전 19.3%, 부산 18.8%, 제주 17.9%, 강원 17.5% 순으로 높았다. 30~3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40.4%였으며, 다음은 광주 35.2%, 서울 34.7%, 세종 33.4%, 경남 30.0%, 경북 28.9% 순으로 높았다. 40~4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46.6%였으며, 다음은 세종 45.6%, 강원 43.7%, 광주 40.8%, 서울 40.1%, 충남 38.9% 순으로 높았다. 50~5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43.9%였으며, 다음으로는 세종 41.5%, 강원 38.0%, 전남 37.9%, 광주 37.8%, 경남 37.6% 순으로 높았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25.1%였으며, 다음은 서울 23.0%, 광주 22.5%, 경남 22.1%, 전남 20.7%, 울산 20.5% 순으로 높았다.

<표 4-8> 연령별 행정구역별 기부참여율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19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서울	19.8	**23.5**	34.7	40.1	35.1	23.0
부산	16.1	18.8	22.1	27.1	29.6	15.6
대구	7.8	14.2	27.2	29.1	20.8	12.9
인천	17.0	13.5	23.3	36.0	30.8	19.4
광주	10.3	15.8	35.2	40.8	37.8	22.5
대전	14.6	19.3	28.0	**46.6**	36.4	20.3
울산	9.7	14.4	26.6	37.0	32.9	20.5
세종	17.5	22.6	33.4	45.6	41.5	**25.1**
경기	12.2	15.6	28.1	34.7	27.8	18.6
강원	11.0	17.5	**40.4**	43.7	38.0	18.1
충북	19.0	13.1	27.4	32.8	30.7	15.9
충남	14.6	16.9	25.5	38.9	31.1	14.2
전북	13.3	16.8	22.4	32.1	35.0	19.4
전남	16.6	15.7	28.3	35.5	37.9	20.7
경북	**23.6**	11.4	28.9	33.4	28.8	16.7
경남	18.7	19.4	30.0	33.2	37.6	22.1
제주	14.2	17.9	27.1	36.7	**43.9**	15.0

다. 지역별 성별과 기부참여

성별 기부참여율은 남자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32.0%였으며, 다음으로는 강원 31.8%, 전남 30.3%, 광주 29.4%, 대전 29.0%, 서울 27.9% 순으로 높았다. 여성의 경우도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33.5%였으며, 다음으로는 서울 32.1%, 제주 30.3%, 대전 28.2%, 광주·경남 27.8% 순으로 높았다.

<표 4-9> 성별 행정구역별 기부참여율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남	여
서울	27.9	32.1
부산	20.6	22.6
대구	18.6	19.9
인천	22.1	26.6
광주	29.4	27.8
대전	29.0	28.2
울산	25.1	26.2
세종	**32.0**	**33.5**
경기	22.5	25.9
강원	31.8	24.9
충북	25.2	20.9
충남	23.1	24.3
전북	23.6	24.3
전남	30.3	22.8
경북	24.7	21.8
경남	27.9	27.8
제주	23.4	30.3

라. 지역별 소득수준과 기부참여

소득수준별 기부참여율은 <표 4-10>과 같다. 소득 상위 집단의 경우 강원이 6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남 60.1%, 서울 56.3%, 대전 55.2%, 울산 54.8% 대전 55.2% 순으로 높았다. 소득 중위 집단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도 강원으로 45.6%였으며, 다음으로는 대전 40.4%, 경남 39.9%, 광주 38.8%, 전남 37.1%, 서울 36.2% 순으로 높았다. 소득 하위 집단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24.0%였으며, 다음으로는 광주 22.4%, 제주 22.1%, 전남 22.0%, 대전 21.2%, 울산 20.9% 순으로 높았다.

<표 4-10> 소득수준별 행정구역별 기부참여율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상	중	하
서울	56.3	36.2	20.7
부산	35.4	30.1	15.5
대구	43.4	28.3	12.5
인천	39.5	26.3	17.6
광주	53.8	38.8	22.4
대전	55.2	40.4	21.2
울산	54.8	33.8	20.9
세종	53.1	35.5	**24.0**
경기	42.2	30.2	17.8
강원	**64.3**	**45.6**	19.9
충북	44.0	32.8	19.1
충남	48.2	31.8	15.9
전북	52.9	35.4	17.7
전남	60.1	37.1	22.0
경북	52.5	30.5	15.3
경남	53.2	39.9	20.0
제주	49.2	30.0	22.1

마. 지역별 기부종류

지역별 기부 종류를 살펴보면, 현금만 기부하는 지역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88.8%였으며, 다음으로는 울산 87.6%, 부산 87.4%, 경북 87.2%, 대전 87.1%, 충남 86.4% 순으로 높았다. 물품만 기부하는 지역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7.9%였으며, 다음으로는 서울 7.8%, 세종 7.5%, 경기 7.1%, 인천·경남 6.7% 순으로 높았다. 현금과 물품 모두 기부하는 지역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2.8%였으며, 다음으로는 경기 12.1%, 전북 11.6%, 대구 11.2%, 광주·강원 10.8% 순으로 높았다.

<표 4-11> 행정구역별 기부종류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현금만	물품만	현금과 물품 모두
서울	79.4	7.8	**12.8**
부산	87.4	4.8	7.9
대구	83.4	5.3	11.2
인천	83.3	6.7	10.1
광주	83.8	5.4	10.8
대전	87.1	4.3	8.6
울산	87.6	3.5	8.9
세종	81.8	7.5	10.7
경기	80.7	7.1	12.1
강원	85.6	3.6	10.8
충북	84.2	**7.9**	7.9
충남	86.4	3.9	9.7
전북	82.1	6.2	11.6
전남	86.1	5.0	8.9
경북	87.2	5.7	7.1
경남	83.1	6.7	10.2
제주	**88.8**	5.0	6.2

바. 지역별 기부내용

지역별 현금기부 횟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연간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8.8회였으며, 다음으로는 전남 8.16회, 제주 8.1회, 울산 7.94회, 충남 7.91회 인천 7.53회 순으로 높았다. 평균 기부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719,920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 578,659원, 서울 405,973원, 충남 403,276원, 경기 356,838원, 전남 348,127원 순으로 높았다.

<표 4-12>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직접) 횟수 및 금액 (2019년)

(단위: 회, 원)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기부금액 (평균)
서울	6.89	405,973
부산	6.11	267,456
대구	**8.80**	166,169
인천	7.53	196,538
광주	7.44	218,799
대전	7.17	286,427
울산	7.94	220,267
세종	6.44	278,038
경기	6.56	356,838
강원	6.76	578,659
충북	7.49	330,433
충남	7.91	403,276
전북	5.85	296,275
전남	8.16	348,127
경북	5.66	238,619
경남	7.25	266,297
제주	8.10	**719,920**
전체	6.96	339,560

1) 현금: 직접기부

지역별 직접 현금기부 참여율의 경우, 주기가 월단위로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57.3%), 분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9.0%), 반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15.5%),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60.6%)으로 분석되었다. '월, 분기, 반기, 비주기적'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기로 직접 현금기부를 한 경우도 전체의 1.3%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기타' 주기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3.3%였다. 참고로, 다음의 <표 4-13>을 포함하여 이후에 제시된 표에서 공통적으로 표시된 공란(-)은 해당 셀의 응답율이 0%임을 의미한다.

<표 4-13>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직접) 주기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월단위	분기	반기	기타	비주기적
서울	40.9	4.1	12.8	1.3	40.9
부산	34.3	-	8.6	-	57.1
대구	48.5	2.4	8.6	**3.3**	37.2
인천	47.0	1.7	6.2	1.4	43.7
광주	45.6	**9.0**	13.3	-	32.1
대전	39.8	1.8	**15.5**	1.4	41.4
울산	**57.3**	1.2	7.5	-	34.0
세종	35.9	-	6.8	1.6	55.7
경기	38.2	0.6	6.1	1.6	53.4
강원	30.7	2.7	6.0	-	**60.6**
충북	51.6	1.9	7.1	1.7	37.7
충남	46.9	4.9	8.3	3.1	36.8
전북	28.5	8.1	10.0	1.2	52.2
전남	48.4	5.0	9.9	2.6	33.9
경북	30.4	1.1	10.6	1.0	56.8
경남	43.2	2.9	6.6	0.7	46.6
제주	51.2	-	3.7	-	45.1
전체	40.8	2.7	9.0	1.3	46.1

2) 현금: 언론기관

지역별 언론기관을 통한 현금기부 횟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평균 연간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10.31회였으며, 다음으로는 부산 8.44회, 전북 7.56회, 강원 6.73회, 대구 5.96회, 서울 5.56회 순으로 높았다. 평균 기부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213,370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전 209,921원, 충북 168,958원, 강원 139,404원, 서울 138,774원, 전북 129,932원 순으로 높았다.

<표 4-14>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언론기관) 횟수 및 금액 (2019년)

(단위: 회, 원)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기부금액 (평균)
서울	5.56	138,774
부산	8.44	119,589
대구	5.96	68,123
인천	5.48	113,251
광주	5.42	**213,370**
대전	**10.31**	209,921
울산	4.41	90,786
세종	3.10	95,363
경기	5.32	106,525
강원	6.73	139,404
충북	4.57	168,958
충남	4.98	94,777
전북	7.56	129,932
전남	2.76	94,961
경북	4.33	87,246
경남	5.00	88,275
제주	5.07	118,591
전체	5.55	120,120

지역별 언론기관을 통한 현금기부 참여율의 경우, 주기가 월단위로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82.2%, 분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10.5%, 반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15.45%,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 88.8%였다.

<표 4-15>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언론기관) 주기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월단위	분기	반기	기타	비주기적
서울	31.0	2.3	13.0	-	53.7
부산	48.1	-	-	-	51.9
대구	39.0	-	5.3	-	55.7
인천	33.7	-	6.9	-	59.4
광주	32.1	2.8	11.2	-	53.8
대전	**82.2**	-	5.5	-	12.3
울산	22.9	5.4	-	-	71.8
세종	11.2	-	-	-	**88.8**
경기	27.2	-	5.8	-	67.0
강원	32.5	-	**15.4**	-	52.1
충북	21.5	-	6.9	-	71.7
충남	29.4	2.1	-	-	68.5
전북	53.0	**10.5**	-	-	36.6
전남	14.4	-	3.6	-	82.0
경북	19.2	1.8	-	3.3	75.7
경남	24.5	-	-	3.5	72.0
제주	31.1	-	5.4	-	63.5
전체	31.0	1.2	6.4	0.4	61.0

3) 현금: 모금단체

지역별 모금단체를 통한 현금기부 횟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평균 연간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9.7회였으며, 다음으로는 대구 8.91회, 울산 8.88회, 부산 8.7회, 경기 8.56회, 인천 8.54회 순으로 높았다. 평균 기부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318,327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구 275,723원, 전북 269,589원, 제주 259,594원, 세종 258,994원, 경기 258,493원 순으로 높았다.

<표 4-16> 행정구역별 현금기부(모금단체) 횟수 및 금액 (2019년)

(단위: 회, 원)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기부금액 (평균)
서울	7.70	229,556
부산	8.70	215,246
대구	8.91	275,723
인천	8.54	193,791
광주	6.79	145,108
대전	7.74	238,004
울산	8.88	231,730
세종	8.48	258,994
경기	8.56	258,493
강원	7.61	223,839
충북	7.10	179,648
충남	8.14	**318,327**
전북	8.30	269,589
전남	6.80	191,314
경북	7.53	223,189
경남	7.31	210,907
제주	**9.70**	259,594
전체	8.03	232,849

지역별 모금단체를 통한 현금기부 참여율의 경우, 주기가 월단위로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66.6%였으며, 분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4.0%, 반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11.2%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48.4%였다.

<표 4-17> 행정구역별 현금기부(모금단체) 주기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월단위	분기	반기	기타	비주기적
서울	54.1	3.4	7.3	0.6	34.7
부산	62.8	-	1.9	-	35.4
대구	62.0	1.3	2.3	0.6	33.9
인천	58.2	1.7	3.1	1.7	35.3
광주	46.0	3.0	7.6	-	43.3
대전	55.1	1.5	**11.2**	1.0	31.1
울산	63.5	1.1	5.4	-	30.1
세종	54.9	0.8	1.4	-	42.9
경기	58.4	1.2	4.3	0.7	35.4
강원	49.4	0.9	3.0	-	46.7
충북	47.1	1.9	2.1	0.5	**48.4**
충남	55.0	2.9	4.7	0.4	37.0
전북	57.7	**4.0**	4.7	0.5	33.1
전남	46.1	3.2	4.0	0.4	46.3
경북	46.7	2.5	3.9	1.3	45.6
경남	49.0	1.8	3.3	0.5	45.4
제주	**66.6**	0.4	3.7	1.5	27.8
전체	55.1	2.0	4.8	0.6	37.5

4) 현금: 종교단체

지역별 종교단체를 통한 현금기부 횟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평균 연간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으로 8.88회였으며, 다음으로는 경기 84.6회, 전남 8.26회, 광주 8.23회, 충남 7.92회, 대전 7.85회 순으로 높았다. 평균 기부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859,567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울산 767,889원, 강원 743,693원, 충남 716,399원, 대전 711,217원, 대구 708,205원 순으로 높았다.

<표 4-18>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종교단체) 횟수 및 금액 (2019년)

(단위: 회, 원)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기부금액 (평균)
서울	6.92	578,963
부산	7.47	613,090
대구	6.84	708,205
인천	7.17	352,886
광주	8.23	554,106
대전	7.85	711,217
울산	7.26	767,889
세종	7.56	505,794
경기	8.46	618,864
강원	**8.88**	743,693
충북	7.16	403,184
충남	7.92	716,399
전북	7.69	505,283
전남	8.26	**859,567**
경북	6.69	671,227
경남	7.17	606,783
제주	7.67	552,503
전체	7.63	615,991

지역별 종교단체를 통한 현금기부 참여율의 경우, 주기가 월단위로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49.2%였으며, 분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18.7%, 반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14.6%,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60.9%였다.

<표 4-19>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종교단체) 주기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월단위	분기	반기	기타	비주기적
서울	34.4	12.9	13.4	0.8	38.4
부산	44.7	3.2	12.1	-	40.1
대구	37.6	2.1	1.5	-	58.7
인천	31.4	3.0	4.6	-	**60.9**
광주	47.1	13.5	**14.6**	-	24.8
대전	**49.2**	8.7	7.4	1.5	33.2
울산	37.4	4.2	8.0	1.1	49.4
세종	37.2	1.8	6.0	-	55.0
경기	46.0	4.4	4.9	1.3	43.4
강원	42.9	4.8	2.5	-	49.8
충북	41.4	**18.7**	10.9	-	29.1
충남	43.6	6.3	8.2	0.7	41.2
전북	41.7	4.1	7.7	-	46.5
전남	40.5	4.1	12.3	1.5	41.5
경북	38.6	8.2	7.8	1.5	43.9
경남	37.8	5.4	8.2	-	48.6
제주	43.2	5.3	3.4	-	48.1
전체	40.7	7.1	8.4	0.7	43.1

5) 현금: 직장

지역별 직장을 통한 현금기부 횟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평균 연간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충남으로 7.88회였으며, 다음으로는 울산 7.74회, 경북 7.59회, 경남 7.46회, 전북 7.29회, 경기 7.16회 순으로 높았다. 평균 기부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608,784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구 570,791원, 충북 362,616원, 충남 327,003원, 광주 294,653원, 세종 211,915원 순으로 높았다.

<표 4-20>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직장) 횟수 및 금액 (2019년)

(단위: 회, 원)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기부금액 (평균)
서울	**7.88**	195,238
부산	4.12	162,917
대구	6.28	570,791
인천	6.58	**608,784**
광주	4.77	294,653
대전	6.62	124,611
울산	7.74	192,227
세종	6.22	211,915
경기	7.16	186,841
강원	6.19	205,331
충북	6.67	362,616
충남	**7.88**	327,003
전북	7.29	201,003
전남	5.24	207,507
경북	7.59	177,696
경남	7.46	164,528
제주	4.80	133,707
전체	6.93	238,640

지역별 직장을 통한 현금기부 참여율의 경우, 주기가 월단위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55.4%였으며, 분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13.0%, 반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21.1%,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64.1%였다.

<표 4-21> 행정구역별 현금기부(직장) 주기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월단위	분기	반기	기타	비주기적
서울	**55.4**	5.1	12.2	-	27.3
부산	25.8	1.5	8.6	-	**64.1**
대구	35.1	6.3	13.0	-	45.6
인천	45.4	5.5	6.9	-	42.2
광주	27.6	3.5	**21.1**	-	47.9
대전	44.1	2.8	15.2	-	37.9
울산	53.5	**13.0**	8.6	-	24.9
세종	37.2	0.8	13.3	-	48.8
경기	42.4	1.9	9.3	2.5	44.0
강원	39.8	1.6	5.0	-	53.6
충북	43.9	4.0	17.3	-	34.8
충남	54.7	3.0	5.7	2.6	34.0
전북	49.5	1.2	8.0	-	41.3
전남	29.7	8.6	20.7	-	41.0
경북	53.2	3.2	7.6	-	36.0
경남	51.5	4.6	0.8	0.8	42.3
제주	30.3	-	14.7	-	55.0
전체	45.4	3.8	10.1	0.7	39.9

6) 현금: 기타

지역별 기타 경로를 통한 현금기부 횟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평균 연간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로 9.77회였으며, 다음으로는 충북 7.61회, 부산 6.0회, 강원 4.95회, 울산 4.9회, 경남 4.5회 순으로 높았다. 평균 기부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931,219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경기 882,360원, 전남 516,385원, 충북 490,632원, 경남 343,374원, 강원 238,138원 순으로 높았다.

<표 4-22> 행정구역별 현금기부(기타) 횟수 및 금액 (2019년)

(단위: 회, 원)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기부금액 (평균)
서울	1.77	19,871
부산	6.00	**931,219**
대구	**9.97**	210,016
인천	2.00	28,906
광주	1.64	6,768
대전	1.81	20,442
울산	4.90	174,920
세종	4.09	217,881
경기	3.74	882,360
강원	4.95	238,138
충북	7.61	490,632
충남	2.88	237,118
전북	1.72	210,053
전남	3.74	516,385
경북	2.15	104,313
경남	4.50	343,374

지역별 기타 경로를 통한 현금기부 참여율의 경우, 주기가 월단위로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78.5%였으며, 분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9.6%, 반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100%,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광주·대전 100%였다.

<표 4-23> 행정구역별 현금기부(기타) 주기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월단위	분기	반기	기타	비주기적
서울	-	-	-	-	**100.0**
부산	19.6	**9.6**	10.2	-	60.6
대구	**78.5**	-	-	-	21.5
인천	-	-	**100.0**	-	-
광주	-	-	-	-	**100.0**
대전	-	-	-	-	**100.0**
울산	4.1	6.3	10.6	-	78.9
세종	25.8	-	-	-	74.2
경기	11.0	-	-	-	89.0
강원	34.2	-	19.2	-	46.6
충북	26.7	-	36.5	-	36.8
충남	9.7	-	-	-	90.3
전북	-	-	19.5	-	80.5
전남	13.1	-	-	13.4	73.5
경북	-	-	16.3	-	83.7
경남	14.4	3.2	10.8	1.0	70.6

7) 물품

지역별 평균 물품기부 횟수의 경우,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으로 4.65회였으며, 다음으로 강원 4.63회, 전남 4.12회, 충남 3.23회, 경기 3.14회, 전북 2.99회 순으로 높았다.

<표 4-24> 행정구역별 물품기부 횟수 (2019년)

(단위: 회)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서울	2.45
부산	2.67
대구	2.69
인천	2.50
광주	2.97
대전	4.65
울산	2.24
세종	2.73
경기	3.14
강원	4.63
충북	2.65
충남	3.23
전북	2.99
전남	4.12
경북	2.26
경남	2.33
제주	3.02
전체	2.87

지역별 물품기부 주기를 살펴보면, 주기가 월단위로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6.7%였으며, 분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12.4%, 반기로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21.4%,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91.4%였다.

<표 4-25> 행정구역별 물품기부 주기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월단위	분기	반기	기타	비주기적
서울	4.1	5.9	17.5	1.6	71.0
부산	**6.7**	1.2	6.2	-	85.9
대구	1.6	12.2	12.2	-	74.0
인천	2.2	6.8	13.6	2.9	74.5
광주	6.6	9.5	19.7	-	64.2
대전	5.4	3.0	**21.4**	-	70.1
울산	1.4	6.4	2.4	-	89.8
세종	2.6	2.2	8.2	2.0	85.0
경기	2.0	2.8	9.8	0.7	84.6
강원	6.1	1.7	7.9	0.8	83.6
충북	2.0	3.5	9.0	-	85.6
충남	5.3	6.5	7.4	3.7	77.0
전북	1.8	9.4	15.1	-	73.7
전남	5.7	**12.4**	6.6	1.1	74.2
경북	2.1	1.3	11.6	1.4	83.6
경남	2.4	4.1	13.0	-	80.5
제주	1.8	-	6.7	-	**91.4**
전체	3.3	5.0	12.6	1.0	78.1

사. 지역별 기부희망분야

지역별 기부희망분야 1순위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67.3%였으며, 다음으로는 충남 65.4%. 경기 63.1%, 강원 62.9%, 광주 62.3%, 대전 61.2% 순으로 높았다. 의료 분야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14.4%였으며, 울산 13.8%, 광주 12.7%, 경기 12.6%, 대구 12.4%, 전북 12.2% 순으로 높았다. 해외 구호 분야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15.6%였으며, 다음으로는 세종 13.7%, 경북·대전 12.5%, 전남 11.9% 순으로 높았다. 지역사회발전(지역 도서관 건립 등) 분야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10.9%였으며, 다음으로는 전남 9.8%, 경남 8.1%, 강원 7.4%, 충남 6.7%, 대구 6.6% 순으로 높았다. 공익 활동(환경 운동 등) 분야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7.1%였으며, 다음으로는 전북 7.0%, 울산 6.3%, 서울 6.0%,

대구 5.8%, 충북 5.7% 순으로 높았다. 교육 및 연구 활동(학교 등) 분야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7.0%였으며, 다음으로는 세종 6.0%, 충남 5.6%, 경기 5.5%, 대전 5.1%, 전북 5.0% 순으로 높았다. 문화 및 예술 분야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과 전남으로 1.5%였으며, 다음으로는 경남 1.2%, 대구 1.1%, 강원·인천 0.9%, 세종 0.8% 순으로 높았다. 위의 응답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분야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로 2.1%였다.

<표 4-26> 행정구역별 기부희망분야 1순위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사회복지	의료	해외 구호	지역사회	공익 활동	교육 및 연구	문화 및 예술	기타
서울	60.5	11.8	11.6	5.1	6.0	4.1	0.8	0.1
부산	55.8	**14.4**	**15.6**	5.8	3.6	4.2	0.6	0.2
대구	58.0	12.4	10.2	6.6	5.8	3.7	1.1	**2.1**
인천	**67.3**	10.7	9.3	4.3	3.7	3.6	0.9	0.3
광주	62.3	12.7	11.5	4.8	3.7	4.4	0.6	-
대전	61.2	11.1	12.5	5.0	4.7	5.1	0.2	0.2
울산	59.0	13.8	11.2	5.0	6.3	3.6	0.5	0.6
세종	59.5	11.8	13.7	3.4	4.8	6.0	0.8	-
경기	63.1	12.6	10.3	4.1	3.5	5.5	0.7	0.2
강원	62.9	12.0	8.4	7.4	3.9	4.5	0.9	-
충북	58.2	11.6	11.1	5.0	5.7	**7.0**	**1.5**	-
충남	65.4	9.9	8.7	6.7	3.3	5.6	0.4	-
전북	61.0	12.2	8.7	5.5	7.0	5.0	0.7	-
전남	56.1	8.7	11.9	9.8	**7.1**	4.9	**1.5**	-
경북	57.3	11.4	12.5	**10.9**	3.4	3.7	0.5	0.4
경남	58.3	11.3	11.4	8.1	4.6	5.0	1.2	0.1
제주	59.6	12.1	9.9	7.7	4.8	4.9	0.9	0.3
전체	60.9	11.9	11.1	5.7	4.7	4.7	0.8	0.2

아. 지역별 기부문화 확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확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49.2%였으며, 다음으로는 부산 46.7%, 서울 45.0%, 제주 44.8%, 인천 44.2%, 경기 43.9% 순으로 높았다. '나눔교육, 대중캠페인 등을 통한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16.8%였으며, 다음으로는 전남 16.6%, 대구 16.5%, 전북 16.0%, 경북·충북 15.6% 순으로 높았다. '기부 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강화'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33.8%였으며, 다음으로는 광주 32.7%, 충북 32.1%, 경기 31.7%, 울산 31.2%, 대구 30.5% 순으로 높았다.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지원 강화'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10.7%였으며, 다음으로는 제주 8.6%, 서울 7.5%, 경북·대전 7.3%, 충남 7.2% 순으로 높았다. '기부 방법의 편리성 증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5.9%였으며, 다음으로는 대구 5.5%, 인천 4.6% 전북 4.5%, 세종 3.9%, 경남 3.6% 순으로 높았다. '경조금 기부, 유산기부 등 다양한 기부 방법 홍보'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2.6%였으며, 인천 2.4%, 강원 2.3%, 대구·대전 2.2%, 세종 2.1% 순으로 높았다. 위의 응답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0.6%였다.

<표 4-27> 행정구역별 기부문화확산 1순위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확대	나눔 교육, 대중 캠페인 등을 통한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	기부 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 강화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기부 방법의 편리성 증대	경조금 기부, 유산 기부 등 다양한 기부 방법 홍보	기타
서울	45.0	11.6	30.5	7.5	3.5	1.5	0.4
부산	46.7	**16.8**	25.8	5.8	3.4	1.5	-
대구	40.0	16.5	30.5	5.2	5.5	2.2	0.1
인천	44.2	11.8	30.2	6.6	4.6	2.4	0.2
광주	43.3	13.1	32.7	6.0	3.5	1.4	-
대전	43.7	14.8	28.6	7.3	3.3	2.2	-
울산	39.4	14.7	31.2	**10.7**	2.7	1.3	-
세종	43.4	10.1	**33.8**	6.4	3.9	2.1	0.2
경기	43.9	14.3	31.7	5.5	2.4	1.7	0.5
강원	**49.2**	12.8	26.7	6.3	2.2	2.3	0.5
충북	41.2	15.6	32.1	6.4	2.6	1.8	0.3
충남	43.7	12.8	29.7	7.2	3.4	**2.6**	**0.6**
전북	43.3	16.0	28.2	6.2	4.5	1.5	0.1
전남	43.8	16.6	27.9	6.2	3.5	1.8	0.1
경북	41.9	15.6	29.2	7.3	3.5	2.1	0.4
경남	43.8	13.2	30.2	6.9	3.6	1.2	1.1
제주	44.8	13.5	25.6	8.6	**5.9**	1.0	0.4
전체	43.9	13.9	30.1	6.6	3.4	1.7	0.4

자. 지역별 향후 기부 의사

향후 기부 의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49.7%였으며, 다음으로는 서울 46.2%, 대전 43.0%, 광주 42.2%, 강원 41.9%, 경기 41.5% 순으로 높았다.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71.0%였으며, 다음으로는 부산 68.0%, 경북 66.4%, 충북 66.3%, 충남 63.8%, 경남 61.6% 순으로 높았다.

<표 4-28> 행정구역별 향후 기부 의사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있다	없다
서울	46.2	53.8
부산	32.0	68.0
대구	29.0	**71.0**
인천	40.6	59.4
광주	42.2	57.8
대전	43.0	57.0
울산	38.6	61.4
세종	**49.7**	50.3
경기	41.5	58.5
강원	41.9	58.1
충북	33.7	66.3
충남	36.2	63.8
전북	38.7	61.3
전남	39.7	60.3
경북	33.6	66.4
경남	38.4	61.6
제주	38.6	61.4
전체	39.9	60.1

차. 지역별 유산 기부 의사

유산 기부 의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33.9%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 30.0%, 경기 29.5%, 대전 28.9%, 인천 27.3%, 경남 26.3% 순으로 높았다.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79.3%였으며, 경북 78.4%, 부산 78.3%, 충남 78.2%, 울산 78.0%, 충북 77.0% 순으로 높았다.

<표 4-29> 행정구역별 유산 기부 의사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있다	없다
서울	30.0	70.0
부산	21.7	78.3
대구	20.2	**79.8**
인천	27.3	72.7
광주	27.3	72.7
대전	28.9	71.1
울산	22.0	78.0
세종	**33.9**	66.1
경기	29.5	70.5
강원	24.5	75.5
충북	23.0	77.0
충남	21.8	78.2
전북	25.4	74.6
전남	25.5	74.5
경북	21.6	78.4
경남	26.3	73.7
제주	26.2	73.8
전체	26.7	73.3

제2절 개인 자원봉사

1. 개인 자원봉사 개요

가. 개인 자원봉사 참여 여부 및 자원봉사 시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15년 18.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17.9%, 2019년에는 16.2%로 낮아졌다.

<표 4-30> 개인 자원봉사 참여 여부 (2015-2019년)

구분	2015		2017		2019	
	빈 도	%	빈 도	%	빈 도	%
참여	7,299	18.5	6,727	17.9	5,884	16.2
미참여	31,983	81.4	30,756	82.1	30,426	83.8
총 계	**39,282**	**100.0**	**37,483**	**100.0**	**36,310**	**100.0**

평균 자원봉사 참여시간은 2015년 24.61시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25.68시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24.2시간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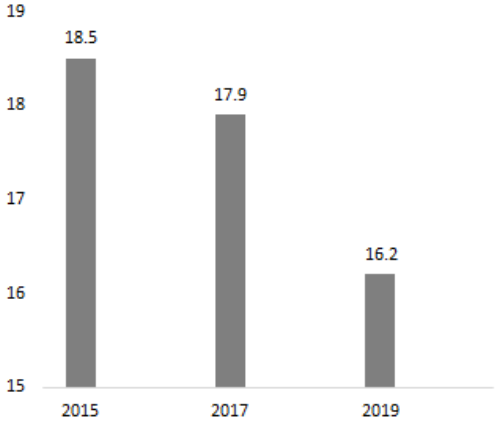
<표 4-31> 평균 자원봉사 참여시간 (2015-2019년)

(단위: 시간)

구분	2015	2017	2019
자원봉사 표본	24.61 (38.88)	25.68 (25.16)	24.20 (23.13)
총 표본	4.57 (19.30)	4.61 (4.58)	3.92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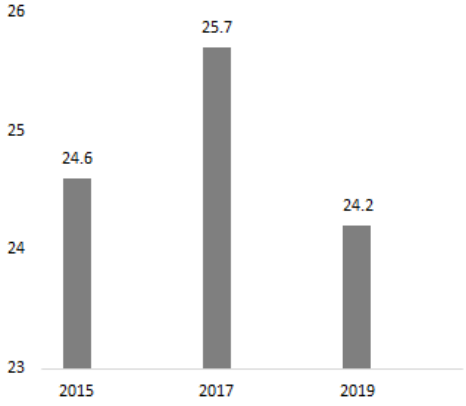
주: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조사 표본을 통해 확인한 시간이며, 괄호의 숫자는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의 자원봉사 시간임.

(단위: %)



[그림 4-7] 개인 자원봉사 참여 여부 (2015-2019년)

(단위: 시간)



[그림 4-8] 평균 자원봉사 참여시간 (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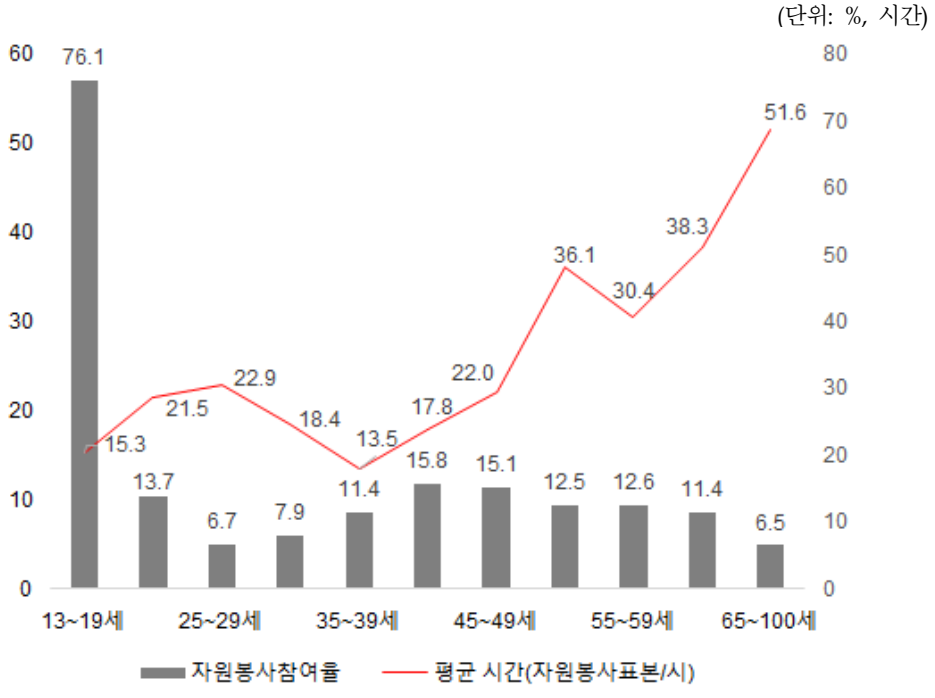
나.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

연령별 2017년 자원봉사 참여율 및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13~19세의 참여율이 76.1%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44세 15.8%, 45~49세 15.1%, 20~24세 13.7%의 순이었다. 평균 시간은 65~100세가 가장 높은 연령으로, 51.6시간이었으며, 다음은 60~64세 38.3시간, 50~54세 36.1시간, 55~59세 30.4시간 순이었다.

<표 4-32>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5-2019년)

(단위: %, 시간)

구 분		자원봉사참여율(%)	평균 시간(자원봉사표본)
2015 사회조사	13~19세	**77.6**	16.9
	20~24세	14.3	30.4
	25~29세	9.5	28.6
	30~34세	8.7	18.5
	35~39세	13.1	21.3
	40~44세	16.9	24.3
	45~49세	15.8	26.8
	50~54세	15.8	30.6
	55~59세	15.8	34.5
	60~64세	11.4	**41.2**
	65~100세	6.7	40.0
2017 사회조사	13~19세	**80.1**	16.6
	20~24세	14.6	35.1
	25~29세	8.6	24.7
	30~34세	8.0	19.3
	35~39세	13.8	23.6
	40~44세	18.3	23.3
	45~49세	16.4	27.9
	50~54세	16.0	30.6
	55~59세	14.8	33.5
	60~64세	12.4	39.4
	65~100세	6.5	**45.6**
2019 사회조사	13~19세	**76.1**	15.3
	20~24세	13.7	21.5
	25~29세	6.7	22.9
	30~34세	7.9	18.4
	35~39세	11.4	13.5
	40~44세	15.8	17.8
	45~49세	15.1	22.0
	50~54세	12.5	36.1
	55~59세	12.6	30.4
	60~64세	11.4	38.3
	65~100세	6.5	**51.6**



[그림 4-9]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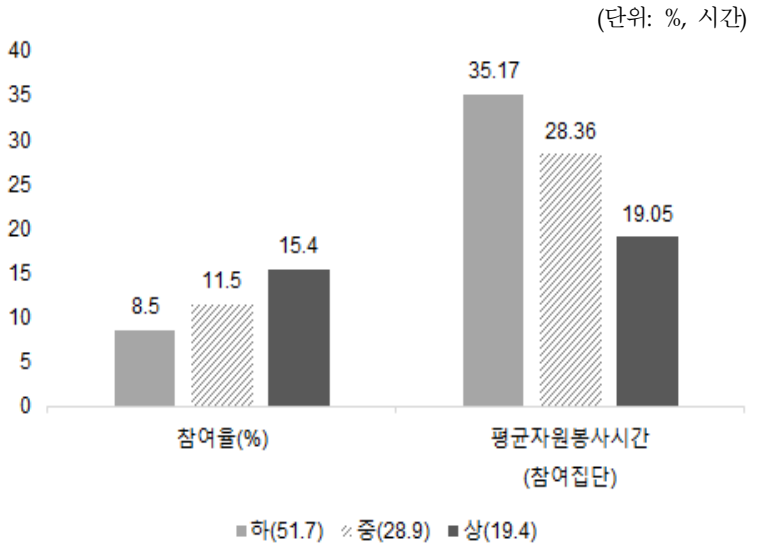
다.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 집단의 참여율은 1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중위 집단 11.5%, 하위 집단 8.5% 순이었으며, 평균 자원봉사시간은 소득 하위집단이 35.17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소득 중위 집단이 28.36시간, 소득 상위 집단이 19.05시간 순이었다.

<표 4-33>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9년)

(단위: %, 시간)

집단	참여율	평균자원봉사시간 (참여집단)
하(51.7)	8.5%	35.17
중(28.9)	11.5%	28.36
상(19.4)	15.4%	19.05



[그림 4-10]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9년)

2. 지역별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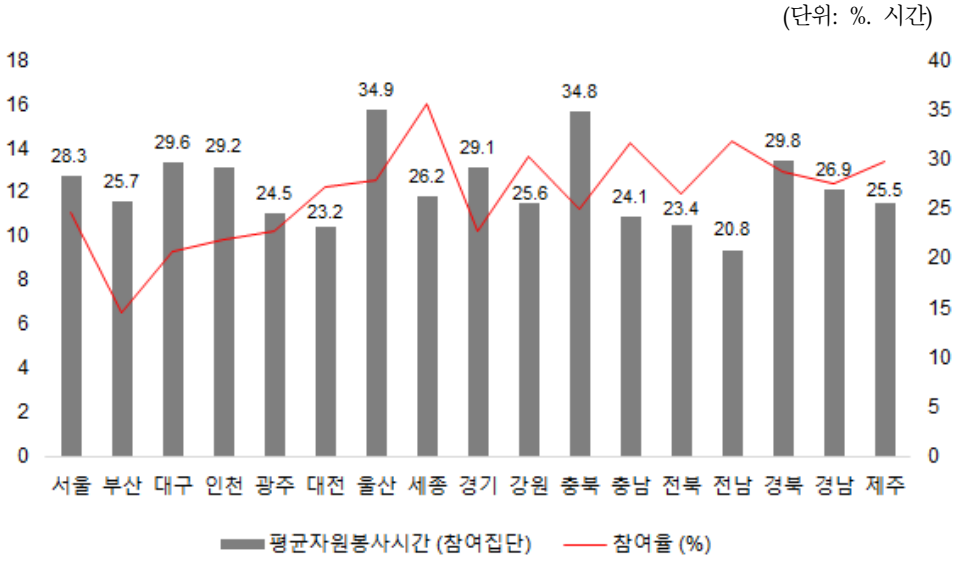
가. 지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 시간

지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16.0%였으며, 다음으로는 전남 14.3%, 충남 14.2%, 강원 13.6%, 제주 13.4%, 경북 12.9% 순으로 높았다. 평균자원봉사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34.9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충북 34.8시간, 경북 29.8시간, 대구 29.6시간, 인천 29.2시간, 경기 29.1시간 순으로 높았다.

<표 4-34> 행정구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7년)

(단위: %, 시간)

행정구역	참여율	평균자원봉사시간(참여집단)
서울	11.1	28.3
부산	6.5	25.7
대구	9.3	29.6
인천	9.8	29.2
광주	10.2	24.5
대전	12.2	23.2
울산	12.5	**34.9**
세종	**16.0**	26.2
경기	10.2	29.1
강원	13.6	25.6
충북	11.2	34.8
충남	14.2	24.1
전북	11.9	23.4
전남	14.3	20.8
경북	12.9	29.8
경남	12.4	26.9
제주	13.4	25.5



[그림 4-11] 행정구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7년)

나. 지역별 자원봉사 내용

1) 아동, 청소년 등

지역별 아동, 청소년의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연간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12.41회였으며, 다음으로는 울산 11.51회, 충북 11.09회, 부산 10.42회, 경북 10.31회, 세종 10.09회 순으로 높았다. 평균 자원봉사 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 또한 인천으로 39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울산 36.1시간, 충북 35.7시간, 서울 33.3시간, 전북 30.6시간 경북 30.5시간 순으로 높았다.

<표 4-35>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아동 등) 횟수 및 시간 (2019년)

(단위: 회, 시간)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자원봉사 (평균)
서울	9.92	33.3
부산	10.42	27.7
대구	8.58	23.8
인천	12.41	39.0
광주	8.66	24.0
대전	7.63	24.8
울산	11.51	36.1
세종	10.09	28.8
경기	7.84	25.6
강원	8.50	25.1
충북	11.09	35.7
충남	7.56	28.2
전북	10.07	30.6
전남	9.73	30.0
경북	10.31	30.5
경남	8.55	27.9
제주	7.70	22.9
전체	9.22	29.3

지역별 아동, 청소년의 자원봉사 주기를 살펴보면, 주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4.9%였으며, 월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28.2%, 분기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15.3%, 반기 단위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20.1%,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52.9%였다. 주, 월, 분기, 반기, 비주기적 단위를 제외한 기타 주기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8.6%였다.

<표 4-36>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아동 등) 주기 (2019년)

(단위 : %)

행정구역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기타	비주기적
서울	2.7	12.4	8.0	**20.1**	3.9	**52.9**
부산	4.0	24.3	2.2	4.8	0.8	63.8
대구	3.1	19.2	13.2	8.6	1.1	54.7
인천	**4.9**	19.1	9.5	6.3	3.7	56.5
광주	2.1	**28.2**	**15.3**	19.9	-	34.4
대전	1.9	14.6	8.1	19.4	2.2	53.7
울산	3.6	24.3	9.9	9.9	3.4	48.8
세종	2.6	8.6	10.9	7.2	2.2	68.6
경기	3.7	12.7	8.0	10.9	1.9	62.9
강원	3.1	11.5	6.8	12.2	-	66.4
충북	2.3	20.0	5.5	9.5	**8.6**	54.1
충남	3.5	17.2	9.0	14.3	-	56.0
전북	4.1	20.7	13.1	8.9	0.6	52.6
전남	1.2	19.1	11.5	10.7	2.6	54.9
경북	3.6	15.1	11.3	8.8	2.8	58.3
경남	3.5	20.2	8.3	8.5	1.3	58.3
제주	1.7	8.3	9.3	9.4	0.8	70.5
전체	3.2	16.1	8.8	12.5	2.4	57.1

2) 환경보전 등

지역별 환경보전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연간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25.02회였으며, 다음으로는 경기 12.22회, 세종 9.37회, 충북 8.94회, 인천 8.81회, 울산 8.64회 순으로 높았다. 평균 자원봉사 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40.7시간이었으며, 대구 36.1시간, 광주 23.7시간, 울산 22.6시간, 부산·제주 21시간 순으로 높았다.

<표 4-37> 행정구역별 자원봉사(환경보전 등) 횟수 및 시간(2019년)

(단위: 회, 시간)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자원봉사 (평균)
서울	4.61	11.3
부산	8.26	21.0
대구	**25.02**	36.1
인천	8.81	20.2
광주	7.80	23.7
대전	5.73	17.2
울산	8.64	22.6
세종	9.37	20.9
경기	12.22	**40.7**
강원	8.09	18.7
충북	8.94	20.1
충남	4.60	10.7
전북	5.06	12.0
전남	3.49	10.0
경북	6.63	18.2
경남	6.15	16.0
제주	7.28	21.0
전체	7.73	20.4

지역별 환경보전 등 분야에서 자원봉사 주기를 살펴보면, 주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6.1%였으며, 월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32.1%, 분기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21.1%, 반기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37.8%,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 89.6%였다. 주, 월, 분기, 반기, 비주기적 단위를 제외한 기타 주기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4.6%였다.

<표 4-38> 행정구역별 자원봉사(환경보전 등) 주기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기타	비주기적
서울	-	13.8	14.6	16.8	-	54.9
부산	-	16.6	17.4	6.4	-	59.6
대구	-	12.3	13.0	3.2	-	71.5
인천	4.4	**32.1**	6.2	17.8	**4.6**	34.8
광주	**6.1**	9.9	12.3	32.6	-	39.1
대전	2.5	4.6	10.7	26.6	3.2	52.4
울산	2.2	27.4	9.6	4.7	-	56.0
세종	2.9	3.7	3.7	-	-	**89.6**
경기	1.3	7.1	8.4	9.4	2.0	71.8
강원	5.9	17.2	13.4	12.2	-	51.2
충북	-	16.3	2.8	10.3	3.4	67.2
충남	0.7	7.0	**21.1**	25.0	-	46.3
전북	0.9	18.3	5.5	**37.8**	1.1	36.4
전남	-	4.0	14.9	21.6	1.0	58.4
경북	1.2	16.8	7.7	15.4	-	59.0
경남	1.3	22.4	12.2	13.0	-	51.2
제주	1.4	12.4	7.9	23.3	0.8	54.2
전체	1.3	13.3	11.6	16.5	0.9	56.4

3) 자녀 교육 등

지역별 자녀 교육 등에서의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7.59회였으며, 다음으로는 울산 7.1회, 충북 6.98회, 제주 6.83회, 경기 6.82회, 부산 6.73회 순으로 높았다. 자원봉사 평균 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31.4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구 17.8시간, 울산 16.0시간, 경기 13.5시간, 세종 13.4시간, 인천 12.3시간 순으로 높았다.

<표 4-39>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자녀교육 등) 횟수 및 시간 (2019년)

(단위: 회, 시간)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자원봉사 (평균: 시간)
서울	4.17	8.7
부산	6.73	11.8
대구	6.64	17.8
인천	5.30	12.3
광주	3.20	5.7
대전	3.46	7.2
울산	7.10	16.0
세종	**7.59**	13.4
경기	6.82	13.5
강원	6.02	10.3
충북	6.98	**31.4**
충남	3.95	6.1
전북	4.10	8.3
전남	5.73	11.6
경북	5.29	11.3
경남	6.42	11.2
제주	6.83	7.6
전체	5.81	12.0

지역별 자녀 교육 등에서의 자원봉사 주기를 살펴보면, 주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8.5%였으며, 월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14.5%, 분기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18.3%, 반기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48.2%,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91.5%였다.

<표 4-40>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자녀교육 등) 주기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기타	비주기적
서울	1.4	4.6	16.4	16.3	1.5	59.9
부산	**8.5**	-	-	-	-	**91.5**
대구	-	9.8	15.5	13.9	4.3	56.5
인천	2.6	1.7	13.2	8.2	-	74.3
광주	-	4.0	15.3	28.2	-	52.5
대전	-	8.6	10.2	**48.2**	-	33.0
울산	3.6	4.7	4.7	3.2	4.7	79.1
세종	3.8	-	15.5	11.9	-	68.8
경기	0.9	5.4	3.9	14.9	1.0	74.0
강원	-	12.8	-	16.3	-	70.8
충북	-	-	9.2	22.3	2.3	66.3
충남	2.2	-	6.5	15.9	3.6	71.9
전북	-	**14.5**	**18.3**	19.1	-	48.1
전남	6.3	-	16.0	7.6	-	70.2
경북	-	2.0	-	10.8	-	87.2
경남	1.9	8.1	6.4	17.6	-	66.0
제주	-	5.1	-	12.5	-	82.4
전체	1.5	4.9	8.5	15.2	1.1	68.8

4) 지역 행사 등

지역별 지역행사 등에서의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8.88회였으며, 다음으로는 전북 7.08회, 대구 6.57회, 강원 5.68회, 제주 5.11회, 울산 4.51회 순으로 높았다. 자원봉사 평균 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24.9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 19.8시간, 전북·경북 17.2시간, 세종 16.7시간, 제주 15.1시간 순으로 높았다.

<표 4-41>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지역행사 등) 횟수 및 시간 (2019년)

(단위: 회, 시간)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자원봉사 (평균)
서울	3.30	10.7
부산	1.98	9.5
대구	6.57	**24.9**
인천	2.13	5.9
광주	3.58	10.7
대전	2.71	13.0
울산	4.51	14.8
세종	**8.88**	16.7
경기	3.11	12.0
강원	5.68	19.8
충북	4.34	12.8
충남	3.10	11.5
전북	7.08	17.2
전남	4.45	12.8
경북	3.73	17.2
경남	3.93	13.1
제주	5.11	15.1
전체	3.81	13.1

지역별 지역행사 등에서의 자원봉사 주기를 살펴보면, 주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2.9%였으며, 월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27.5%, 분기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6.6%, 반기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36.9%,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 96.9%였다.

<표 4-42>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지역행사 등) 주기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기타	비주기적
서울	-	9.2	13.1	18.5	-	59.1
부산	-	-	8.0	6.5	-	85.5
대구	-	**27.5**	-	-	-	72.5
인천	-	5.2	-	21.7	-	73.1
광주	-	7.6	16.7	**36.9**	-	38.8
대전	-	-	9.6	9.0	-	81.5
울산	-	9.7	-	-	-	90.3
세종	-	-	-	3.1	-	**96.9**
경기	0.9	4.6	5.4	6.3	0.9	81.9
강원	-	3.0	5.1	6.6	-	85.3
충북	-	-	13.6	10.0	-	76.4
충남	-	3.1	-	13.7	9.5	73.7
전북	-	10.7	4.8	3.2	-	81.3
전남	**2.9**	-	6.8	12.5	-	77.8
경북	-	6.6	**21.8**	7.7	-	63.9
경남	-	2.6	12.6	4.2	-	80.6
제주	-	8.3	-	25.8	2.5	63.3
전체	0.4	5.3	7.9	10.4	0.8	75.1

5) 재해 복구 등

지역별 재해복구 등에서의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6.96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구 5.03회, 제주 3.94회, 전북 3.88회, 경북 3.29회, 전남 3.28회 순으로 높았다. 자원봉사 평균 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40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구 23.5시간, 전북 20시간, 제주 15.4시간, 충남 14.2시간, 경남 12.3시간 순으로 높았다.

<표 4-43>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재해복구 등) 횟수 및 시간 (2019년)

(단위: 회, 시간)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자원봉사 (평균)
서울	2.49	8.3
부산	3.01	11.5
대구	5.03	23.5
인천	1.96	10.3
광주	1.57	4.4
대전	2.52	10.0
울산	2.42	10.0
세종	1.44	5.0
경기	**6.96**	**40.0**
강원	1.93	8.4
충북	2.04	9.4
충남	2.80	14.2
전북	3.88	20.0
전남	3.28	9.0
경북	3.29	11.7
경남	3.04	12.3
제주	3.94	15.4
전체	3.45	15.9

지역별 재해복구 등에서의 자원봉사 주기를 살펴보면, 주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3.5%였으며, 월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19.0%, 분기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14.7%, 반기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 34.0%,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100%로 분석되었다.

<표 4-44> 행정구역별 자원봉사(재해복구 등) 주기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기타	비주기적
서울	-	-	**14.7**	13.5	-	71.8
부산	-	-	-	-	-	**100.0**
대구	-	**19.0**	-	-	19.4	61.7
인천	-	-	-	12.1	-	87.9
광주	-	-	14.5	13.8	-	71.7
대전	-	4.9	-	26.2	-	68.9
울산	-	-	3.4	4.9	-	91.6
세종	-	-	-	**34.0**	-	66.0
경기	**3.5**	2.2	-	10.9	-	83.4
강원	-	-	2.3	15.4	-	82.3
충북	-	4.8	-	-	-	95.2
충남	-	-	6.4	24.3	-	69.3
전북	-	3.5	3.8	13.1	-	79.6
전남	-	9.3	-	24.8	-	65.9
경북	-	2.0	-	-	-	98.0
경남	-	8.6	5.9	-	-	85.5
제주	-	16.1	8.7	6.0	-	69.2
전체	0.6	2.9	4.4	10.5	0.4	81.3

6) 기타

지역별 기타 등에서의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12.68회였으며, 다음으로는 경남 11.45회, 서울 10.94회, 광주 8.7회, 강원 8.63회, 인천 7.95회 순으로 높았다. 자원봉사 평균 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31.7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구 27.6시간, 서울 25.4시간, 충남 21.5시간, 전북 20.0시간, 경기 19.8시간 순으로 높았다.

<표 4-45> 행정구역별 자원봉사(기타) 횟수 및 시간 (2019년)

(단위: 회, 시간)

행정구역	연간 횟수 (평균)	자원봉사 (평균: 시간)
서울	10.94	25.4
부산	3.74	9.8
대구	**12.68**	27.6
인천	7.95	17.5
광주	8.70	18.8
대전	3.32	9.6
울산	4.94	16.1
세종	6.99	17.3
경기	6.76	19.8
강원	8.63	19.1
충북	7.31	15.7
충남	6.45	21.5
전북	6.32	20.0
전남	5.32	13.4
경북	5.82	18.8
경남	11.45	**31.7**
제주	4.73	10.3
전체	8.35	21.3

지역별 기타 등에서 자원봉사 주기를 살펴보면, 주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14.1%였으며, 월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39.8%, 분기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24.3%, 반기 단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30.5%, 비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83.0%였다.

<표 4-46> 행정구역별 자원봉사(기타) 주기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기타	비주기적
서울	4.5	14.4	7.2	**30.5**	2.7	40.6
부산	-	13.6	-	9.2	-	77.2
대구	9.4	32.9	-	-	-	57.7
인천	-	-	4.1	15.8	-	80.1
광주	-	**39.8**	7.2	7.2	-	45.8
대전	-	-	**24.3**	21.8	-	54.0
울산	-	22.6	7.0	14.3	-	56.1
세종	-	14.5	-	4.8	-	80.7
경기	4.8	11.4	2.1	1.5	2.9	77.4
강원	-	9.8	5.2	15.7	2.7	66.7
충북	8.2	7.1	19.8	25.1	-	39.8
충남	-	11.8	2.7	2.5	-	**83.0**
전북	-	21.3	15.3	4.6	-	58.7
전남	-	9.2	12.3	11.7	-	66.8
경북	2.8	3.7	2.6	8.1	5.0	77.8
경남	**14.1**	11.1	8.6	10.2	-	56.0
제주	-	-	22.8	11.2	-	66.1
전체	4.1	13.1	6.5	14.1	1.7	60.6

다. 지역별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지역별 전문 자원봉사 여부를 살펴보면, '있다'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45.3%였으며, 다음으로는 경기 37.0%, 서울 36.6%, 대전 36.4%, 인천 35.8%, 부산 35.6% 순으로 높았다. '없다'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75.8%였으며, 다음으로는 대구 74.8%, 세종 74.0%, 강원 70.2%, 전북 69.4%, 전남 68.6%, 울산 68.2% 순으로 높았다.

<표 4-47> 행정구역별 전문 자원봉사 여부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있다	없다
서울	36.6	63.4
부산	35.6	64.4
대구	25.2	74.8
인천	35.8	64.2
광주	**45.3**	54.7
대전	36.4	63.6
울산	31.8	68.2
세종	26.0	74.0
경기	37.0	63.0
강원	29.8	70.2
충북	33.0	67.0
충남	24.2	**75.8**
전북	30.6	69.4
전남	31.4	68.6
경북	35.1	64.9
경남	35.4	64.6
제주	32.8	67.2
전체	34.4	65.6

지역별 전문 자원봉사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 분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15.8%였으며 다음으로는 대전 13.7%, 경남 13.7%, 부산 13.6%, 서울 12.3%, 인천 11.5% 순으로 높았다. 아동 학습 분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40.1%였으며, 다음으로는 대구 30.2%, 인천 27.6%, 전남 26.9%, 세종 25.4%, 경기 23.9% 순으로 높았다. 운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18.1%였으며, 다음으로는 부산 16.6%, 인천·울산 16.5%, 경북 16.1%, 경기 13.6% 순으로 높았다.

<표 4-48> 행정구역별 전문 자원봉사 내용 (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이용, 미용	요리	의료	아동 학습	통번역	공연	평생 학습	전문 상담	운전	주택 수리	기타
서울	6.8	14.5	12.3	21.1	4.8	11.4	6.9	7.2	4.3	6.4	4.4
부산	7.0	4.9	13.6	23.5	-	1.8	8.8	**15.3**	16.6	8.5	-
대구	11.3	12.9	5.6	30.2	-	6.2	4.5	6.0	3.3	14.7	5.3
인천	1.9	6.9	11.5	27.6	4.0	12.5	4.9	3.0	16.5	9.1	2.1
광주	5.7	2.4	6.9	**40.1**	4.1	10.2	**16.8**	5.1	6.2	2.5	-
대전	3.0	12.5	13.7	21.3	-	14.5	9.5	14.6	8.0	-	2.9
울산	**17.8**	13.7	7.5	20.3	-	6.9	1.8	2.5	16.5	1.6	11.5
세종	4.5	7.2	10.2	25.4	3.8	**17.3**	2.5	10.7	1.4	9.2	7.7
경기	4.7	6.5	11.2	23.9	2.2	8.0	8.5	4.3	13.6	7.8	9.3
강원	6.7	5.8	10.2	21.8	2.1	13.2	6.4	7.9	11.3	14.7	-
충북	7.8	8.6	**15.8**	21.7	4.1	8.4	10.9	5.0	2.9	11.5	3.4
충남	11.7	4.6	10.0	17.5	1.9	10.2	4.1	11.0	**18.1**	8.9	2.0
전북	7.9	5.8	10.7	15.2	2.2	11.2	11.5	7.5	13.6	13.3	1.0
전남	3.8	11.8	11.0	26.9	0.7	4.6	7.9	1.6	12.1	**18.1**	1.4
경북	7.7	8.6	10.6	18.7	3.5	8.2	10.7	2.7	16.1	12.5	0.9
경남	8.6	13.4	13.7	16.8	2.6	10.1	7.2	3.3	12.0	7.6	4.7
제주	9.4	**16.1**	4.6	16.6	-	3.7	5.2	4.0	8.4	16.0	**16.0**
전체	6.6	9.5	11.3	22.6	2.7	9.3	7.9	5.9	10.9	8.6	4.8

라. 지역별 향후 자원봉사 활동 의사

지역별 향후 자원봉사 의사를 살펴보면 '있다'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38.9%였으며, 대전 35.7%, 광주 34.3%, 서울 33.5%, 제주 31.7%, 경기 31.5% 순으로 높았다. '없다'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77.0%였으며, 부산 76.3%, 충북 73.3%, 경북 71.8%, 전남 70.3%, 울산 69.9% 순으로 높았다.

<표 4-49> 행정구역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2019년)

(단위: %)

행정구역	있다	없다
서울	33.5	66.5
부산	23.7	76.3
대구	23.0	**77.0**
인천	30.2	69.8
광주	34.3	65.7
대전	35.7	64.3
울산	30.1	69.9
세종	**38.9**	61.1
경기	31.5	68.5
강원	31.4	68.6
충북	26.7	73.3
충남	30.3	69.7
전북	31.5	68.5
전남	29.7	70.3
경북	28.2	71.8
경남	30.1	69.9
제주	31.7	68.3
전체	30.6	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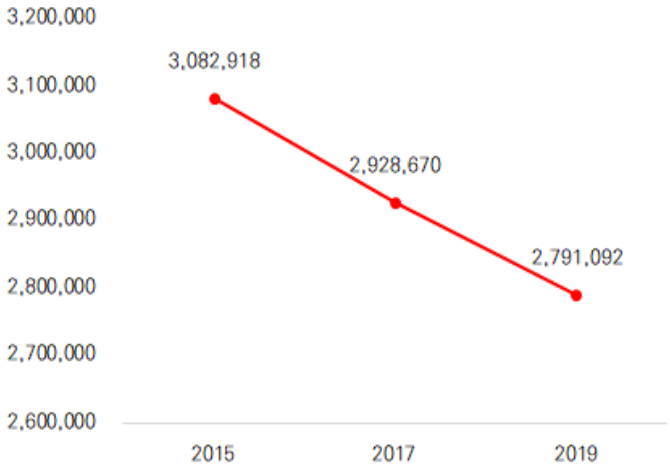
제3절 헌혈

1. 헌혈 개요

가. 전체 헌혈 추이

전국 헌혈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도 3,082,918건, 2017년도 2,928,670건, 그리고 2019년에는 2,791,092건으로 나타나 헌혈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개년 간 5%씩 헌혈건수가 감소하여, 2019년의 헌혈건수는 2015년도 헌혈건수의 90.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건)



[그림 4-12] 3개년도 전체 헌혈건수 추이 (2015-2019년)

나. 성별 헌혈

<표 4-50> 3개년도 성별 헌혈건수 (2015-2019년)

(단위: 건, %)

성별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남성	2,165,411	70.2	2,132,241	72.8	2,036,566	73.0
여성	917,507	29.8	796,429	27.2	754,526	27.0
전체	3,082,918	100.0	2,928,670	100.0	2,791,092	100.0

성별 헌혈건수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2015년도에 비해 2017년, 2019년 점차 헌혈건수가 감소하였다. 남성의 2019년도 헌혈건수는 2015년도의 94%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반해, 여성의 2019년도 헌혈건수는 2015년도의 82%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헌혈건수의 감소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9년도 기준, 남성의 헌혈건수는 2,036,566건으로 전체 헌혈건수의 73%를 차지하며, 754,526건(27%)으로 나타난 여성 헌혈건수의 2.7배임을 알 수 있다. 3개년간, 남성의 헌혈건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헌혈건수 비중 또한 유사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연령별 헌혈

2019년도 연령별 헌혈건수를 살펴보면, 헌혈건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29세(1,017,604건, 3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6~19세(800,321건, 28.7%), 30~39세(431,188건, 15.4%)가 뒤를 이었으며, 60세 이상이 27,888건(1.0%)으로 헌혈건수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 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16~19세와 20~29세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헌혈건수가 감소한 반면, 30~39세와 40~49세, 50~59세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헌혈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청소년과 청년층의 헌혈건수는 감소하고, 중장년과 노년층의 헌혈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개년간 16~19세와 20~29세의 헌혈건수는 전체 헌혈건수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과 군인의 높은 헌혈 참여가 반영된 수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51> 3개년도 연령별 헌혈건수 (2015-2019년)

(단위: 건, %)

연령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16~19세	1,048,941	34.0	913,903	31.2	800,321	28.7
20~29세	1,325,606	43.0	1,166,805	39.8	1,017,604	36.5
30~39세	372,243	12.1	414,103	14.1	431,188	15.4
40~49세	237,284	7.7	300,142	10.2	358,446	12.8
50~59세	85,267	2.8	113,927	3.9	155,645	5.6
60세 이상	13,577	0.4	19,790	0.7	27,888	1.0
전체	3,082,918	100.0	2,928,670	100.0	2,791,092	100.0

2. 지역별 헌혈 건수

2019년도 지역별 헌혈건수를 살펴보면, 헌혈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900,964건,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년 간 전체 헌혈건수의 3분의 1 가량이 서울에서 기록되었다. 그 다음으로 부산(213,597건, 7.7%), 경기(211,443건, 7.6%), 대전(160,466건, 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지역이 35,973건으로 가장 헌혈건수가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3개년도 지역별 헌혈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헌혈건수 추이와 유사하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지역의 헌혈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강원 지역은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지역은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52> 3개년도 지역별 헌혈건수 (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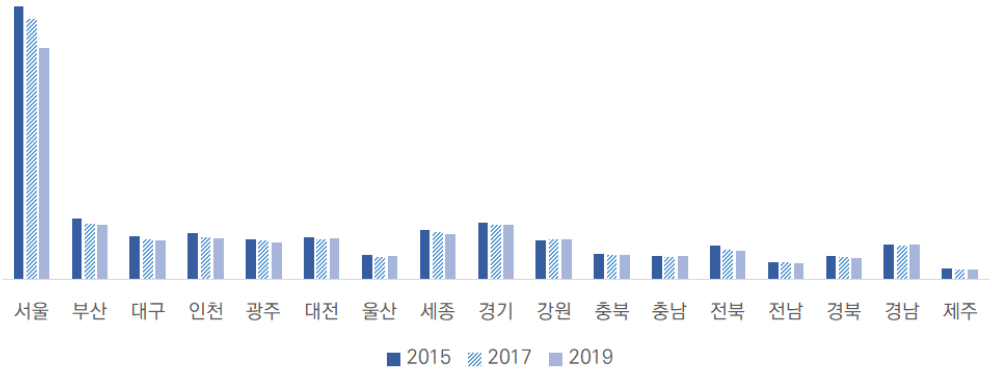
(단위: 건, %)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	1,062,324	34.5	1,015,159	34.7	900,964	32.3
부산	238,050	7.7	215,280	7.4	213,597	7.7
대구	168,683	5.5	156,041	5.3	150,648	5.4
인천	181,013	5.9	163,724	5.6	158,557	5.7
광주	153,549	5.0	152,653	5.2	143,184	5.1
대전	161,768	5.2	155,777	5.3	160,466	5.7
울산	94,025	3.0	86,512	3.0	91,793	3.3
세종	192,682	-	183,042	-	174,443	-
경기	218,945	7.1	211,129	7.2	211,443	7.6
강원	149,795	4.9	154,964	5.3	153,606	5.5
충북	99,627	3.2	95,644	3.3	94,251	3.4
충남	90,207	2.9	86,866	3.0	89,481	3.2
전북	128,878	4.2	114,233	3.9	108,908	3.9
전남	68,023	2.2	67,626	2.3	63,430	2.3
경북	91,631	3.0	84,763	2.9	81,834	2.9
경남	135,724	4.4	130,495	4.5	132,957	4.8
제주	40,676	1.3	37,804	1.3	35,973	1.3
전체	3,082,918	100.0	2,928,670	100.0	2,791,092	100.0

주1) 헌혈통계연보상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지역, 가령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의 경우는 2019년도 해당지역 헌혈의 집 헌혈건수를 근거로 산출한 구성비(%)를 적용하여 임의로 구분

주2) 세종의 경우 헌혈실적을 도출할 근거가 부재하여 세종을 제외한 전국 평균값으로 대체(% 미표시)

(단위: 건)



[그림 4-13] 3개년도 지역별 헌혈건수 추이 (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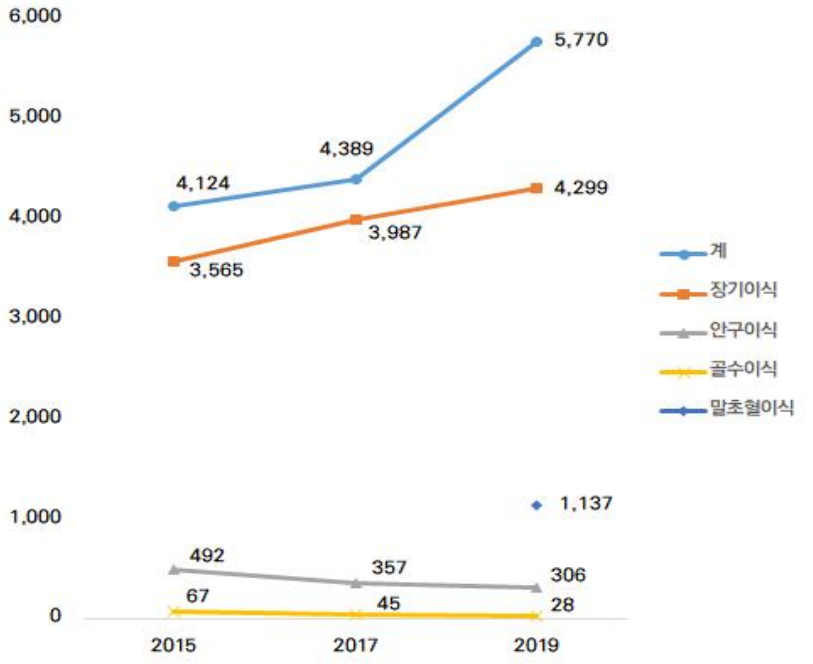
제4절 장기기증

1. 장기기증 개요

가. 장기등 이식건수 추이

전국 장기등 이식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15년도 4,124건, 2017년도 4,389건, 그리고 2019년에는 5,770건으로 나타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에는 장기등 이식건수가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장기이식법 시행령('18.8.9.)의 개정으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말초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단위: 건)



[그림 4-14] 3개년도 장기등 이식건수 추이 (2015-2019년)

나. 성별 장기등 이식건수

성별 장기등 이식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이식건수 증가추세가 성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15년도에 비해 2017년, 2019년 점차 장기등 이식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도 기준, 남성의 장기등 이식건수는 여성의 이식건수의 1.7배이며, 3개년 간 여성의 장기등 이식건수는 전체 이식건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3> 3개년도 성별 장기등 이식건수 (2015-2019년)

(단위: 건, %)

성별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남성	2,698	65.4	2,865	65.3	3,624	62.8
여성	1,426	34.6	1,524	34.7	2,146	37.2
전체	4,124	100.0	4,389	100.0	5,770	100.0

다. 연령별 장기등 이식건수

연령별 장기등 이식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이식건수가 가장 많은 연령 집단은 50~64세(2,769건, 4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5~49세(1,453건, 25.2%), 65~74세(599건, 10.4%)가 뒤를 이었으며, 1세 미만이 22건(0.4%)으로 장기등 이식건수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64세 집단의 경우 3개년 간 50%에 가까운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35~49세 집단까지 포함하는 경우 두 연령 집단의 이식건수는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4-54> 3개년도 연령별 장기등 이식건수 (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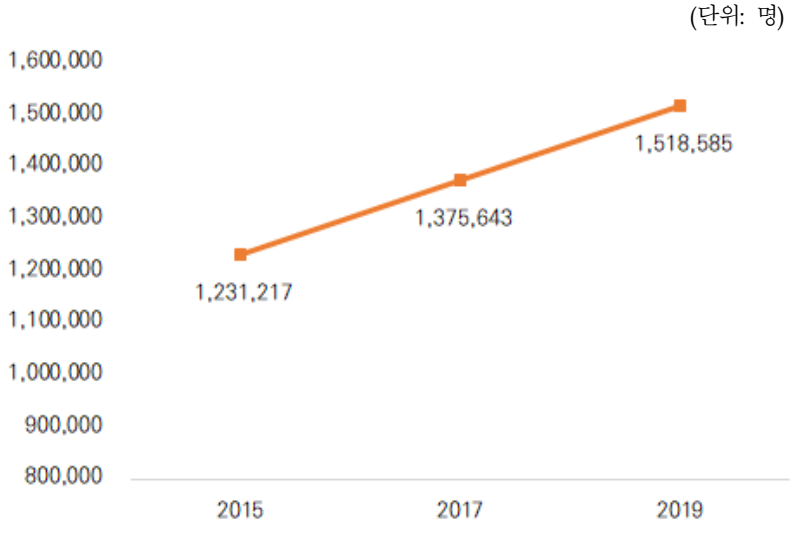
(단위: 건, %)

연령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계	4,124	100.0	4,389	100.0	5,770	100.0
1세 미만	26	0.6	23	0.5	22	0.4
1~5세	40	1.0	44	1.0	80	1.4
6~10세	29	0.7	28	0.6	73	1.3
11~18세	55	1.3	51	1.2	143	2.5
19~34세	424	10.3	321	7.3	567	9.8
35~49세	1,130	27.4	1,235	28.1	1,453	25.2
50~64세	1,955	47.4	2,172	49.5	2,769	48.0
65~74세	377	9.1	440	10.0	599	10.4
75세 이상	88	2.1	75	1.7	64	1.1

연령대 별로 추이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1세 미만과 75세 이상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식건수가 감소하였으며, 6~10세와 11~18세, 그리고 19~34세의 경우, 2017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외의 연령대인 1~5세, 35~49세, 50~64세, 65~74세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등 이식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장기등기증희망자 추이

전국 장기등기증희망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누계통계치인 것을 고려하여, 각년도 희망자 수의 차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도는 2015년도에 비해 144,426명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는 2017년도에 비해 142,9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장기등기증희망자 증가폭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5] 3개년도 장기등기증희망자 추이 (2015-2019년, 각 년도 누계)

바. 성별 장기등기증희망자

성별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살펴보면, 전체 이식건수 증가추세가 성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누계통계치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성별 각년도 희망자 수의 차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2015년에 비해 2017년도에 57,852명, 2017년에 비해 2019년도에 71,343명이 추가되어 증가폭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 2015년에 비해 2017년도에는 86,573명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에 비해 2019년도는 71,600명이 증가하여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등 기증건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에 비해, 장기등기증희망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여성 장기등기증희망자는 862,139명(56.8%)로, 남성 장기등기증희망자(656,446명, 43.2%) 수의 1.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5> 3개년도 성별 장기등기증희망자 (2015-2019년, 각 년도 누계)

(단위: 명, %)

성별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남성	527,251	42.8	585,103	42.5	656,446	43.2
여성	703,966	57.2	790,539	57.5	862,139	56.8
전체	1,231,217	100.0	1,375,643	100.0	1,518,585	100.0

주) 각년도 기증희망 취소, 사망 데이터 제외

라. 연령별 장기등기증희망자

2019년도 연령별 장기등기증희망자 수를 살펴보면, 장기등기증희망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59세(328,558명,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40~49세(309,232명, 20.4%), 30~39세(267,281명, 17.6%), 60~69세(250,919명, 16.5%) 순으로 희망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세 미만은 3,054명(0.2%)이 기증을 희망하여 가장 희망자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개년 간 각년도 장기등기증희망자 중 비중이 높은 연령 집단은 40~49세와 50~59세로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56> 3개년도 연령별 장기등기증희망자 (2015-2019년, 각 년도 누계)

(단위: 명, %)

연령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20세 미만	2,439	0.2	2,017	0.1	3,054	0.2
20~29세	191,822	15.6	192,032	14.0	204,413	13.5
30~39세	240,536	19.5	262,175	19.1	267,281	17.6
40~49세	279,979	22.7	298,043	21.7	309,232	20.4
50~59세	264,188	21.5	299,114	21.7	328,558	21.6
60~69세	163,195	13.3	203,016	14.8	250,919	16.5
70세 이상	89,058	7.2	119,246	8.7	155,128	10.2
전체	1,231,217	100.0	1,375,643	100.0	1,518,585	100.0

주) 각년도 기증희망 취소, 사망 데이터 제외

2. 지역별 장기기증

가. 지역별 장기등 이식건수

2019년도 지역별 장기등 이식건수를 살펴보면, 이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3,724건, 6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기(578건, 10.0%), 대구(385건, 6.7%), 부산(323건, 5.6%)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종과 경북 지역이 0건(0.0%)으로 가장 이식건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57> 3개년도 지역별 장기등 이식건수 (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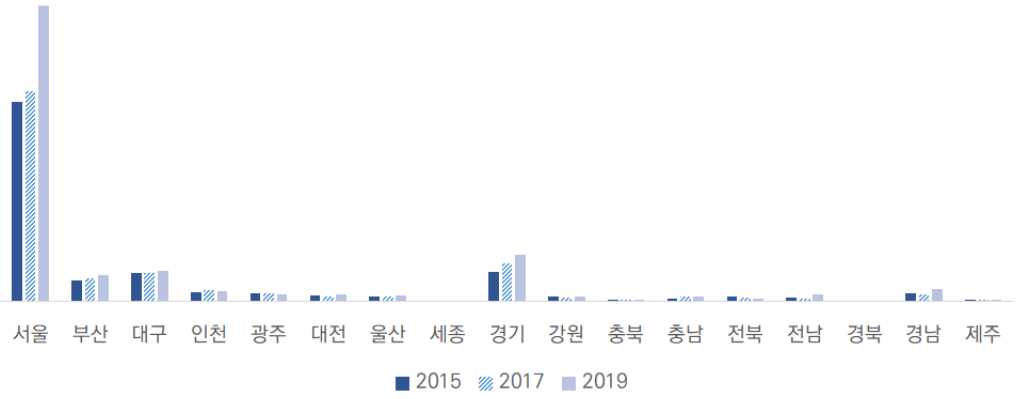
(단위: 건, %)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	2,512	60.9	2,644	60.2	3,724	64.5
부산	262	6.4	291	6.6	323	5.6
대구	352	8.5	349	8.0	385	6.7
인천	106	2.6	133	3.0	126	2.2
광주	93	2.3	103	2.3	80	1.4
대전	72	1.7	52	1.2	89	1.5
울산	63	1.5	63	1.4	73	1.3
세종	0	0.0	0	0.0	0	0.0
경기	370	9.0	472	10.8	578	10.0
강원	53	1.3	47	1.1	54	0.9
충북	2	0.0	5	0.1	8	0.1
충남	30	0.7	52	1.2	52	0.9
전북	57	1.4	49	1.1	33	0.6
전남	46	1.1	35	0.8	81	1.4
경북	0	0.0	0	0.0	0	0.0
경남	98	2.4	87	2.0	155	2.7
제주	8	0.2	6	0.1	9	0.2
전체	4,124	100.0	4,389	100.0	5,770	100.0

주) 의료기관 지역 기준

지속적으로 0건을 기록한 세종과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별 장기등 이식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지역별 추이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 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북, 그리고 충남 지역의 이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대구, 대전,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의 이식건수는 2015년에 비해 2017년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인천과 광주 지역은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3개년 간 전체 장기등 이식건수의 60% 이상이 서울에서 진행되었으며, 경기 지역은 지속적으로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건)



[그림 4-16] 3개년도 지역별 장기등 이식건수 추이 (2015-2019년)

나. 지역별 장기등기증희망자

지역별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394,168명, 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기(353,773명, 23.3%), 부산(119,870명, 7.9%) 순으로 희망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공백을 제외하고는 세종 지역이 2,744명(0.2%)으로 장기등기증희망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년 간 서울·경기 지역의 장기등기증희망자는 전체 희망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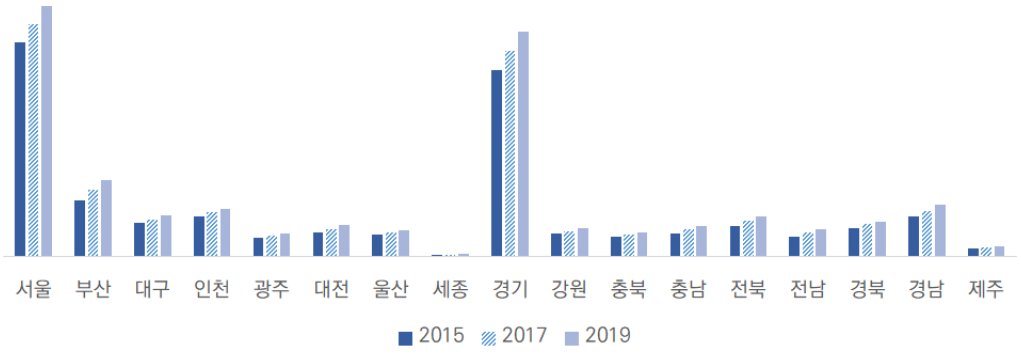
<표 4-58> 3개년도 지역별 장기등기증희망자 (2015-2019년, 각 년도 누계)

(단위: 명, %)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	337,477	27.4	366,234	26.6	394,168	26.0
부산	87,603	7.1	104,695	7.6	119,870	7.9
대구	52,323	4.2	57,196	4.2	63,352	4.2
인천	62,195	5.1	68,818	5.0	74,742	4.9
광주	27,895	2.3	31,577	2.3	35,327	2.3
대전	36,939	3.0	41,700	3.0	49,786	3.3
울산	33,113	2.7	36,470	2.7	39,892	2.6
세종	1,647	0.1	2,264	0.2	2,744	0.2
경기	293,675	23.9	323,267	23.5	353,773	23.3
강원	35,380	2.9	39,408	2.9	43,362	2.9
충북	29,614	2.4	34,023	2.5	37,665	2.5
충남	36,074	2.9	42,199	3.1	47,473	3.1
전북	47,127	3.8	55,786	4.1	62,264	4.1
전남	30,220	2.5	36,970	2.7	42,328	2.8
경북	44,707	3.6	50,014	3.6	54,769	3.6
경남	63,132	5.1	71,524	5.2	81,726	5.4
제주	11,370	0.9	12,766	0.9	14,522	1.0
공백	726	0.1	732	0.1	822	0.1
전체	1,231,217	100.0	1,375,643	100.0	1,518,585	100.0

주1) 공백: 주소 오입력 또는 미입력으로 인한 주소불명
주2) 각년도 기증희망 취소, 사망 데이터 제외

(단위: 명)



[그림 4-17] 3개년도 지역별 장기등기증희망자 추이 (2015-2019년, 각 년도 누계)

제5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 개요

가. 전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 추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496,961명, 2017년 577,045명, 2019년 600,109명의 개인 기부자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인 기부자의 연평균 기부횟수는 2015년 4.9회에서 2017년 5.9회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5.2회로 감소하였다. 더불어, 연평균 기부금액[12]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5년에는 개인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이 154,412원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149,742원, 2019년에는 평균 142,178원을 기부함으로써 개인 기부자들이 점차 기부를 줄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개인 (연)평균 기부금액은 개인 기부자별 연간 기부금액을 모두 합산한 후, 개인 기부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즉, 개인이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의 평균을 의미한다.

[그림 4-18] 3개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및 기부횟수 추이 (2015-2019년)

[그림 4-19] 3개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및 기부금액 추이 (2015-2019년)

나. 연령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2019년도 연령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를 살펴보면, 기부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59세(179,206명, 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40~49세(156,802명, 26.1%), 30~39세(123,679명, 20.6%)가 뒤를 이었으며, 70세 이상이 21,844명(3.6%)으로 기부자 수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 별로 추이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30대부터 50대까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60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기부자 수가 감소하였다. 20대와 70세 이상의 경우,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기부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3개년 간, 40~49세, 50~59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9세, 70세 이상의 연령 집단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9> 3개년도 연령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2015-2019년)

(단위: 명, %)

연령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20~29세	11,898	2.4	48,058	8.3	41,382	6.9
30~39세	90,210	18.2	115,364	20.0	123,679	20.6
40~49세	133,500	26.9	143,629	24.9	156,802	26.1
50~59세	153,321	30.9	163,222	28.3	179,206	29.9
60~69세	87,005	17.5	84,199	14.6	77,196	12.9
70세 이상	21,027	4.2	22,573	3.9	21,844	3.6
전체	496,961	100.0	577,045	100.0	600,109	100.0

다. 연령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횟수

2019년도 연령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평균 개인 기부횟수를 살펴보면, 평균 기부횟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69세(6.7회)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70세 이상(6.5회), 50~59세(5.9회) 순으로 기부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이 청장년층보다 기부하는 횟수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60~69세와 70세 이상의 경우 기부자 수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평균 기부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 기부횟수 추이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 연평균 기부횟수 추이가 2015년에 비해 2017년 증가하고, 2019년에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다만, 70세 이상의 경우, 지속적으로 연평균 기부횟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3개년 간, 30~49세의 평균 기부횟수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에 반해, 50세 이상의 경우 지속적으로 높은 평균 기부횟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60> 3개년도 연령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횟수 (2015-2019년, 각 년도 평균)

(단위: 회)

연령	2015년	2017년	2019년
20~29세	5.3	7.1	3.8
30~39세	3.7	4.6	3.9
40~49세	4.6	5.4	4.9
50~59세	5.4	6.1	5.9
60~69세	5.7	6.5	6.7
70세 이상	5.8	6.4	6.5
전체	4.9	5.8	5.2

라. 연령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금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평균 기부금액[13]은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2019년도 연령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평균 기부금액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533,16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연령 집단은 타 연령 집단에 비해 개인 기부자 수 및 비중은 작은 편이나, 평균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기부금액도 감소하였으며, 평균 45,600원을 기부한 20~29세가 가장 적게 기부한 연령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연령대별 개인 기부금액 추이는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양상이 70세 이상 집단에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70세 이상 집단은 평균 759,337원을 기부하였던 것에 반해 2019년에는 평균 533,162원을 기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29세와 30~39세는 2015년에 비해 2017년 평균 기부금액이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증가하였다. 또한 40~49세, 50~59세, 그리고 60~69세는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 평균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더불어, 지난 3개년 간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기부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1> 3개년도 연령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금액 (2015-2019년)

(단위: 원)

연령	2015년	2017년	2019년
20~29세	67,907	33,142	45,600
30~39세	65,363	60,569	67,466
40~49세	82,815	92,045	90,530
50~59세	140,321	156,084	154,627
60~69세	247,065	309,218	279,020
70세 이상	759,337	580,137	533,162
전체	154,412	149,742	142,178

13) 개인 평균 기부금액은 개인 기부자별 연간 기부금액을 모두 합산한 후, 개인 기부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즉, 개인이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의 평균을 의미한다.

마. 기부횟수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수

2019년도 기부횟수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를 살펴보면, 과반수(305,687명, 53.0%)가 1~3회 기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10~12회 기부하는 기부자 수가 157,952명(27.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시기부자 혹은 매달 정기기부자가 많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난 3개년 간, 7~9회, 10~12회, 그리고 13회 이상 기부하는 기부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3회 또는 4~6회 기부하는 기부자 수는 2017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4-62> 3개년도 기부횟수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2015-2019년)

(단위: 명, %)

기부횟수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1~3회	297,556	59.9	317,525	56.2	305,687	53.0
4~6회	31,037	6.3	42,663	7.6	36,411	6.3
7~9회	31,121	6.3	39,739	7.0	39,955	6.9
10~12회	115,706	23.3	139,244	24.6	157,952	27.4
13회 이상	21,541	4.3	26,085	4.6	37,040	6.4
전체	496,961	100.0	577,045	100.0	600,109	100.0

바. 기부금액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수

2019년도 기부금액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를 살펴보면, 과반수가 연간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또는 1만원 미만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기부하는 기부자는 210,449명(35.1%), 1만원 미만 기부자는 109,843명(18.3%)으로 나타나, 3만원 미만 소액기부자들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개년 간, 기부자의 과반수는 연간 3만원 미만으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만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 기부자들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그 수는 소폭 증가하였다.

<표 4-63> 3개년도 기부횟수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2015-2019년)

(단위: 명, %)

기부금액[14]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1만원 미만	94,097	18.9	120,788	20.9	109,843	18.3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170,701	34.3	184,676	32.0	210,449	35.1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51,326	10.3	71,181	12.3	67,515	11.3
5만원 이상~7만원 미만	53,259	10.7	62,580	10.8	67,240	11.2
7만원 이상~9만원 미만	13,469	2.7	15,815	2.7	16,250	2.7
9만원 이상~11만원 미만	21,504	4.3	21,068	3.7	23,820	4.0
11만원 이상~13만원 미만	36,423	7.3	41,321	7.2	44,260	7.4
13만원 이상~15만원 미만	5,984	1.2	6,839	1.2	6,704	1.1
15만원 이상	50,198	10.1	52,777	9.2	54,028	9.0
전체	496,961	100.0	577,045	100.0	600,109	100.0

14) 기부금액은 개인 기부자별 연간 기부 총액을 의미한다.

2.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

가.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2019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를 살펴보면, 기부자 수가 가장 많은 지회는 서울(79,963명, 13.3%), 경기(76,228명, 12.7%)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강원(52,874명, 8.8%), 경남(47,553명, 7.9%) 지회가 뒤를 이었으며, 세종 지회가 3,544(0.6%)로 가장 개인 기부자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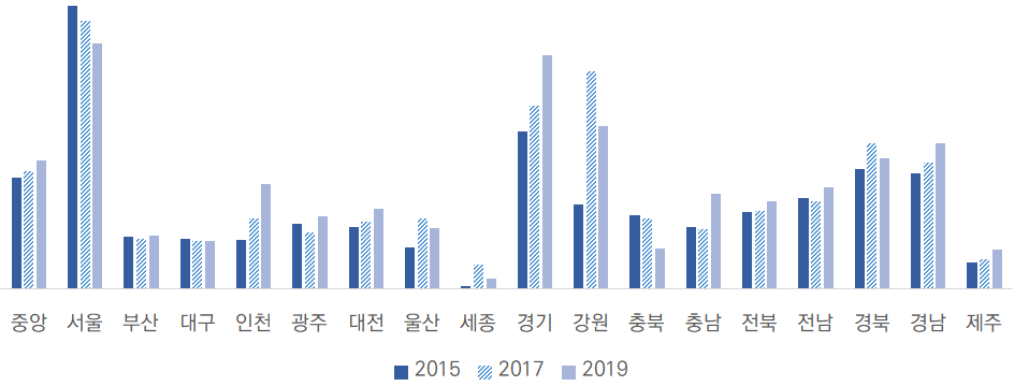
<표 4-64> 3개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2015-2019년)

(단위: 명, %)

지회	2015년		2017년		2019년	
	빈도	%	빈도	%	빈도	%
중앙	36,208	7.3	38,424	6.7	41,930	7.0
서울	92,367	18.6	87,233	15.1	79,963	13.3
부산	16,957	3.4	16,217	2.8	17,397	2.9
대구	16,421	3.3	15,716	2.7	15,757	2.6
인천	16,098	3.2	23,089	4.0	34,001	5.7
광주	21,168	4.3	18,498	3.2	23,659	3.9
대전	20,113	4.0	21,914	3.8	26,105	4.4
울산	13,662	2.7	23,042	4.0	19,989	3.3
세종	994	0.2	7,981	1.4	3,544	0.6
경기	51,325	10.3	59,573	10.3	76,228	12.7
강원	27,489	5.5	70,975	12.3	52,874	8.8
충북	23,971	4.8	22,959	4.0	13,130	2.2
충남	20,280	4.1	19,513	3.4	30,909	5.2
전북	25,063	5.0	25,254	4.4	28,436	4.7
전남	29,742	6.0	28,580	5.0	33,141	5.5
경북	39,056	7.9	47,294	8.2	42,702	7.1
경남	37,571	7.6	41,224	7.1	47,553	7.9
제주	8,476	1.7	9,559	1.7	12,791	2.1
전체	496,961	100.0	577,045	100.0	600,109	100.0

3개년 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추이를 보면, 전체 개인 기부자 수가 증가한 것과 같이 인천, 대전, 경기, 전북, 경남, 그리고 제주 지회의 개인 기부자 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과 충북 지회의 경우, 3개년 간 개인 기부자 수는 감소하였다. 한편, 중앙과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남 지회는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증가하였다. 반면에, 울산, 세종, 강원, 경북 지회의 개인 기부자 수는 2017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감소하였다. 또한, 3개년 간 서울과 경기 지회의 개인 기부자 수와 비중이 타 지회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그림 4-20] 3개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수 추이 (2015-2019년)

나.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횟수

2019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횟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기부횟수가 가장 많은 지회는 울산(7.6회), 대구(7.2회)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전(6.6회), 강원(6.1회) 지회가 연평균 기부횟수가 높았으며, 세종 지회의 연평균 기부횟수는 3.2회로 나타나 가장 기부횟수가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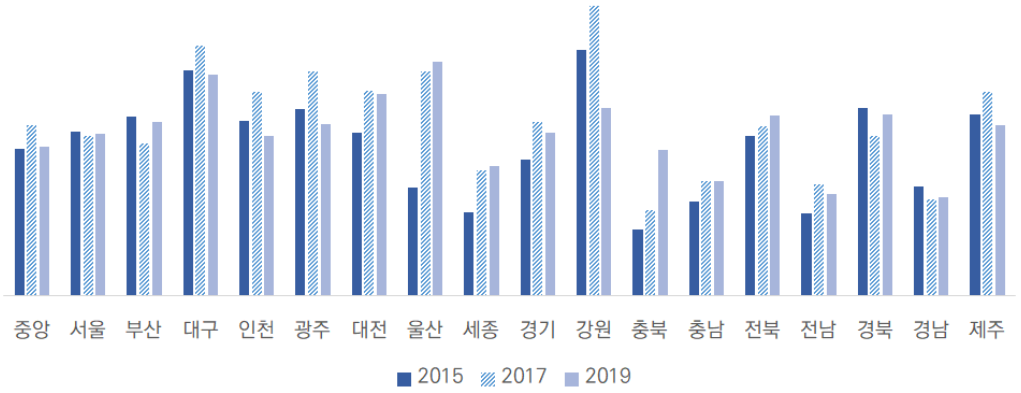
<표 4-65> 3개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횟수 (2015-2019년, 각 년도 평균)

(단위: 회)

지회	2015년	2017년	2019년
중앙	4.8	5.5	4.8
서울	5.3	5.2	5.3
부산	5.8	5.0	5.6
대구	7.3	8.2	7.2
인천	5.7	6.6	5.2
광주	6.1	7.3	5.6
대전	5.3	6.7	6.6
울산	3.5	7.3	7.6
세종	2.7	4.1	4.2
경기	4.4	5.7	5.3
강원	8.0	9.4	6.1
충북	2.2	2.8	4.7
충남	3.1	3.7	3.7
전북	5.2	5.5	5.9
전남	2.7	3.6	3.3
경북	6.1	5.2	5.9
경남	3.5	3.1	3.2
제주	5.9	6.6	5.6
전체	4.9	5.8	5.2

3개년 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평균 기부횟수 추이를 보면, 전체 추이와 유사하게 중앙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지회의 평균 기부횟수는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다가 2019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서울, 부산, 경북, 그리고 경남 지회는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평균 기부횟수가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지회의 경우, 3개년 간 지속적으로 평균 기부횟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회)



[그림 4-21] 3개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횟수 추이 (2015-2019년)

다.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금액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금액의 경우, 2019년도 기준 개인 평균 기부금액이 가장 높은 지회는 부산(290,544원), 대구(266,070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제주(214,627원)와 중앙(205,666원)의 평균 기부금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 지회가 78,843원으로 가장 낮은 평균 기부금액을 기록하였다. 특히 제주의 경우, 기부자 수는 타 지회에 비해 적은 편이나, 개인 평균 기부금액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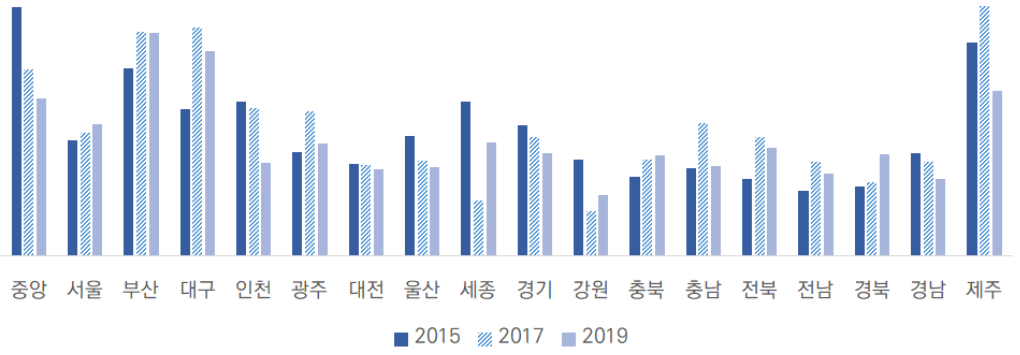
<표 4-66> 3개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금액 (2015-2019년, 각 년도 평균)

(단위: 원)

지회	2015년	2017년	2019년
중앙	324,400	242,315	205,666
서울	150,643	160,389	171,131
부산	243,984	292,553	290,544
대구	191,299	297,855	266,070
인천	200,395	193,109	121,524
광주	135,110	188,462	145,864
대전	120,305	118,617	112,203
울산	156,479	124,273	115,161
세종	200,663	72,346	147,421
경기	170,245	154,954	133,717
강원	124,870	57,939	78,843
충북	103,593	125,250	130,490
충남	113,614	172,798	116,677
전북	100,379	154,685	140,922
전남	85,595	122,783	106,936
경북	91,021	95,968	132,738
경남	133,709	122,228	100,621
제주	278,094	325,543	214,627
전체	154,412	149,742	142,178

3개년 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평균 기부금액 추이를 보면, 전체 감소 추이와 유사하게 중앙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지회의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서울, 충북, 경북 지회의 평균 기부금액은 3개년 간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한편,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지회는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평균 기부금액이 감소하였으며, 세종과 강원 지회는 이와는 반대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3개년 간 중앙과 부산, 대구, 제주 지회는 지속적으로 평균 기부금액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단위: 원)



[그림 4-22] 3개년도 지회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금액 추이 (2015-2019년)

제5장 지역별 나눔지수

제5장 지역별 나눔지수

제1절 지표별 기초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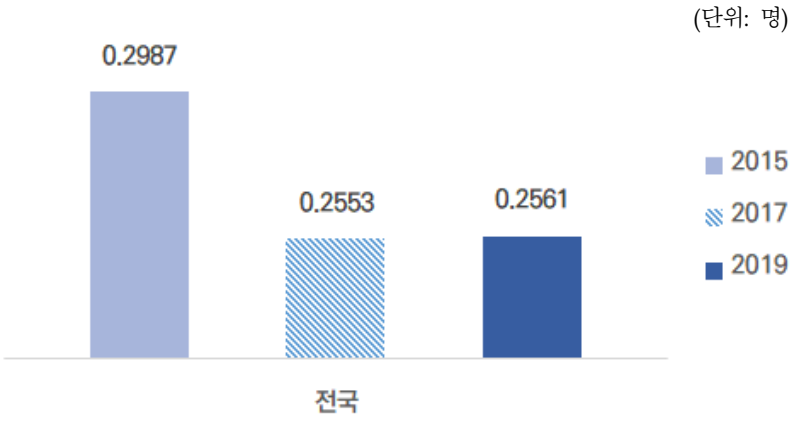
나눔지수 분석을 위해 우선 각 지표값들을 연도별, 지역별로 산출하였다. 지표값 간의 단위가 상이하므로 비교를 위해,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표준화 점수로 재환산하였다. 제1절에서는 각 지표를 구성하는 기초값[15]을 사용하여 연도별, 지역별 추이를 비교하였다. 이 때, 기초값이 소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원활한 해석 및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100명당', '100만명당'의 기준으로 재해석하여 서술하였다. 제2절의 경우, 환산한 표준화 점수를 지표별, 지역별로 제시하여 3개년도 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해당 표준화 점수를 근거로 최종 나눔지수를 산출하였다.

1. 핵심지표

가. 개인 현금 기부

우선, 핵심지표를 구성하는 첫 번째 항목은 '개인 현금 기부'로, '인구 수 대비 기부자 수'로 조작화한 값이다. [그림 5-1]은 3개년도(2015, 2017, 2019) 전국 인구 수 대비 기부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9년 우리나라 인구 수 대비 기부자 수는 0.2561명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00명당 25.6명, 즉 국민의 25.6%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2017년 25.5%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편이긴 하나, 29.9%를 기록한 2015년과 비교하면 기부 참여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15) 기초값: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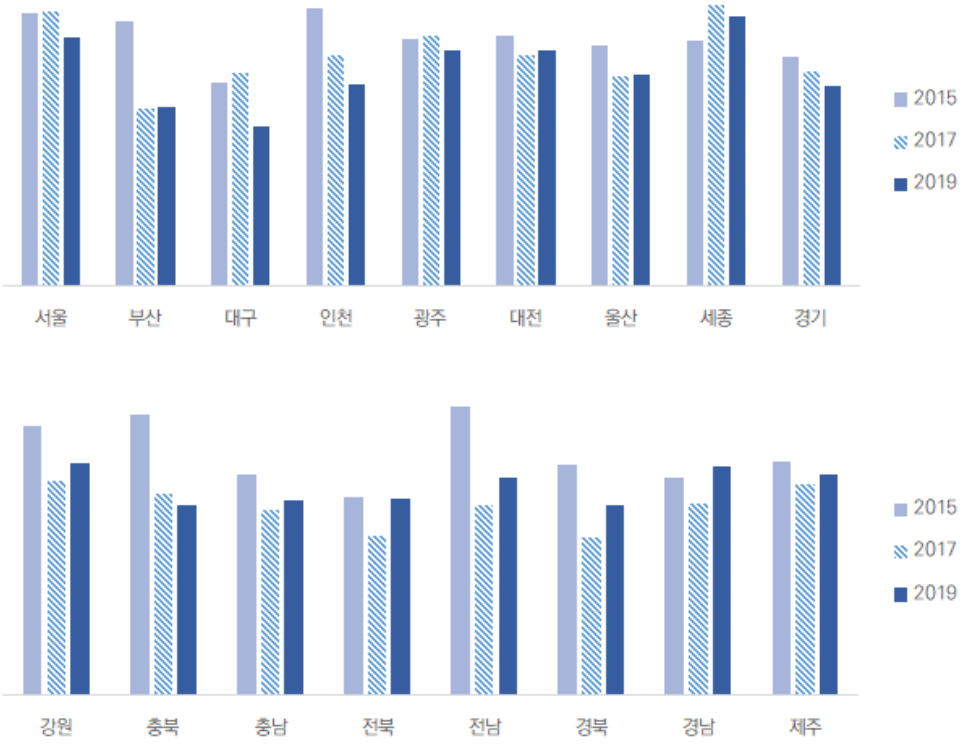
[그림 5-1] 3개년도 전국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 추이 (2015-2019년)

<표 5-1>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 (2015-2019년)

(단위: 명)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서울	0.3314	0.3336	0.3008	강원	0.3276	0.2620	0.2832
부산	0.3210	0.2142	0.2161	충북	0.3425	0.2464	0.2312
대구	0.2464	0.2585	**0.1926**	충남	0.2696	0.2267	0.2369
인천	0.3369	0.2797	0.2437	전북	0.2410	0.1947	0.2394
광주	0.3006	0.3036	0.2861	전남	0.3509	0.2308	0.2651
대전	0.3042	0.2808	0.2858	경북	0.2817	0.1918	0.2325
울산	0.2921	0.2544	0.2563	경남	0.2644	0.2344	0.2781
세종	0.2970	0.3417	**0.3276**	제주	0.2840	0.2566	0.2684
경기	0.2770	0.2605	0.2422	**전국**	**0.2987**	**0.2553**	**0.2561**

<표 5-1>은 3개년도(2015, 2017, 2019)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를 정리한 표로, 지역별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을 [그림 5-2]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2019년 기준,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0.3276명을 기록한 세종이었다. 세종 지역 인구의 32.8%가 개인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30.1%를 기록한 서울(0.3008명)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인구 수 대비 기부자 수가 0.1926명으로 나타나 대구 인구의 19.3%만이 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세종의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는 대구의 1.7배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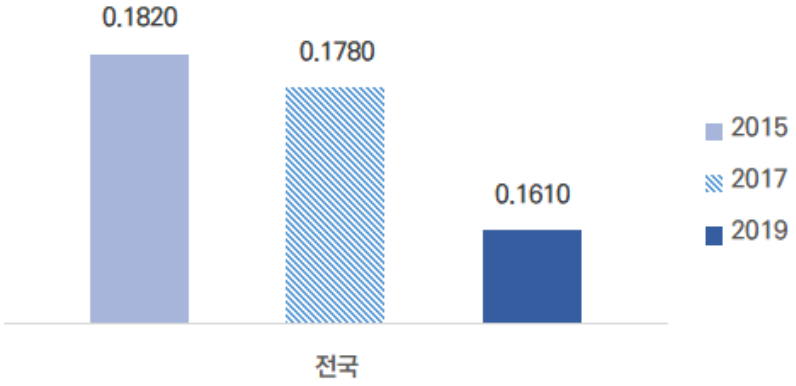
[그림 5-2]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 추이 (2015-2019년)

지역별 개인 기부자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그리고 제주 지역의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는 감소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대구, 광주, 세종 지역의 경우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천, 경기, 충북은 3개년도 연속 인구 수 대비 개인 기부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개인 자원봉사

다음으로 '인구 수 대비 자원봉사자 수'로 조작화된 '개인 자원봉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3]은 3개년도(2015, 2017, 2019) 전국 인구 수 대비 자원봉사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9년 우리나라 인구 수 대비 자원봉사자 수는 0.1610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00명당 16.1명, 다시 말해 국민의 16.1%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는 2015년 0.1820명, 2017년 0.1780명을 기록하여, 3개년도(2015, 2017, 2019)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그림 5-3] 3개년도 전국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 추이 (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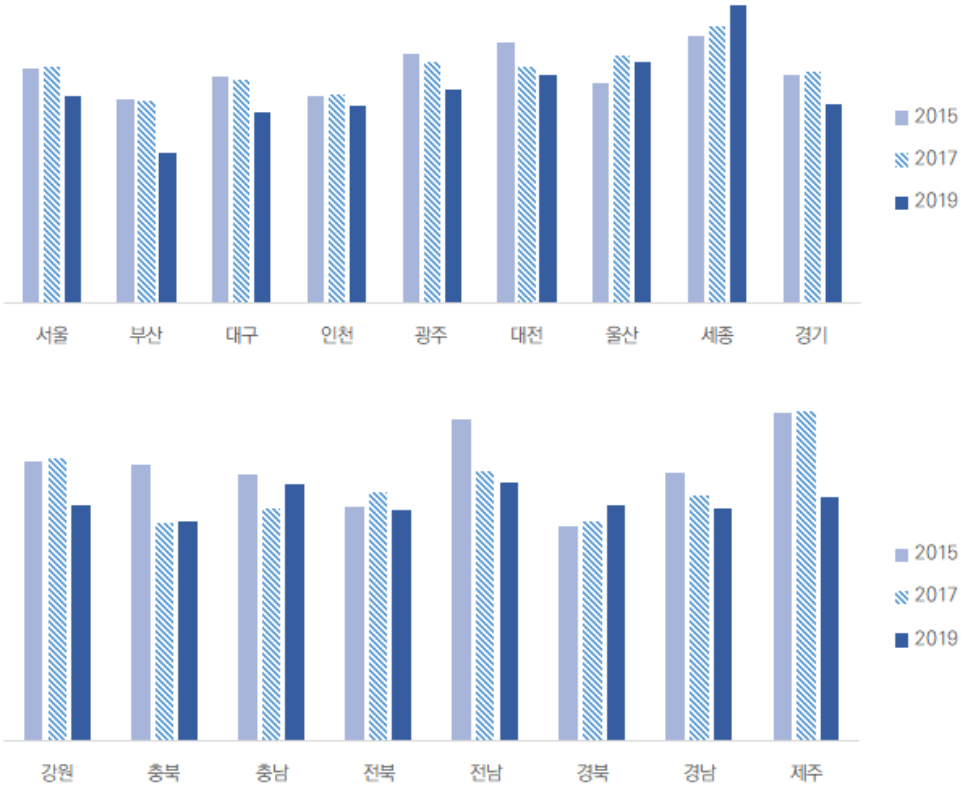
3개년도(2015, 2017, 2019)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는 <표 5-2>에 제시하였으며,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는 [그림 5-4]에 나타내었다. 2019년 기준,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0.2270명을 기록한 세종이었다. 세종은 2019년 '인구 수 대비 기부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지역으로,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 또한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세종 지역 인구의 22.7%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19.6%를 기록한 전남(0.1960명)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0.1140명을 나타낸 부산으로, 부산 인구의 11.4%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의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는 부산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 (2015-2019년)

(단위: 명)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서울	0.1790	0.1800	0.1580	강원	0.2120	0.2150	0.1790
부산	0.1550	0.1540	**0.1140**	충북	0.2100	0.1660	0.1670
대구	0.1720	0.1700	0.1450	충남	0.2020	0.1770	0.1950
인천	0.1580	0.1590	0.1500	전북	0.1780	0.1890	0.1750
광주	0.1890	0.1840	0.1630	전남	0.2440	0.2050	0.1960
대전	0.1980	0.1800	0.1730	경북	0.1630	0.1670	0.1790
울산	0.1680	0.1880	0.1840	경남	0.2040	0.1860	0.1770
세종	0.2030	0.2110	**0.2270**	제주	0.2490	0.2580	0.1850
경기	0.1730	0.1760	0.1510	**전국**	**0.1820**	**0.1780**	**0.1610**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의 연도별 추이는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우선,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지역은, 서울,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지역이었다. 반면, 2017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지역은 충북, 충남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경남 지역은 3개년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세종, 경북은 인구 수 대비 자원봉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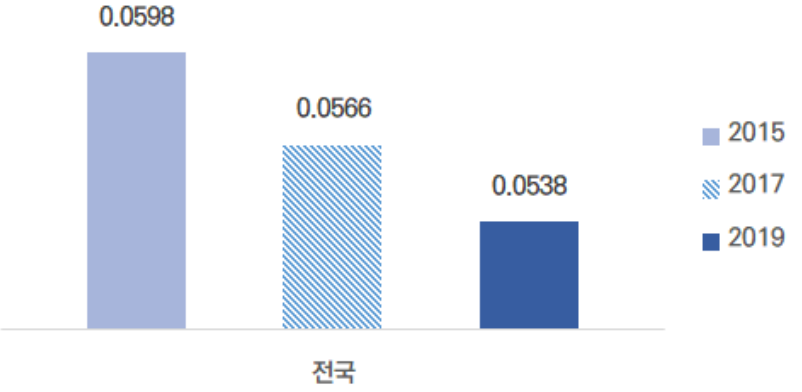
[그림 5-4]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개인 자원봉사자 수 추이 (2015-2019년)

2. 확대지표

가. 헌혈

다음으로, 확대지표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헌혈'은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로 조작화한 값이다. [그림 5-5]는 3개년도(2015, 2017, 2019) 전국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9년 우리나라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는 0.0538건으로 나타나 100명당 약 5.4건의 헌혈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는 2015년 0.0598건(100명당 6.0건), 2017년 0.0566건(100명당 5.7건)으로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단위: 건)



[그림 5-5] 3개년도 전국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 추이 (2015-2019년)

<표 5-3>에는 3개년도(2015, 2017, 2019) 지역별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를 정리하였으며, 지역별 추이 확인을 위해 동일 내용을 [그림 5-6]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2019년 기준, 인구 수 대비 헌혈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0.1088건으로 나타난 대전이었다. 대전 지역 인구 100명당 10.9건의 헌혈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개년도간 지속적으로 높은 헌혈 건수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강원(0.996건)과 광주(0.0983건)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0.0160건)로, 2019년 100명당 1.6건의 헌혈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3개년도간 헌혈 건수가 지속적으로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전 지역의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는 경기 지역의 6.8배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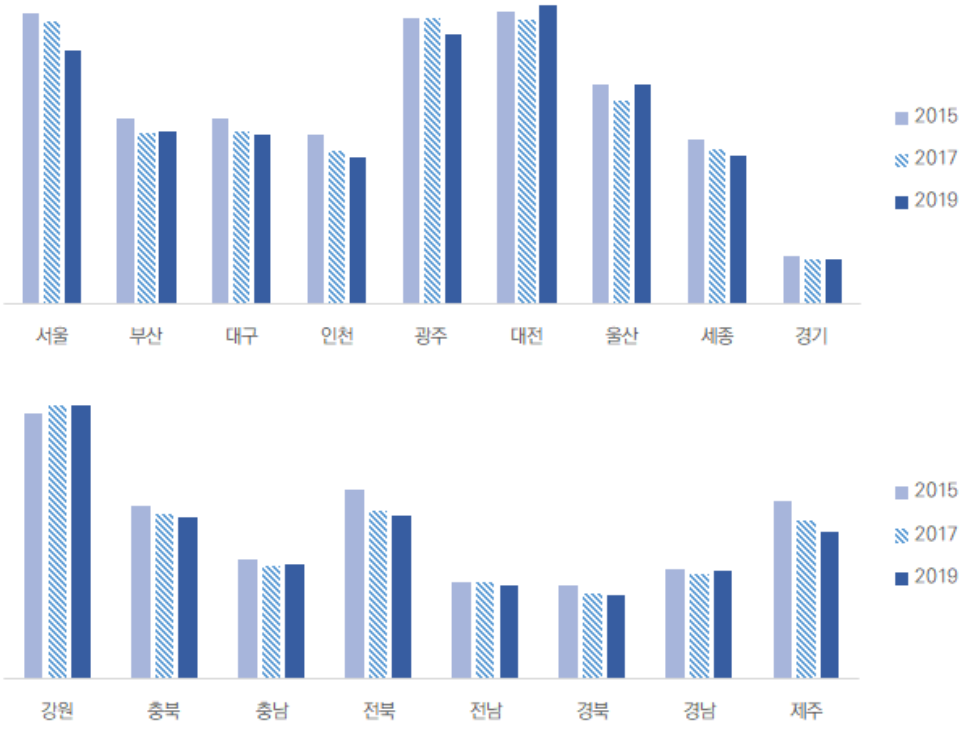
<표 5-3>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 (2015-2019년)

(단위: 건)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서울	0.1060	0.1030	0.0926	강원	0.0967	0.1000	0.0996
부산	0.0677	0.0620	0.0626	충북	0.0629	0.0600	0.0589
대구	0.0678	0.0630	0.0618	충남	0.0434	0.0410	0.0421
인천	0.0619	0.0555	0.0536	전북	0.0689	0.0616	0.0599
광주	0.1043	0.1043	0.0983	전남	0.0356	0.0357	0.0339
대전	0.1065	0.1037	**0.1088**	경북	0.0339	0.0315	0.0307
울산	0.0801	0.0743	0.0800	경남	0.0403	0.0386	0.0395
세종	0.0598	0.0566	0.0538	제주	0.0651	0.0575	0.0536
경기	0.0175	0.0164	**0.0160**	**전국**	**0.0598**	**0.0566**	**0.0538**

주1) 현혈통계연보상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지역, 가령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의 경우는 2019년도 해당지역 헌혈의 집 헌혈건수를 근거로 산출한 구성비(%)를 적용하여 임의로 구분
주2) 세종의 경우 헌혈실적을 도출할 근거가 부재하여 전국값으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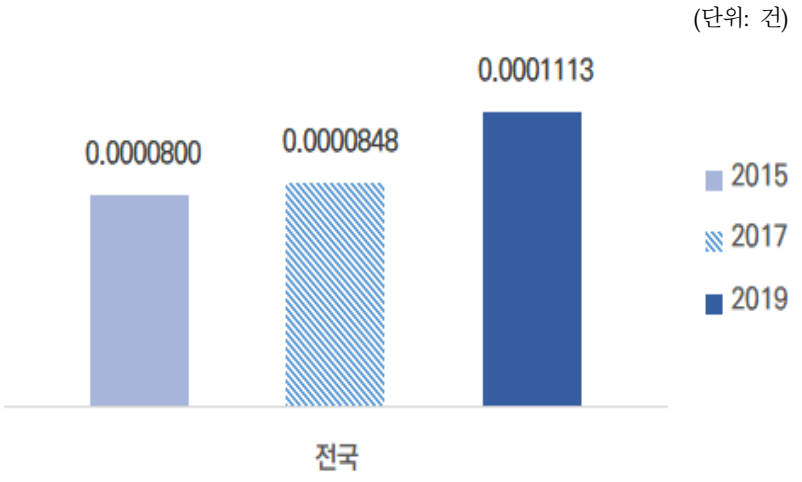
[그림 5-6]에서 3개년도 지역별 헌혈 건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국 추이와 유사하게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확인하였으며, 광주 지역은 유지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지역은 2015년에 비해 2017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대로 강원과 전남 지역은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지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5-6]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헌혈 건수 추이 (2015-2019년)

나. 장기기증

마지막으로, '장기기증'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기증은 확대지표의 구성 항목으로,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로 산출하였다. 3개년도(2015, 2017, 2019) 전국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를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5-7]에 제시하였다. 2019년 우리나라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는 0.0001113건으로, 100만명당 111.3건의 장기등 이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0.0000800건(100만명당 80건), 2017년 0.0000848건(100만명당 84.8건)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장기등 이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 2019년 장기등 이식건수가 상승한 이유로는 장기이식법 시행령('18.8.9.) 개정으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말초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7] 3개년도 전국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 추이 (2015-2019년)

3개년도(2015, 2017, 2019) 지역별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를 정리한 표는 <표 5-4>와 같다. 지역별 추이 확인을 위해 동일 내용을 [그림 5-8]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2019년 기준,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0.0003828건)으로 나타나, 서울 인구 100만명당 382.8건의 장기등 이식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지역은 3개년도간 지속적으로 높은 건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해당 데이터가 의료기관 지역 기준으로 수집되어, 의료기관이 많은 서울의 값이 높게 산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16].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대구(0.0001579건)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0.0000050건)으로, 2019년 100만명당 5건의 장기등 이식이 진행되었으며, 3개년도간 장기등 이식건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서울 지역의 장기등 이식건수는 충북 지역보다 76.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장기등 이식건수의 최소-최대의 격차가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 『2019 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이식의료기관은 전국 112개소이며, 그 중 서울소재의 의료기관은 33개소로, 전체의 2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 (2015-2019년)

(단위: 건)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서울	0.0002506	0.0002682	**0.0003828**	강원	0.0000342	0.0000303	0.0000350
부산	0.0000746	0.0000838	0.0000946	충북	0.0000013	0.0000031	**0.0000050**
대구	0.0001415	0.0001410	0.0001579	충남	0.0000144	0.0000246	0.0000245
인천	0.0000362	0.0000451	0.0000426	전북	0.0000305	0.0000264	0.0000181
광주	0.0000632	0.0000704	0.0000549	전남	0.0000241	0.0000185	0.0000433
대전	0.0000474	0.0000346	0.0000603	경북	0.0000800	0.0000848	0.0001113
울산	0.0000537	0.0000541	0.0000636	경남	0.0000291	0.0000257	0.0000461
세종	0.0000800	0.0000848	0.0001113	제주	0.0000128	0.0000091	0.0000134
경기	0.0000295	0.0000367	0.0000437	**전국**	**0.0000800**	**0.0000848**	**0.0001113**

주1) 의료기관 지역 기준
주2) 세종과 경북의 경우 전국값으로 대체

지역별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 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구, 대전,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은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인천과 광주, 충남 지역의 경우, 2017년에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북 지역의 경우, 3개년도 간 지속적으로 지역별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전북 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5-8] 3개년도 지역별 인구 수 대비 장기등 이식건수 추이 (2015-2019년)

제2절 지표의 표준화 결과

제1절에 제시된 각 기초값들은 서로 상이한 단위와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를 위해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값을 활용하여 해당 지표 및 연도별로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인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각 년도 및 각 지표의 전국 평균은 100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때, 특정 연도의 특정 지역 표준화 점수를 해당 연도의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령, 특정 지역의 표준화 점수가 100을 넘는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고,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지역별 표준화 점수를 그래프로 보여줌으로써 각 지역의 지표 항목이 전국 평균(100) 이상인지 혹은 미만인지 직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표별 표준화 점수를 간략하게 설명한 후, 표준화 점수를 지역별로 제시한 후 내용을 서술하였다. 지역별 표준화 점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1. 지표별 표준화 점수

3개년도 지역별-지표별 표준화 점수는 <표 5-5>에 제시하였다. 제1절에 서술하였듯, 헌혈 항목의 경우 세종이, 장기등 이식건수의 경우 세종과 경북이 전국값으로 대체되었다. 3개년 간 표준화 점수의 추이는 앞서 살펴본 기초값의 추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후술될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의 본문은 표준화 점수를 2019년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지역 간 상대적 순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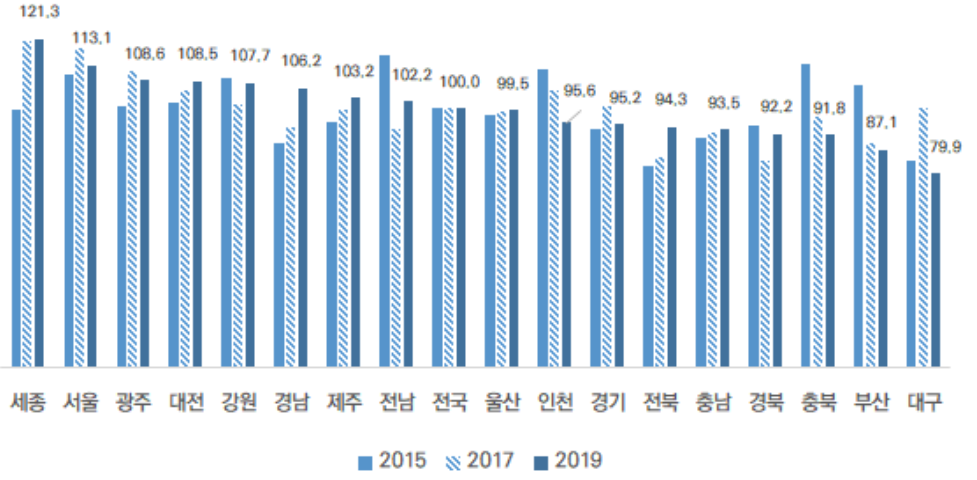
<표 5-5> 3개년도 지역별-지표별 표준화 점수 (2015-2019년)

2015년					2017년					2019년				
지역	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지역	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지역	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서울	110.3	95.3	114.9	**131.8**	서울	118.7	97.5	114.9	**132.2**	서울	113.1	94.3	111.6	**134.3**
부산	107.1	86.3	100.6	103.0	부산	89.5	86.8	99.6	103.9	부산	87.1	76.1	100.2	102.5
대구	83.9	92.7	100.6	113.9	대구	100.4	93.3	100.0	112.7	대구	79.9	89.0	99.9	109.5
인천	112.0	87.4	98.4	96.7	인천	105.5	88.8	97.2	98.0	인천	95.6	91.0	96.8	96.7
광주	100.8	99.0	114.3	101.1	광주	111.4	99.1	**115.4**	101.9	광주	108.6	96.4	113.8	98.1
대전	101.9	102.4	**115.1**	98.6	대전	105.8	97.5	115.2	96.4	대전	108.5	100.6	**117.7**	98.7
울산	98.1	91.2	105.2	99.6	울산	99.3	100.7	104.2	99.4	울산	99.5	105.1	106.8	99.0
세종	99.7	104.3	100.0	100.0	세종	**120.7**	110.2	100.0	100.0	세종	**121.3**	**122.9**	100.0	100.0
경기	93.4	93.0	81.7	95.6	경기	100.8	95.8	82.6	96.7	경기	95.2	91.4	82.5	96.8
강원	109.1	107.6	111.4	96.4	강원	101.2	111.9	113.8	95.7	강원	107.7	103.0	114.3	95.9
충북	113.8	106.9	98.8	91.0	충북	97.4	91.7	98.9	91.6	충북	91.8	98.1	98.8	92.5
충남	91.1	103.9	91.5	93.2	충남	92.6	96.2	91.8	94.9	충남	93.5	109.7	92.5	94.7
전북	82.3	94.9	101.0	95.8	전북	84.8	101.2	99.5	95.1	전북	94.3	101.4	99.2	94.0
전남	**116.4**	119.6	88.5	94.8	전남	93.6	107.7	89.8	93.9	전남	102.2	110.1	89.4	96.8
경북	94.9	89.3	87.9	100.0	경북	84.1	92.1	88.3	100.0	경북	92.2	103.0	88.1	100.0
경남	89.5	104.6	90.3	95.6	경남	94.5	99.9	90.9	95.0	경남	106.2	102.2	91.5	97.1
제주	95.6	**121.5**	99.6	92.9	제주	99.9	**129.5**	98.0	92.5	제주	103.2	105.5	96.8	93.5
전국	**100.0**	**100.0**	**100.0**	**100.0**	**전국**	**100.0**	**100.0**	**100.0**	**100.0**	**전국**	**100.0**	**100.0**	**100.0**	**100.0**

가. 핵심지표

1) 개인 현금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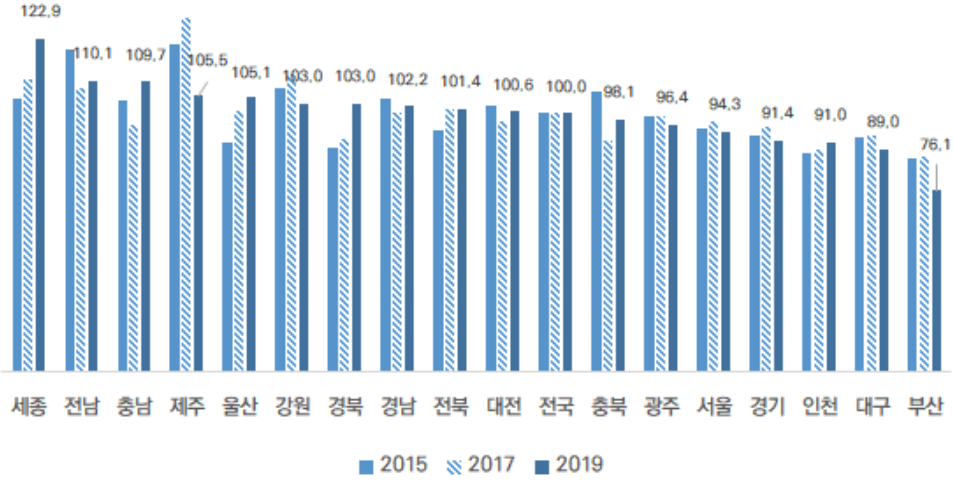
핵심지표의 첫 번째 항목인 개인 현금 기부의 표준화 점수 추이는 [그림 5-9]에 나타내었다. 2019년 기준, 전국값(100.0)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지역은 8개 지역으로, 세종(121.3), 서울(113.1), 광주(108.6), 대전(108.5) 순으로 개인 현금 기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개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구(79.9)가 가장 낮았고, 이어서 부산(87.1), 충북(91.8), 경북(92.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도별 추이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5-9] 3개년도 개인 현금기부 표준화 점수 추이 (2015-2019년)

2) 개인 자원봉사

[그림 5-10]은 핵심지표의 두 번째 항목인 개인 자원봉사의 표준화 점수 추이 그래프이다. 2019년 기준, 전국(100.0)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지역은 10개 지역으로, 세종(122.9), 전남(110.1), 충남(109.7), 제주(105.5) 순으로 개인 자원봉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7개로 나타났다. 부산(76.1)이 가장 낮았으며, 이어서 대구(89.0), 인천(91.0), 경기(91.4)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또한, 연도별 추이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전국 평균 이상 지역의 경우 연도별 변화 폭이 큰 반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대체로 변화 폭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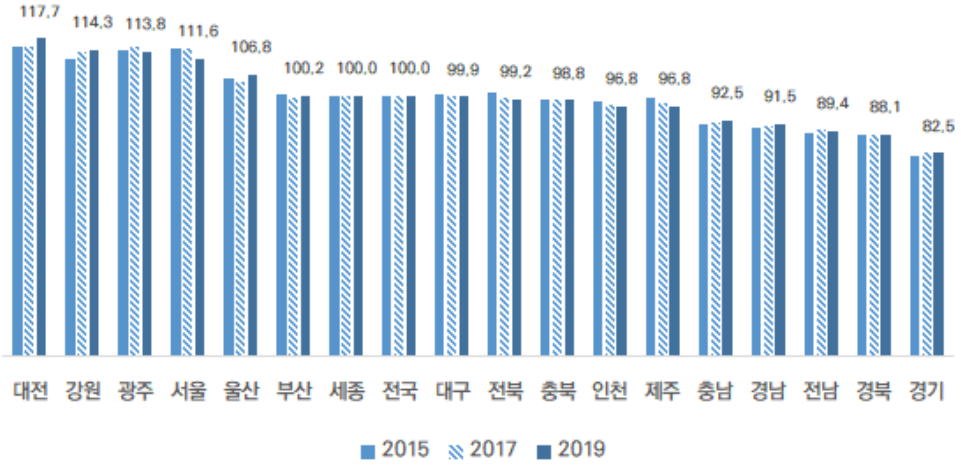


[그림 5-10] 3개년도 개인 자원봉사 표준화 점수 추이 (2015-2019년)

나. 확대지표

1) 헌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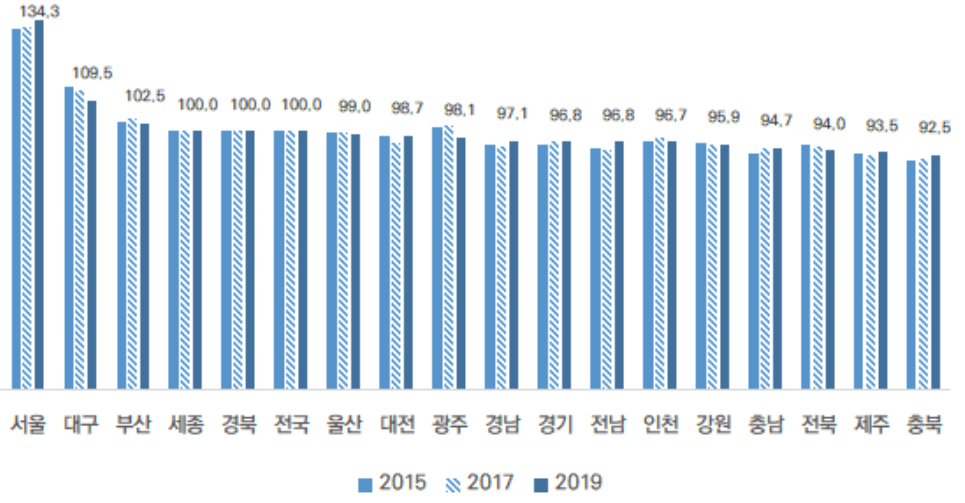
확대지표의 첫 번째 항목인 헌혈의 표준화 점수 추이는 [그림 5-11]에 나타내었다. 2019년 기준, 전국(100.0)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지역은 7개 지역으로, 대전(117.7), 강원(114.3), 광주(113.8), 서울(111.6) 순으로 헌혈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지역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유지하였다. 한편, 10개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경기(82.5)가 가장 낮았고, 이어서 경북(88.1), 전남(89.4), 경남(91.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연도별 추이는 다양하였으나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완만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5-11] 3개년도 헌혈 표준화 점수 추이 (2015-2019년)

2) 장기기증

[그림 5-12]에는 확대지표의 두 번째 항목인 장기기증의 표준화 점수 추이를 제시하였다. 2019년 기준, 전국값(100.0)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지역은 3개 지역으로[17], 서울(134.3), 대구(109.5), 부산(102.5) 순으로 개인 자원봉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유지하였으며, 다른 지역과의 차이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2개 지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92.5)이 가장 낮았으며, 이어서 제주(93.5), 전북(94.0), 충남(94.7)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또한 헌혈 표준화 점수 추이와 유사하게, 지역별로 연도별 추이는 다양하였으나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완만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5-12] 3개년도 장기기증 표준화 점수 추이 (2015-2019년)

17) 세종과 경북은 전국 값을 대입한 것이므로 설명 시 제외하였다.

2. 지역별 표준화 점수

가. 서울

2019년 서울 지역의 지표 항목별 표준화점수를 살펴보면, 장기기증(134.3)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18],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 현금기부(113.1)와 헌혈(111.6)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개인 자원봉사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5-13]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서울 (2019년)

18) 지역별 표준화 점수 서술시, [표 5-5]를 참고하여 각 지역의 상대적 순위 또한 함께 서술하였다.

나. 부산

2019년 부산의 경우, 확대지표 항목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고, 핵심지표 항목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여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확대지표인 장기기증(102.5)과 헌혈(100.2)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핵심지표인 개인 현금기부(87.1)와 개인 자원봉사(76.1)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 자원봉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5-14]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부산 (2019년)

다. 대구

2019년 대구 지역은 확대지표인 장기기증(109.5)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이외 지표 항목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혈(99.9)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크지 않은 차이였으며, 핵심지표인 개인 현금기부(79.9)와 개인 자원봉사(89.0)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현금기부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개인 자원봉사 또한 부산 다음으로 가장 낮은 점수였다.

[그림 5-15]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대구 (2019년)

라. 인천

2019년 인천 지역의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는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현금기부(95.6), 장기기증(96.7), 헌혈(96.8)은 비슷한 점수로 나타났으며, 개인 자원봉사(91.0)는 타 항목에 비해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인천 지역의 표준화 점수 그래프는 타 지역에 비해 정사각형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다.

[그림 5-16]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인천 (2019년)

마. 광주

2019년 기준, 광주 지역의 경우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그래프가 세로로 긴 마름모 분포를 보였다. 개인 현금기부(108.6)와 헌혈(113.8)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개인 자원봉사(96.4)와 장기기증(98.1)은 전국 평균을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7]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광주 (2019년)

바. 대전

2019년 대전 지역의 경우, 광주와 유사하게 세로로 긴 마름모 분포로 나타났다. 개인 현금기부(108.5), 개인 자원봉사(100.6), 헌혈(117.7)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표준화 점수를 보였다. 특히 헌혈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기증(98.7)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크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그림 5-18]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대전 (2019년)

사. 울산

2019년 울산 지역 표준화 점수는 대전 지역과 유사하게 전국 평균 근처에서 정사각형으로 수렴하는 분포를 보였다. 개인 자원봉사(105.1)와 헌혈(106.8)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현금기부(99.5)와 장기기증(99.0)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림 5-19]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울산 (2019년)

아. 세종

2019년 세종 지역의 경우, 핵심지표 항목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 현금기부(121.3)와 개인 자원봉사(122.9) 모두 전국 최고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과의 차이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헌혈과 장기기증의 경우, 기초값이 부재하여 전국값으로 대체하였으므로 100점을 기록하였다.

[그림 5-20]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세종 (2019년)

자. 경기

2019년 경기 지역의 표준화 점수는 모든 지표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96.8), 개인 현금기부(95.2), 개인 자원봉사(91.4), 헌혈(82.5)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특히 헌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며 다른 지역과 차이를 크게 보였다.

[그림 5-21]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경기 (2019년)

차. 강원

2019년도 강원 지역의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를 살펴보면, 핵심지표와 헌혈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장기기증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현금기부(107.7), 개인 자원봉사(103.0), 헌혈(114.3)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헌혈의 경우 대전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한편, 장기기증(95.9)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림 5-22]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강원 (2019년)

카. 충북

2019년 충북 지역은 대전 및 울산 지역과 유사하게 정사각형으로 분포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지표 항목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기증(92.5)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개인 현금기부(91.8) 또한 대구, 부산 다음으로 가장 낮은 점수임을 확인하였다. 개인 자원봉사(98.1)와 헌혈(98.8)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림 5-23]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충북 (2019년)

타. 충남

2019년 충남 지역의 경우, 개인 자원봉사를 제외한 다른 지표 항목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자원봉사(109.7)는 세종,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개인 현금기부(93.5), 헌혈(92.5), 장기기증(94.7)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4]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충남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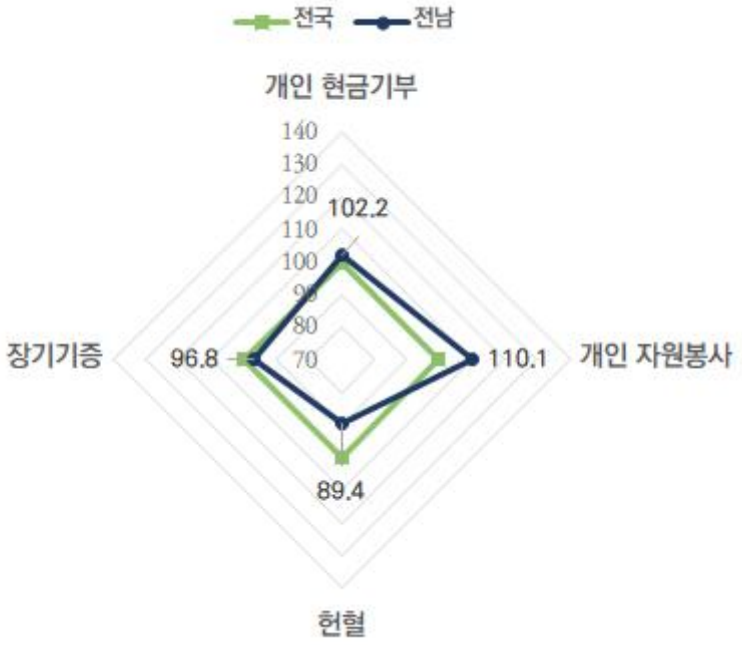
파. 전북

2019년 전북 지역의 항목별 표준화 점수는 정사각형 분포를 나타냈으며, 개인 자원봉사를 제외한 다른 지표 항목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자원봉사(101.4)는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였으나, 개인 현금기부(94.3), 헌혈(99.2), 장기기증(94.0)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장기기증의 경우, 충북과 제주 다음으로 가장 낮은 점수였다.

[그림 5-25]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전북 (2019년)

하. 전남

전남 지역의 2019년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를 살펴보면, 핵심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확대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 현금기부(102.2)와 개인 자원봉사(110.1)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헌혈(89.4)과 장기기증(96.8)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개인 자원봉사 항목은 세종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5-26]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전남 (2019년)

거. 경북

2019년 경북 지역의 경우, 개인 자원봉사(103.0)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개인 현금기부(92.2)와 헌혈(88.1)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헌혈은 경기 다음으로 전국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장기기증의 경우, 전국값으로 대체되어 100점으로 기록되었다.

[그림 5-27]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경북 (2019년)

너. 경남

경남 지역의 2019년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를 살펴보면, 핵심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확대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 현금기부(106.2)와 개인 자원봉사(102.2)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헌혈(91.5)과 장기기증(97.1)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그림 5-28]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경남 (2019년)

더. 제주

2019년 제주 지역의 경우, 핵심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확대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지표에 속하는 개인 현금기부(103.2)와 개인 자원봉사(105.5)는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헌혈(96.8)과 장기기증(93.5)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기증 항목은 충북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5-29] 지표 항목별 표준화 점수 - 제주 (2019년)

제3절 나눔지수 도출 결과

본 절에서는 2019년 지역별 지수 및 순위를 살펴본 후, 지수별로 3개년도 지역별-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눔지수는 핵심지수와 확대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지수에는 개인 현금기부와 개인 자원봉사가, 확대지수에는 헌혈과 장기기증이 포함되었다.

2019년 지수도출 결과는 <표 5-6>에 제시하였다. 2019년 전국 평균 나눔지수(100)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총 9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세종(114.8), 서울(110.1), 대전(105.8), 강원(105.3), 광주(103.6), 울산(102.5), 전남(101.8), 제주(101.3), 경남(10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8개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나눔지수를 기록하였다. 부산(88.2)이 가장 낮았으며, 대구(91.2), 경기(92.1), 인천(94.5), 충북(95.2), 경북(96.4), 전북(97.4), 충남(98.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핵심지수는 세종(122.1), 전남(106.1), 강원(105.4), 대전(104.5), 제주(104.4), 경남(104.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이 81.6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확대지수는 서울(123.0), 대전(108.2), 광주(105.9), 강원(105.1), 대구(104.7), 울산(102.9) 순으로 높았으며, 경기(89.7)의 확대지수가 가장 낮음을 확인하였다.

<표 5-6> 2019년 나눔지수

구분	핵심지수	순위	확대지수	순위	나눔지수	순위
서울	103.7	7	**123.0**	**1**	110.1	2
부산	**81.6**	**17**	101.3	7	**88.2**	**17**
대구	84.4	16	104.7	5	91.2	16
인천	93.3	14	96.8	9	94.5	14
광주	102.5	8	105.9	3	103.6	5
대전	104.5	4	108.2	2	105.8	3
울산	102.3	9	102.9	6	102.5	6
세종	**122.1**	**1**	100.0	8	**114.8**	**1**
경기	93.3	15	**89.7**	**17**	92.1	15
강원	105.4	3	105.1	4	105.3	4
충북	94.9	13	95.7	11	95.2	13
충남	101.6	10	93.6	15	98.9	10
전북	97.8	11	96.6	10	97.4	11
전남	106.1	2	93.1	16	101.8	7
경북	97.6	12	94.1	14	96.4	12
경남	104.2	6	94.3	13	100.9	9
제주	104.4	5	95.1	12	101.3	8
전국	**100**		**100**		**100**	

1. 핵심지수

핵심지수의 지역별-연도별 점수 및 순위는 <표 5-7>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각 년도 순위 비교를 통해 대전, 세종, 강원, 전북, 경남 지역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종은 2017년과 2019년 연속하여 가장 높은 점수 및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인천 두 지역은 3개년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해당 지역의 빈곤 심각성과 연결하여 추측할 수 있다.

빈곤지수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우선 지역을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은 노인빈곤, 여성빈곤, 장애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고, 세종은 빈곤 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소영 외, 2019).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지수 점수 및 순위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상황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19] 이를 고려한다면, 핵심지수가 높게 분석된 세종 지역은 높은 기부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개인 기부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나눔/모금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3개년도 기간 동안 핵심지수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확인된 부산, 인천 지역의 경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필요성은 높은 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민간 자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나눔 확대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개인 기부와 자원봉사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해당 지역의 나눔 총량을 확대하기 위한 1차적 전략으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확대 및 강화에 초점을 두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9) 단편적인 예로, 기부자 만족도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부를 중단한 이유 중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

<표 5-7> 3개년도 지역별-연도별 핵심지수 (2015-2019년)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102.8	5	108.1	3	103.7	7
부산	96.7	12	88.2	16	**81.6**	**17**
대구	**88.3**	**17**	96.8	12	84.4	16
인천	99.7	9	97.2	11	93.3	14
광주	99.9	8	105.2	5	102.5	8
대전	102.1	6	101.6	6	104.5	4
울산	94.6	13	100.0	8	102.3	9
세종	102.0	7	**115.4**	**1**	**122.1**	**1**
경기	93.2	14	98.3	9	93.3	15
강원	108.4	4	106.5	4	105.4	3
충북	110.3	2	94.5	13	94.9	13
충남	97.5	10	94.4	14	101.6	10
전북	88.6	16	93.0	15	97.8	11
전남	**118.0**	**1**	100.7	7	106.1	2
경북	92.1	15	**88.1**	**17**	97.6	12
경남	97.1	11	97.2	10	104.2	6
제주	108.5	3	114.7	2	104.4	5
전국	**100**		**100**		**100**	

2. 확대지수

3개년도 지역별-연도별 확대지수는 <표 5-8>에 제시하였다. 각 년도 순위를 기준으로, 확대지수는 핵심지수에 비해 추이 변화 및 순위 변동이 크지 않았다. 이는 지역별로 순위 하락 또는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3개년 간 유사한 순위였음을 의미한다. 서울은 3개년 연속하여 가장 높은 점수 및 순위를 기록한 반면 경기 지역은 3개년 연속 가장 낮은 점수와 순위를 나타내었다. 이는 헌혈과 장기기증이 특정 기관(헌혈의 집, 장기기증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5-8> 3개년도 지역별-연도별 확대지수 (2015-2019년)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123.4	1	123.5	1	123.0	1
부산	101.8	7	101.8	6	101.3	7
대구	107.3	3	106.4	3	104.7	5
인천	97.6	10	97.6	9	96.8	9
광주	107.7	2	108.6	2	105.9	3
대전	106.8	4	105.8	4	108.2	2
울산	102.4	6	101.8	7	102.9	6
세종	100.0	8	100.0	8	100.0	8
경기	88.7	17	89.7	17	89.7	17
강원	103.9	5	104.8	5	105.1	4
충북	94.9	12	95.2	12	95.7	11
충남	92.3	15	93.3	14	93.6	15
전북	98.4	9	97.3	10	96.6	10
전남	91.6	16	91.9	16	93.1	16
경북	93.9	13	94.1	13	94.1	14
경남	92.9	14	93.0	15	94.3	13
제주	96.3	11	95.2	11	95.1	12
전국	100		100		100	

3. 나눔지수

3개년도 지역별-연도별 나눔지수는 <표 5-9>에 나타내었다. 각 년도 순위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대전, 울산, 세종, 전북, 경남 지역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 부산, 인천 두 지역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나눔지수 순위 변동 및 추이는 핵심지수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20]. 서울 지역은 3년간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각 년도별 가장 낮은 순위 지역은 연도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5-9> 3개년도 지역별-연도별 나눔지수 (2015-2019년)

지역	2015년		2017년		2019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	**109.7**	**1**	**113.2**	**1**	110.1	2
부산	98.4	10	92.7	16	**88.2**	**17**
대구	94.6	14	100.0	8	91.2	16
인천	99.0	9	97.3	10	94.5	14
광주	102.5	7	106.4	4	103.6	5
대전	103.7	6	103.0	6	105.8	3
울산	97.2	11	100.6	7	102.5	6
세종	101.3	8	110.3	2	**114.8**	**1**
경기	**91.7**	**17**	95.4	12	92.1	15
강원	106.9	3	105.9	5	105.3	4
충북	105.2	4	94.8	13	95.2	13
충남	95.8	12	94.0	15	98.9	10
전북	91.9	16	94.4	14	97.4	11
전남	109.2	2	97.7	9	101.8	7
경북	92.7	15	**90.1**	**17**	96.4	12
경남	95.7	13	95.8	11	100.9	9
제주	104.5	5	108.2	3	101.3	8
전국	**100**		**100**		**100**	

20) 전술하였듯, 나눔지수 산출 시 핵심지수의 가중치가 확대지수 가중치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제6장 지역별 기부유형

제6장 지역별 기부유형

제1절 분석 결과

1. 기술 통계(2019년)

2019년도 기준 주요 변수의 전반적 특성을 <표 6-1>로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는 누락된 지역 없이 210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분석 결과변수인 기부율과 기부평균액, 기부변화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기부율의 최솟값은 111.5, 최댓값은 6.639이고 중위값은 1.118, 평균은 1.299(표준편차 9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평균액의 최솟값은 5,469원, 최댓값은 274,990원, 중위값은 27,348원, 평균 35,283원(표준편차 30,979원)으로 확인되었다. 전년대비 기부율의 변화로 정의되는 기부변화율의 최솟값은 -63.77%, 최댓값은 817.7%이고, 중위값은 6.254%, 평균 21.46%(표준편차 84.66)로 나타났다.

국세청 법인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한 모금기관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기관 수 최솟값은 0개, 최댓값은 33개였으며, 중위값은 3개이고, 평균 한 지역당 3.895개의 모금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평균 모금액으로 정의되는 기관평균규모의 경우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583억원, 중위값은 29,088,043원, 평균 5억 9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설명변수인 투표율, QOL, 출산율, 총인구수, 노령화 비율, 서비스업 비율, 빈곤율, 1인당 지역총생산의 지역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표율의 최솟값은 34.8%, 최댓값은 71.4%였으며, 중위값은 59.3%, 평균 59.04%(표준편차 5.313)로 나타났다. 지역 삶의 질의 최솟값은 0.929, 최댓값은 0.985, 중위값은 0.957, 평균 0.957(표준편차 0.01109)로 확인되었다. 출산율의 최솟값은 0.504명, 최댓값은 2.538명이었고

중위값은 1.024명, 평균 1.056명(0.281)이었다. 지역 총인구수의 최솟값은 9,556명, 최댓값은 784,035명이었고, 중위값 117,680명, 평균 187,548명(표준편차 164,248)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정의되는 노령화 비율은 최소 7.6%, 최대 39.9%였고, 중위값 19.35%, 평균 21.6%(표준편차 8.184)로 확인되었다. 제조업대비 서비스업 비율의 최솟값은 0.232%, 최댓값은 46.68%였고, 중위값은 2.186%, 평균값 4.278%(표준편차 5.916)였다. 지역의 기초수급대상자 비율(일반수급)로 정의되는 빈곤율의 최솟값은 1.137%, 최댓값은 8.075%, 중위값은 3.75%, 평균 3.667%(표준편차 1.26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인당 지역총생산의 최솟값 7.953, 최댓값 418.8, 중위값 29.24, 평균 40.53(표준편차 39.5)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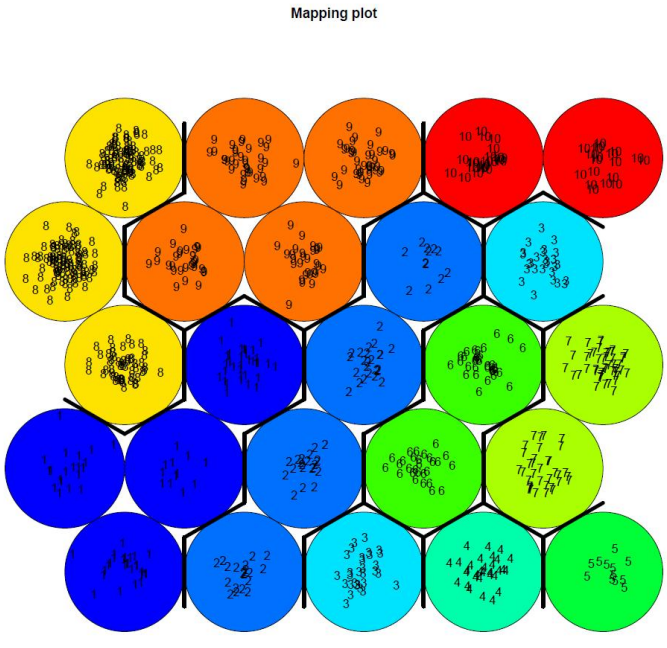
<표 6-1> 비교 지역의 전반적 특성(2019년)

	N	최솟값	최댓값	범위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S.E.	C.I. (95%)
기부율	210	111.5	6639	6528	1118	1299	914.9	63.13	124.5
기부평균액	210	5469	274990	269521	27348	35283	30979	2138	4214
기부변화율	210	-63.77	817.7	881.4	6.254	21.46	84.66	5.842	11.52
기관수	210	0	33	33	3	3.895	3.969	0.2739	0.5399
기관평균규모	210	0	5.83E+10	5.83E+10	29088043	5.9E+08	4.35E+09	3E+08	5.91E+08
투표율	210	34.8	71.4	36.6	59.3	59.1	5.313	0.367	0.723
QOL	210	0.929	0.985	0.056	0.957	0.957	0.01009	0.000697	0.001373
출산율	210	0.504	2.538	2.034	1.024	1.056	0.281	0.01937	0.03819
총인구	210	9556	784035	774479	117680	187548	164248	11334	22344
	N	최솟값	최댓값	범위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S.E.	C.I. (95%)

	N	최솟값	최댓값	범위	중위값	평균	표준 편차	S.E.	C.I. (95%)
노령화	210	7.6	39.9	32.3	19.65	21.6	8.184	0.5648	1.113
서비스 업비율	210	0.2317	46.68	46.45	2.186	4.278	5.916	0.4082	0.8047
빈곤율	210	1.137	8.075	6.939	3.75	3.667	1.268	0.0875	0.1725
(1인당) 지역총 생산	210	7.953	418.8	410.8	29.24	40.53	39.5	2.725	5.373

2. 지역 유형화 결과

아래 [그림 6-1]은 SOM 유형화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굵은 선은 유형을 나누는 경계선이며, 경계 내부에 원형 공간은 하위 분류로 볼 수 있다. 공간 내에서 케이스의 분포는 유형 번호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6-1] SOM 유형화 결과

아래 <표 6-2>는 지역 특성을 비교하기 쉽게 각 변수의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집단 평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기호로 제시한 것이다. 예컨대 +는 평균 이상 지역을, -는 평균 이하의 값을 갖는 지역을 나타낸다. 예컨대 +++는 상위 10%를 의미하며, =는 45~60%를, ---는 하위 10%를 의미한다. 분류된 10개의 유형에 대하여 그 유형화 명칭을 [그림 6-2]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6-2]의 지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V8)은 '농어촌형3(빈곤)'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빈곤율이 매우 높고, 출산률과 노령화 비율이 매우 높아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띄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V2)도 눈에 띄는데 이 지역은

충청도 일부,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에 위치한 중소형 도시 지역으로 삶의 질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므로 '중소형3(QOL)'이라고 명명하였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V5)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성시 등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총인구수가 많고, 서비스업 비율과 지역총생산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은 '밀집형4(인구/산업밀집)'로 명명하였다. 서울시 강남구 등은 인구수와 출산율, 노령화 비율이 낮고 총인구수와 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밀집형3(고소득)'지역으로 명명하였다. 이외에도 탈산업화 비율과 노령화 비율, 빈곤율 특징에 따라 V1을 '중소형2(노령/불평등)' 유형으로, V7을 '밀집형2(서비스)' 유형으로, V10을 '농어촌형1(경계)' 지역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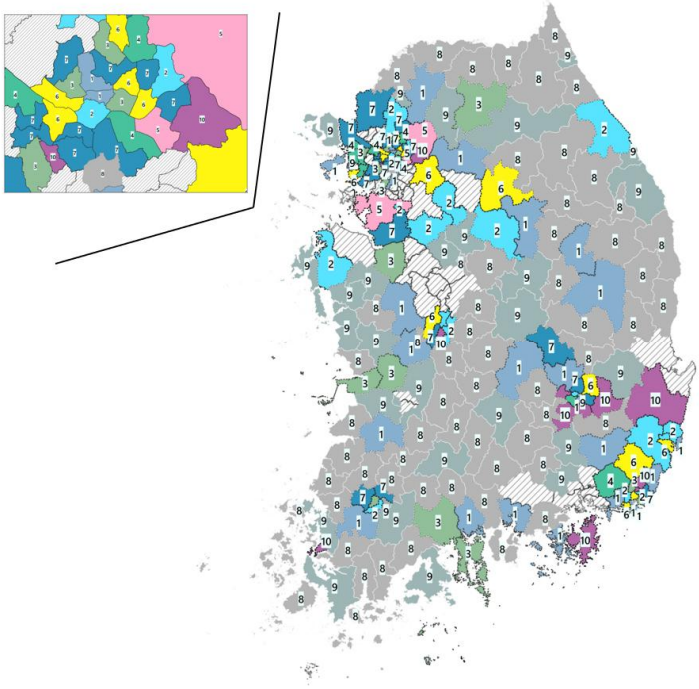
<표 6-2> 지역 특성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중소형2	중소형3	밀집형1	밀집형3	밀집형4	중소형1	밀집형2	농어촌형3	농어촌형2	농어촌형1
출산율	++	=	-	—	+	-	—	+++	++	-
총인구수	-	-	=	++	+++	+	++	—	—	-
노령화	++	-	=	—	—	-	-	+++	++	+
서비스업	—	-	=	++	++	+	+++	—	-	-
빈곤율	++	-	+	-	—	-	—	+++	++	=
(1인당) 지역총생산	+++	++	-	=	++	-	—	+	-	—
QOL	-	+++	-	=	-	++	—	+	—	++
투표율	-	—	++	-	-	+	=	+++	++	—

* 주 : +++ : upper 10%, = : 45~60%, --- : lower 10%

2019년 지역 유형화

Class	유형
1	중소형 2 (노령/불평등)
2	중소형 3 (QOL)
3	밀집형 1
4	밀집형 3 (고소득)
5	밀집형 4 (인구/산업밀집)
6	중소형 1
7	밀집형 2 (서비스)
8	농어촌형 3 (빈곤)
9	농어촌형 2
10	농어촌형 1 (경계)



[그림 6-2] 지역 유형 분포(2019년)

아래 <표 6-3>은 위에서 살펴본 집단 비교에서 활용된 원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농어촌형3(빈곤)'의 출산율이 모든 유형에 비해 가장 높고(1.30명), 노령화 비율이 가장 낮은 것(28.84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빈곤율은 4.00%로 모든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밀집형3(고소득)' 지역은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매우 낮고(0.98명), 노령화 비율도 낮은 편이며(11.67%), 서비스업 비율이 높고(6.94%), 지역총생산이 높은 것(36.27%)을 확인할 수 있다. '밀집형4(인구/산업밀집)' 지역의 경우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편이며(6.38%), 빈곤율이 모든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것(1.39%)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밀집형2(서비스)' 유형은 서비스업 비율이 9.2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고 출산율이 매우 낮은(0.96명) 특징이 있는데, 주로 거주하지 않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모여 있는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 6-3> 지역 유형별 속성 평균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중소형2	중소형3	밀집형1	밀집형3	밀집형4	중소형1	밀집형2	농어촌형3	농어촌형2	농어촌형1
출산율	1.12	1.09	1.04	0.98	1.11	0.99	0.96	1.30	1.19	1.09
총인구수	128,804	200,633	291,857	546,415	672,752	344,943	436,636	38,426	78,950	244,570
노령화	19.15	14.61	14.70	11.67	10.90	13.24	12.73	28.84	24.05	14.74
서비스업	3.04	4.33	5.04	6.94	6.38	5.44	9.27	3.18	3.73	4.51
빈곤율	3.74	2.72	3.06	2.96	1.39	2.43	2.41	4.00	3.94	2.98
(1인당) 지역총생산	61.19	40.11	33.78	36.27	43.83	31.34	25.44	38.53	33.90	30.76
QOL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투표율	57.02	56.46	59.69	56.95	57.07	58.03	57.95	61.37	60.16	55.68

아래 <표 6-4>는 앞에서 살펴본 지역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예시를 든 것이다. 각 지역별로 4-5개 유형의 예시를 들었으며 빈곤율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노령화 비율과 지역총생산이 높으면서 빈곤율도 역시 높은 수준인 '중소형2(노령/불평등)' 지역으로는 경기도 의왕시, 부산 강서구, 울산 동구, 서울 종로구, 전남 광양시 등의 대도시 지역이 확인되었다. 지역의 삶의 질이 매우 높은 수준인 '중소형3(QOL)' 지역으로는 울산 북구, 경기 오산시, 울산 울주군, 충남 서산시, 경기 이천시 등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이 높은 것이 특징인 '밀집형1' 지역으로는 서울 성동구, 경기 군포시, 경기 광명시, 서울 서대문, 충남 아산시 등이었다. 서비스업 비율이 매우 높은 고소득 지역인 '밀집형3(고소득)' 유형에는 서울 강남구, 인천 서구, 경남 김해시, 서울 강서구, 인천 남동구 등의 서울 지역이 확인되었다. 총인구수가 많고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밀집형4(인구/산업밀집)' 유형에는 경기 화성시, 서울 송파구,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시 등 산업단지들이 모여있는 경기도 지역들이 주로 나타났다. 지역의 삶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고, 인구수와 서비스업 비율도 다소 높은 지역인 '중소형1' 지역으로는 대전 유성구, 서울 마포구, 서울 영등포구, 울산 남구 등의 도심 지역들이 확인되었다. 서비스업 비율이 매우 높고 총인구수가 많은 특징을 가진 '밀집형2(서비스)' 유형의 지역으로는 서울 서초구,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서울 구로구, 경기도 시흥시 등 산업단지들이 다수 모여있는 지역들이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유형으로 출산율과 노령화 비율이 매우 높고, 빈곤율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농어촌 유형인 '농어촌형3(빈곤)' 지역으로는 경기 과천시, 충남 계룡시, 인천 옹진군, 충남 청양군, 강원 평창군 등이 확인되었다. '농어촌형3(빈곤)' 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출산율과 노령화 비율, 빈곤율이 모두 높으며 QOL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농어촌형2' 지역으로는 충북 진천군, 강원 홍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무안군, 충북 음성군 등의 농어촌 지역들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령화 비율이 다소 높으며 QOL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농어촌 지역인 '농어촌형1(경계)' 유형으로는 경기 하남시, 경남 거제시, 대구 달성군, 부산 동래구, 경북 경산시 등 소도시 지역들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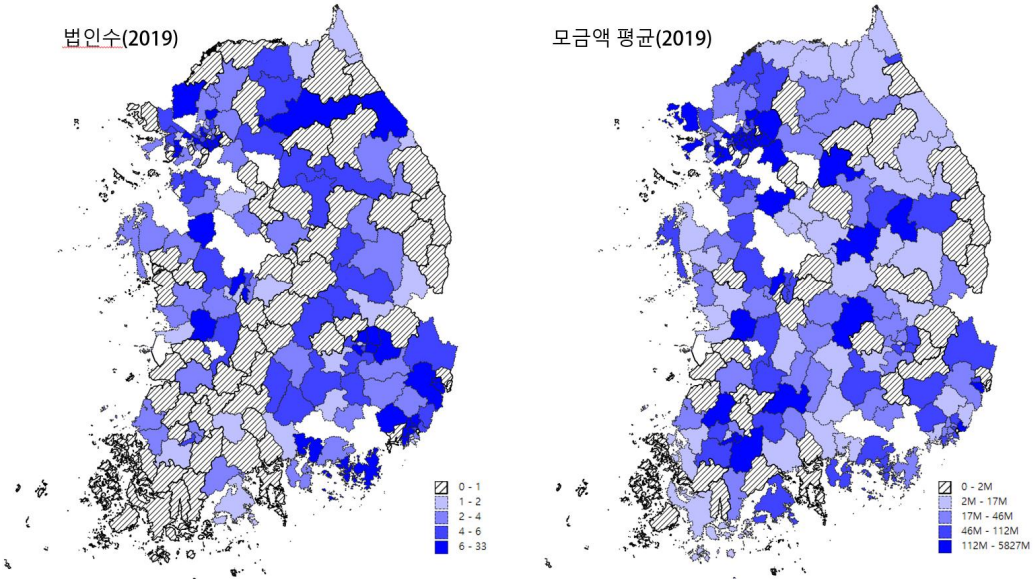
<표 6-4> 지역 유형별 예시(2019년)

순위	유형명	지역명	노령화	총 인구수	빈곤율	순위	유형명	지역명	노령화	총 인구수	빈곤율
1	중소형2	경기도 의왕시	12.9	156,206	1.712	25	중소형1	대전 유성구	8.9	348,087	1.551
2	중소형2	부산 강서구	11.7	125,409	2.064	26	중소형1	서울 마포구	13.9	366,807	1.827
3	중소형2	울산 동구	11.4	161,242	2.136	27	중소형1	서울 영등포	15.5	360,221	1.924
4	중소형2	서울 종로구	18.1	146,603	2.411	28	중소형1	울산 남구	11.2	325,167	2.024
5	중소형2	전남 광양시	12.3	156,022	2.464	29	밀집형2	서울 서초구	13.2	423,950	1.166
6	중소형3	울산 북구	7.6	211,524	1.408	30	밀집형2	경기 김포시	12	427,733	1.703
7	중소형3	경기 오산시	8.9	221,911	1.784	31	밀집형2	경북 구미시	8.9	418,514	1.711
8	중소형3	울산 울주군	13.7	221,479	1.797	32	밀집형2	서울 구로구	16	400,902	1.932
9	중소형3	충남 서산시	17.8	173,575	1.842	33	밀집형2	경기 시흥시	8.7	457,529	1.959
10	중소형3	경기 이천시	13.5	213,615	1.907	34	농어촌형3	경기 과천시	13.9	57,322	1.399
11	밀집형1	서울 성동구	14.6	299,044	2.143	35	농어촌형3	충남 계룡시	11.1	43,162	1.453
12	밀집형1	경기 군포시	12.2	274,329	2.229	36	농어촌형3	인천 옹진군	24.9	20,643	2.282
13	밀집형1	경기	13.1	318,488	2.285	37	농어촌형3	충남	33.9	31,802	2.553

순위	유형명	지역명	노령화	총 인구수	빈곤율	순위	유형명	지역명	노령화	총 인구수	빈곤율
		광명시						청양군			
14	밀집형1	서울 서대문	16.7	303,057	2.410	38	농어촌형3	강원 평창군	26.6	41,954	2.910
15	밀집형1	충남 아산시	12.7	311,551	2.481	39	농어촌형2	충북 진천군	16	79,175	2.366
16	밀집형3	서울 강남구	13	531,575	1.684	40	농어촌형2	강원 홍천군	24.8	69,006	2.727
17	밀집형3	인천 서구	9.9	537,891	2.442	41	농어촌형2	충남 홍성군	22.9	100,011	2.880
18	밀집형3	경남 김해시	10.6	535,063	2.958	42	농어촌형2	전남 무안군	20.8	81,088	3.057
19	밀집형3	서울 강서구	14.2	587,369	3.267	43	농어촌형2	충북 음성군	20.1	94,506	3.060
20	밀집형3	인천 남동구	12.5	530,640	3.549	44	농어촌형1	경기 하남시	12.3	261,485	1.677
21	밀집형4	경기 화성시	8.5	784,035	1.137	45	농어촌형1	경남 거제시	10	248,003	1.776
22	밀집형4	서울 송파구	12.9	662,020	1.547	46	농어촌형1	대구 달성군	11.9	252,616	2.529
23	밀집형4	경기 남양주	13.3	686,892	2.142	47	농어촌형1	부산 동래구	17.3	266,204	2.836
24	중소형1	경기 광주시	12.4	365,851	1.462	48	농어촌형1	경북 경산시	16	260,352	2.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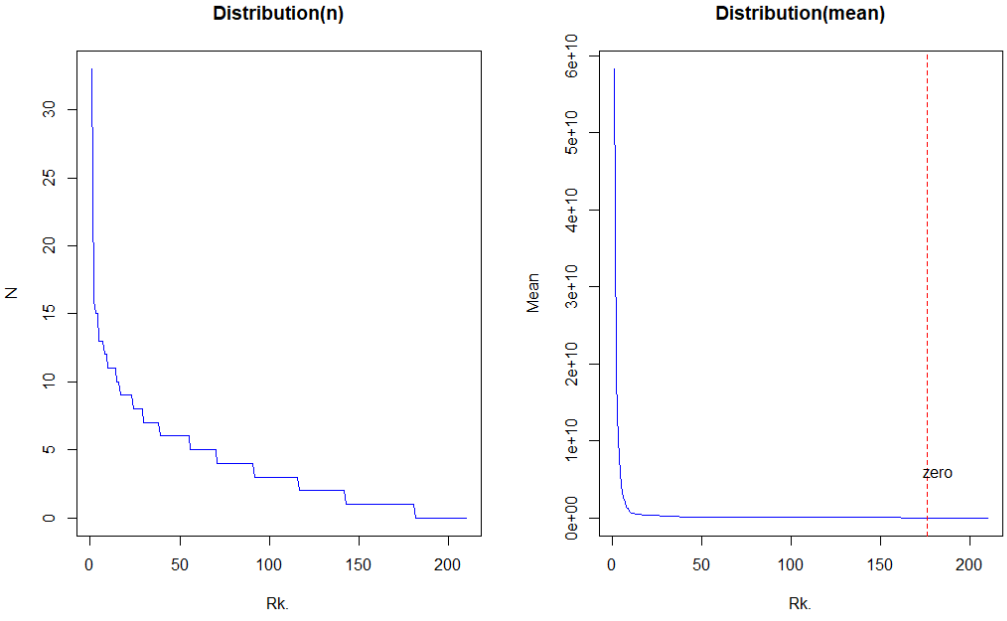
3. 기부 관련 법인 분포(2019년)

[그림 6-3]은 기부 관련 법인의 분포를 다룬 결과이다. 좌측의 그림은 법인의 수를 제시한 것이며, 우측의 그림은 국세청 공시자료에서 추출한 연간 모금액 총액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분포를 보았을 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이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규모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국세청에 공시 자료가 있는 기부 관련 법인이 1개 이하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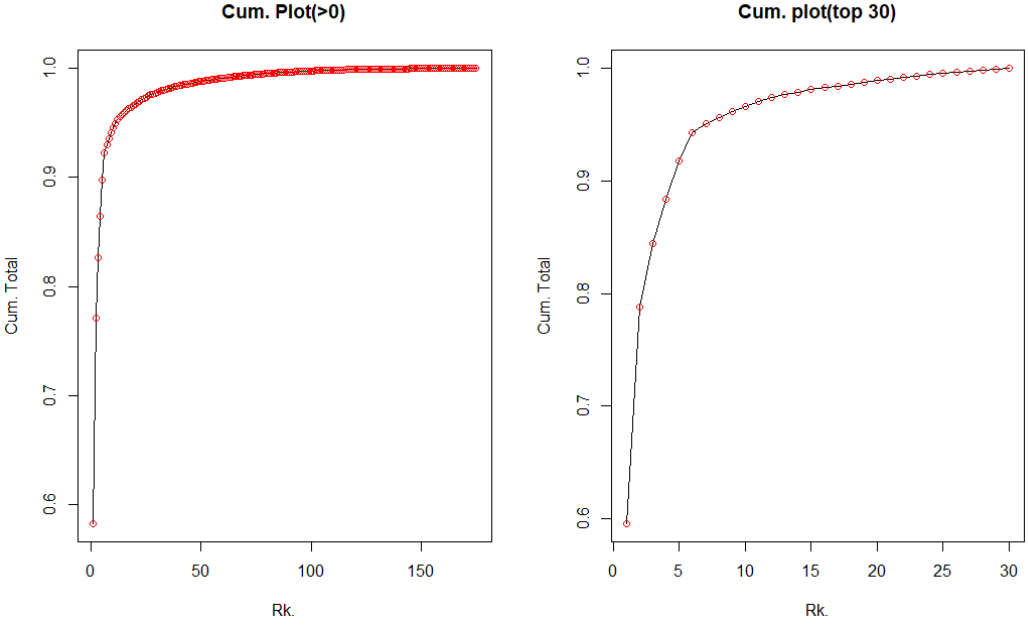
[그림 6-3] 법인수 및 평균 모금액 분포

아래 [그림 6-4]는 법인의 수와 평균 모금액 순위에 따른 값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가로축은 순위를 의미하며, 세로축은 각각 법인의 수(좌측)와 평균 모금액(우측)을 나타내며 2019년 값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우측 그림에서는 평균 모금액이 0으로 집계된 지역을 별도의 수직선으로 표현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부 관련 법인의 분포와 모금 규모에 있어 높은 수준의 지역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법인 수의 경우 한 지역에 많게는 33개 조직이 밀집된 경우도 있었으며, 국세청 공시자료에 보고가 전혀 없는 지역도 존재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편차는 우측의 평균 모금액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내 관련 기관의 평균 모금액이 많게는 6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 평균모금액의 전체 평균은 약 6억 수준이지만, 중위값은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편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4] 법인수와 평균 모금액의 지역편차(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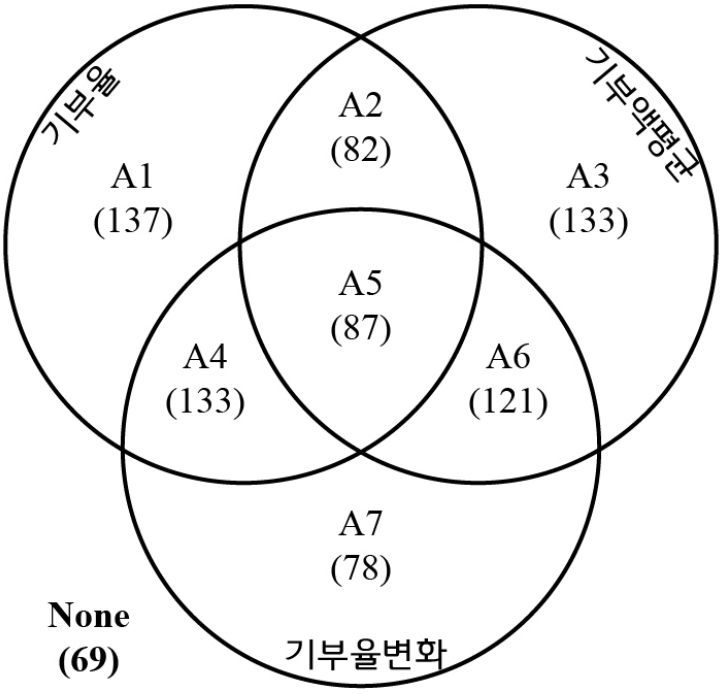
[그림 6-5]는 법인 모금액의 지역 편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금 규모에 따른 모금 누적액을 제시한 것이며 앞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9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좌측의 그림은 총 모금액이 0원 이상인 지역(175개 단위)의 누적분포를 제시한 것이며, 우측은 총 모금액 상위 30위 지역의 누적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좌측 그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상위 5개 지역 총합이 2019년 법인 모금액 전체의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30위까지의 분포의 경우 상위 5개 지역의 모금 총액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법인 모금이 소수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드러낸다.



[그림 6-5] 법인 지역 내 모금액의 누적 분포(2019년)

4. 지역별 기부 수준 유형화 결과

기부 수준에 대한 유형화는 기부율, 기부액평균, 전년대비 기부율의 변화를 기준으로 각 값의 중위값 이상에 속하는가 여부로 판별하였다. 아래 [그림 6-6]은 그 결과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한 것이다. 세 항목 모두에 속하지 않는 케이스는 69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6-6] 지역 유형화 벤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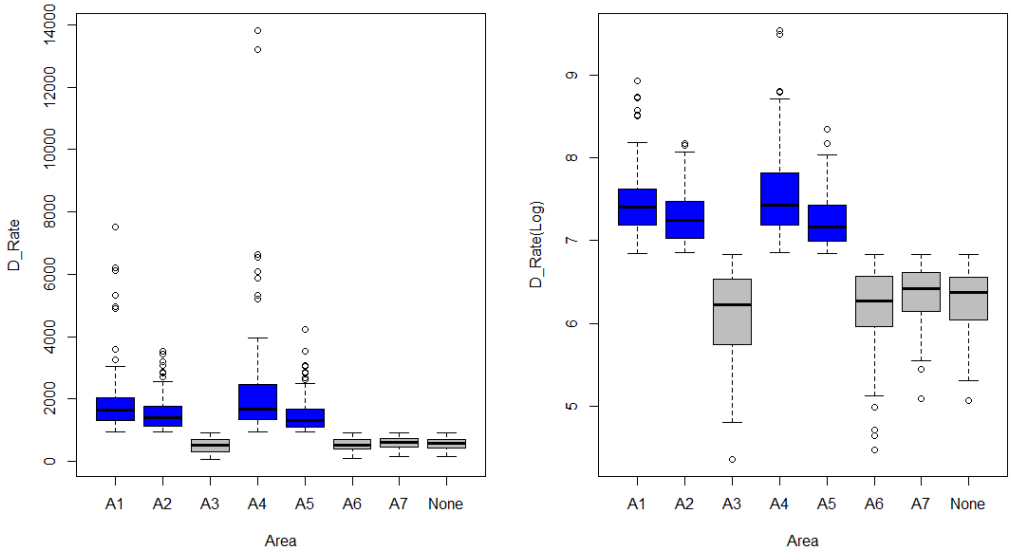
아래 [그림 6-7], [그림 6-8], [그림 6-9]는 기부 수준의 유형별 특성을 기부율과 기부평균액, 기부변화율로 나누어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A1은 기부율만 높은 지역, A3는 평균기부액만 높은 지역, A7은 전년대비 기부율의 변화만이 높은 지역을 나타낸다. A2는 기부율과 평균 기부액이 높은 지역, A2는 기부율과 평균기부액이 높은 지역을, A4는 기부율과 전년대비 기부율이 높은 지역을, A6은 평균기부액과 전년대비 기부율의 변화가 높은 지역을, A5는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중위값 이상인 지역을 나타

낸다. 상자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각 기부 지표가 중위값 이상인 지역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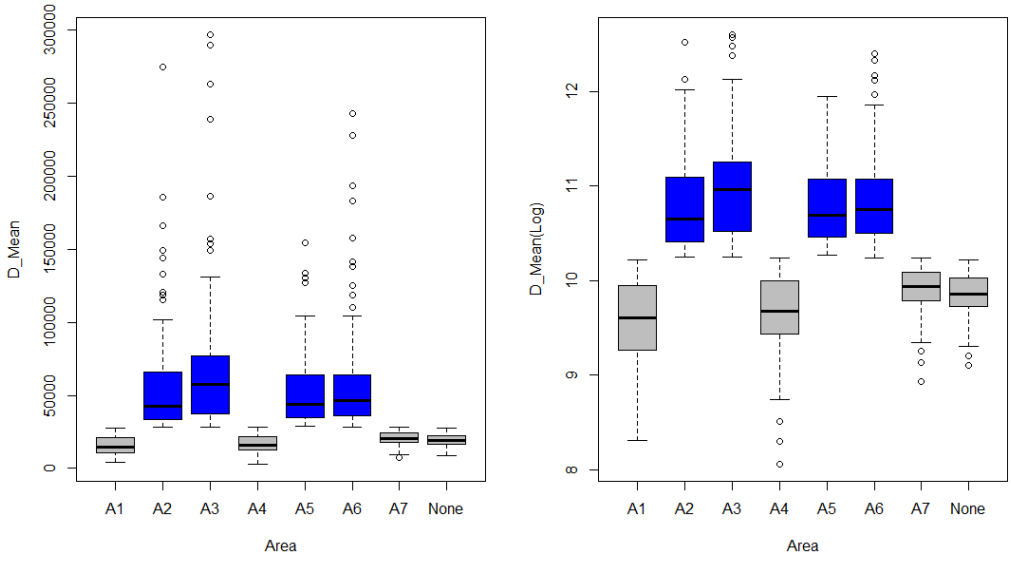
기부율과 기부율의 로그값을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그림 6-7]을 보면, 기부율의 중위값은 기부율만 높은 A1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1분위수에서 3분위수를 나타내는 범위는 기부율과 전년대비 기부율이 모두 높은 A4 지역에서 더욱 넓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1과 A4 지역은 중위값을 넘어서는 아웃라이어 지역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특히 A4 지역에서 중위값의 6배 수준인 아웃라이어들 지역이 발견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기부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부평균액의 상자그림을 나타낸 [그림 6-8]을 살펴보면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기부평균액만이 높은 A3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은 1분위수에서 3분위수 사이의 범위도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중위값의 3-4배 수준인 아웃라이어들도 다수 발견되어 기부율이나 전년대비 기부율은 낮지만 기부액수가 매우 높은 지역들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기부액의 로그값인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기부액과 전년대비 기부액이 높고 기부금액이 낮은 A4 지역에서는 그 금액이 매우 낮은 아웃라이어들도 많이 발견되었는데 기부액이 매우 높은 지역과 매우 낮은 지역이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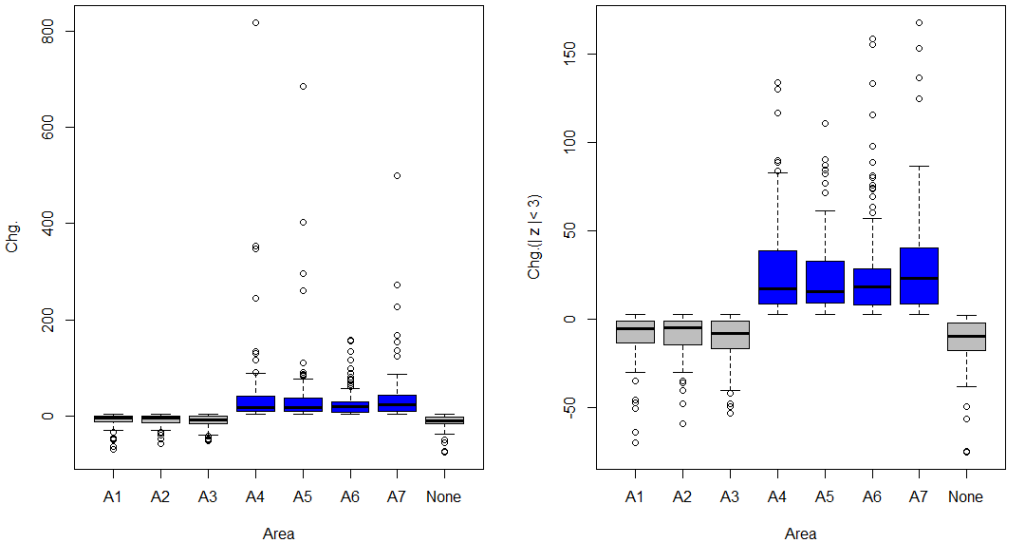
전년대비 기부율의 상자그림을 [그림 6-9]로 제시하였다. 변화율의 경우 로그값을 취하기 어려우므로 z값으로 변환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변화율의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변화율만이 높은 A7 지역으로 나타났다. A7 지역에서는 중위값을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들도 다수 발견되어 전년대비 변화율이 높은 지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부변화율이 중위값보다 높지 않은 A1, A2, A3 그리고 바깥 지역의 경우 중위값 이하로 매우 낮은 아웃라이어들도 다수 발견되어 역시 기부변화율이 매우 높은 지역과 매우 낮은 지역의 격차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6-7] 기부 수준 유형별 특성 (기부율, 상자그림)



[그림 6-8] 기부 수준 유형별 특성 (기부평균액, 상자그림)



[그림 6-9] 기부 수준 유형별 특성 (기부변화율, 상자그림)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A5)는 총 87건이었는데, 아래 표는 여기에 속하는 집단 중 기부 평균액을 중심으로 상위 20위까지의 지역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 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구(2018년), 서울 용산구(2018년), 서울 서초구(2016년), 서울 중구(2018년)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서울 종로구는 '중소형2(노령/불평등)' 지역이며, 서울 서초구는 '밀집형2'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서울 도심 지역들인 종로구, 중구, 서초구 등에 다수의 모금단체들이 설립되어 있어 이 지역에서 기부율, 기부평균액, 기부율변화 등이 모두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어촌 지역들도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기부평균액이 10만원 이상인 5개 지역에는 전남 영광군, 충남 부여군, 충남 공주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충남 부여군은 기부변화율이 3.121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부율과 평균액수가 높을 뿐 아니라 기부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부여군의 모금단체 수, 지역 특성 등이 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5> 기부율-기부액평균-기부율변화 충족 케이스 (기부평균액 상위 20위)

순위	지역명	연도	기부율	기부평균액	기부변화율
1	전남 영광군	2018	1386.996	154260.7	2.982
2	충남 부여군	2018	1218.740	133733.5	3.121
3	서울 종로구	2018	2671.152	130388.8	1.873
4	전남 영광군	2019	1480.997	127326.5	2.982
5	충남 공주시	2019	1471.842	104179.5	2.009
6	서울 서초구	2016	2161.056	99771.83	2.242
7	경남 합천군	2019	1369.939	93226.02	2.450
8	충남 공주시	2018	1341.656	87066.42	2.009
9	서울 용산구	2018	1199.357	83133.37	2.215
10	충남 홍성군	2018	1019.181	82959.24	2.122
11	부산 동구	2018	1259.374	82836.84	2.009
12	경남 함안군	2019	968.023	79703.16	2.439
13	경남 합천군	2018	1228.114	78271.58	2.450
14	서울 용산구	2016	1174.042	74662.35	2.215
15	충남 금산군	2016	1092.745	74032.25	2.681
16	서울 중구	2018	4228.798	74001.45	1.612
17	충남 공주시	2016	1447.650	73655.12	2.009
18	인천 연수구	2016	1053.605	73052.30	2.319
19	부산 중구	2019	1042.212	71021.22	2.555
20	전남 담양군	2018	1590.308	68837.30	2.793

아래 표는 세 영역 모두에 속하지 않는 케이스 가운데 기부율이 낮은 순으로 20위까지 제시한 것이다. 기부율이 낮은 지역과 연도는 경기도 남양주시, 201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중소형3(QOL)'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그 다음으로 기부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광양시, 충북 제천시, 경기 광명시, 충북 옥천군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율, 평균액, 변화율이 모두 낮은 지역의 경우 특별한 지역 유형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전남 광양시는 '중소형2(노령화/불평등)' 지역이며, 충북 제천시는 '밀집형1' 유형에 해당하는 도시이다. 경남 거제시는 '농어촌형1(경

계)' 유형이고, 경기 군포시는 '밀집형1'에 해당한다. 세 기부 수준이 모두 낮은 지역에는 밀집형, 중소형, 농어촌형 지역이 모두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유형과 각 기부 수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서술할 회귀분석 파트에서 좀 더 엄밀히 검증할 것이다.

<표 6-6> 기부율-기부액평균-기부율변화 미포함 케이스 (기부율 하위 2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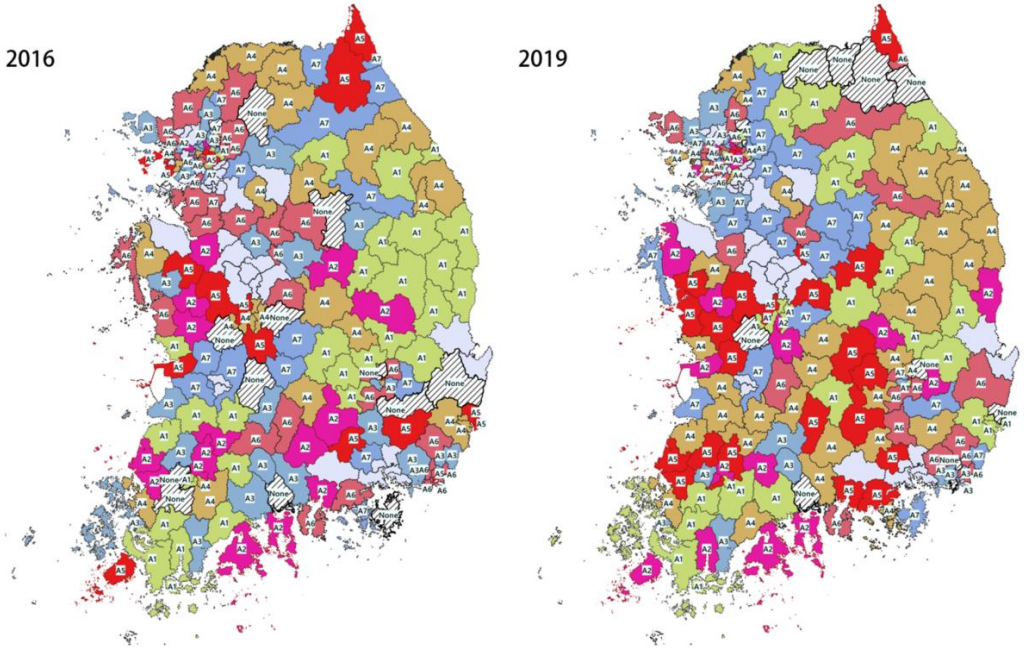
순위	지역명	연도	기부율	기부평균액	기부변화율
1	경기 남양주	2017	158.147	22551.18	2.266
2	전남 광양시	2017	201.159	27554.56	2.191
3	충북 제천시	2017	209.642	18977.95	1.959
4	경기 광명시	2018	245.568	21776.38	2.116
5	충북 옥천군	2016	256.353	20367.09	1.911
6	충북 제천시	2016	286.791	25423.47	1.959
7	대구 서구	2016	327.034	26279.51	2.517
8	경기 구리시	2017	327.078	22418.49	2.093
9	경기 안성시	2018	328.982	23171.46	2.007
10	경기 가평군	2016	338.159	24150.36	2.611
11	경기 화성시	2017	352.362	21791.21	2.152
12	서울 중랑구	2017	363.887	18935.18	2.319
13	서울 중랑구	2019	364.957	17954.08	2.319
14	전남 완도군	2017	370.577	19331.46	2.511
15	서울 중랑구	2018	372.366	16481.22	2.319
16	서울 중랑구	2016	394.789	17389.66	2.319
17	경남 거제시	2018	415.740	22677.45	2.024
18	경남 거제시	2017	418.590	21703.42	2.024
19	부산 북구	2019	421.760	15019.85	2.271
20	경기 군포시	2018	444.376	17917.11	2.538

[그림 6-10]은 기부 유형의 지역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좌측의 그림은 기부율 변화가 측정된 최초 시점인 2016년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측의 그림은 분석의 마지막 시점인 2019년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2016년에 비해 2019년 지역 분포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변화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A5 지역의 수와 면적이 늘어난 것이다. 즉 기부율, 평균기부액, 기부변화율이 모두 높은 지역의 수가 2016년에 비해 2019년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 지역으로는 충남 일부 지역(청양, 부여)이 A2에서 A5로, 경상도 일부 지역(김천, 성주, 합천)이 A1, A2에서 A5로, 전남 일부 지역(영광, 함평, 담양)이 A2에서 A5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부율만이 높았던 A1의 경북 다수 지역이 A4로 변화한 것이 역시 관찰되는데 기부율 뿐 아니라 기부변화율도 이전 시기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즉 2016년에 A2였던 지역이 A5로, A1이었던 지역이 A4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기부율과 기부액이 높던 지역이 기부변화율도 높은 지역으로 변화하였다는 의미로 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는 남부 지방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들도 확인된다. 기부액과 기부변화율이 모두 높았던 경기 지역 일부(파주, 김포)는 기부액만이 높은 A3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기부율과 기부변화율이 모두 높았던 강원도 지역(철원, 춘천)이 기부율만 높은 A1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기부액과 기부변화율이 높았던 가평, 양평, 여주 지역은 기부변화율만 높은 A7로 변화하였다. 2016년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높았던 인제 지역은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낮은 지역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부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지역의 특성이나 이벤트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지역들이 모두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므로, 아웃라이어 존재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부 지표들이 좀 더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2016년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들에서 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경우 기부변화율이 낮아진 지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각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기부 지표들의 변화의 폭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6-10] 기부 유형의 지역 분포

5. 회귀 분석 결과

가. 기부 관련 법인 활동

<표 6-7>은 지역 법인 설립 및 활동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특성(유형)과 연도를 고정효과로 다루었으며, 지역을 무작위 효과로 다룬 혼합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유형은 법인 활용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법인 수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법인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Predictors	법인수			법인평균모금액		
	b	CI	p	b	CI	p
(Intercept)	6.86	4.24 – 9.48	<0.001	19.20	15.13 – 23.26	<0.001
Ref.=밀집형4						
중소형2	**-3.08**	**-5.01 – -1.15**	**0.002**	-2.14	-5.92 – 1.63	0.266
중소형3	**-4.51**	**-6.44 – -2.57**	**<0.001**	**-5.70**	**-9.48 – -1.91**	**0.003**
밀집형1	**-2.90**	**-4.89 – -0.91**	**0.004**	-2.43	-6.32 – 1.46	0.221
밀집형3	0.25	-1.90 – 2.40	0.818	-0.72	-4.90 – 3.46	0.735
중소형1	-0.77	-2.73 – 1.19	0.441	-1.46	-5.29 – 2.36	0.454
밀집형2	**-2.51**	**-4.42 – -0.60**	**0.010**	-1.46	-5.20 – 2.27	0.442
농어촌형3	**-5.82**	**-7.74 – -3.91**	**<0.001**	**-6.15**	**-9.88 – -2.41**	**0.001**
농어촌형2	**-5.39**	**-7.32 – -3.46**	**<0.001**	-3.66	-7.42 – 0.11	0.057
농어촌형1	**-2.47**	**-4.54 – -0.40**	**0.019**	-1.11	-5.15 – 2.93	0.590
Ref.=수도권						
중부권	1.28	-1.30 – 3.86	0.331	-0.50	-3.42 – 2.42	0.736
남부권	1.66	-0.61 – 3.94	0.153	-1.24	-3.79 – 1.31	0.340
Observations	840			840		
Conditional R2	0.368			0.179		

먼저, 법인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특성을 보이는 “밀집형4”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밀집형3”과 “중소형1”을 제외한 모든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값을 통해 살펴볼 때 그와 같은 차이는 지역의 규모, 경제적 수준과 거의 일정한 서열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인 “농어촌형3”의 계수값이 가장 큰 음의 값(b=-5.82, p<.001)을 나타냈다.

법인 평균 모금액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에서도 지역 유형 간 일정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법인수에 비해서는 지역 규모와 결과 변수 사이에 서열적 관계가 다소 약하게 포착되었다. 이는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법인 수는 적어도 모금액이 큰 일부 사례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법인 평균 모금액의 경우도 “농어촌형3”의 계수값이 유의미하게 가장 큰 음의 값(b=-6.15, p<.01)을 보였다.

나. 기부 수준

아래 <표 6-8>은 기부 수준과 관련된 세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특성(유형), 법인 활동, 연도를 고정효과로 포착하였으며, 지역을 무작위 효과로 다룬 결과이다. 법인의 활동이 지역 특성과 결합하여 기부 행위를 촉진하는 역할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부율과 지역 특성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부율에 법인 수는 유의미한 정적 효과(0.2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 기부 전문 기관의 활용이 일정 수준에서 지역내 기부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인의 규모, 혹은 모금 역량과 관련된 법인 평균 모금액의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지역은 전반적인 수준에서 기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규모인 “밀집형4”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모든 지역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나머지 지역의 수준은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주목할 사항은 관련 법인의 수가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는 “농어촌2”, “농어촌3”등의 지역에서 기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포착된다는 점이다.

기부율에 대한 시기 효과도 부분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의 기부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다는 결과(b=0.19, p<.01)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기부 행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수와 지역 유형 간 교차효과는 "밀집형3"과의 교차효과를 기준으로 모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와 같은 효과는 일정 수준에서 지역 규모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밀집형", "중소형", "농어촌형"으로 갈수록 계수가 점진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패턴의 확률적 유의미성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호작용 효과가 보여주는 전반적인 양상은 모금 관련 기관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와 경제산업적 기반에서 유리한 지역일수록 효과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표 6-8> 기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Predictors	기부율			기부평균액		
	b	CI	p	b	CI	p
(Intercept)	4.39	3.33 – 5.46	<0.001	53.95	1.83 – 106.07	0.042
법인수(A)	**0.26**	**0.14 – 0.38**	**<0.001**	-2.22	-8.50 – 4.07	0.490
법인평균모금액	-0.00	-0.01 – 0.01	0.861	**0.46**	**0.04 – 0.88**	**0.032**
Ref.=밀집형4						
중소형2	**2.17**	**1.25 – 3.09**	**<0.001**	-41.93	-90.92 – 7.06	0.093
중소형3	**2.29**	**1.37 – 3.21**	**<0.001**	-20.55	-69.46 – 28.36	0.410
밀집형1	**2.20**	**1.27 – 3.14**	**<0.001**	-14.31	-64.09 – 35.46	0.573
밀집형3	**1.58**	**0.47 – 2.68**	**0.005**	-47.24	-106.21 – 11.73	0.116
중소형1	**2.12**	**1.19 – 3.05**	**<0.001**	-16.98	-66.58 – 32.63	0.502
밀집형2	**1.45**	**0.51 – 2.40**	**0.003**	-24.64	-74.93 – 25.65	0.337
농어촌형3	**2.41**	**1.49 – 3.32**	**<0.001**	-9.44	-58.21 – 39.34	0.705
농어촌형2	**2.47**	**1.55 – 3.39**	**<0.001**	-10.94	-59.96 – 38.08	0.662
농어촌형1	**1.93**	**0.92 – 2.93**	**<0.001**	-9.63	-63.02 – 43.76	0.724
Ref.=수도권						
중부권	0.19	-0.54 – 0.91	0.614	-8.24	-33.07 – 16.60	0.516
남부권	0.26	-0.38 – 0.90	0.422	-6.29	-28.21 – 15.62	0.573
Ref.=Y2016						

Predictors	기부율			기부평균액		
	b	CI	p	b	CI	p
Y2017	-0.00	-0.12 - 0.11	0.971	0.26	-5.81 - 6.33	0.934
Y2018	0.08	-0.04 - 0.19	0.183	**-7.21**	**-13.28 - -1.14**	**0.020**
Y2019	**0.19**	**0.07 - 0.30**	**0.001**	**-7.87**	**-13.95 - -1.80**	**0.011**
A * 중소형2	**-0.21**	**-0.33 - -0.08**	**0.001**	**8.17**	**1.71 - 14.62**	**0.013**
A * 중소형3	**-0.27**	**-0.40 - -0.15**	**<0.001**	2.59	-4.06 - 9.25	0.445
A * 밀집형1	**-0.26**	**-0.39 - -0.14**	**<0.001**	2.21	-4.40 - 8.83	0.512
A * 밀집형3	**-0.17**	**-0.31 - -0.03**	**0.015**	4.12	-3.18 - 11.42	0.268
A * 중소형1	**-0.26**	**-0.38 - -0.14**	**<0.001**	1.95	-4.44 - 8.34	0.549
A * 밀집형2	**-0.19**	**-0.32 - -0.07**	**0.002**	4.96	-1.69 - 11.60	0.144
A * 농어촌형3	**-0.28**	**-0.40 - -0.15**	**<0.001**	3.76	-3.12 - 10.64	0.283
A * 농어촌형2	**-0.29**	**-0.42 - -0.16**	**<0.001**	0.82	-6.26 - 7.91	0.820
A * 농어촌형1	**-0.27**	**-0.41 - -0.14**	**<0.001**	2.41	-4.82 - 9.64	0.514
Observations	840			840		
ConditionalR2	0.475			0.276		

기부액 평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제시의 편의를 위해 결과변수인 평균 기부액 단위를 1,000원으로 조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법인의 수가 기부액 평균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인의 평균 모금액은 기부 평균액에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b=0.46, p<.05) 나타났다. 이는 모금 관련 기관의 규모나 모금 역량에 따라 기부자의 기부액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의 수 자체는 그와 같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기부율에 대한 분석 결과와는 달리 기부 평균액의 경우, 지역 유형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기부 평균액에서도 시기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방향은 반대로 포착되었다.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역 평균 기부액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기부 수준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변인인 기부율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도 실시하였다. <표 6-9>는 기부율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부율 변화에는 법인, 지역 유형, 시기 및 상호작용 효과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과변수 총변량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

는 결정계수도 .04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6-9> 기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b	CI	p
(Intercept)	-7.31	-94.47 - 79.85	0.869
법인수(A)	1.40	-9.76 - 12.57	0.805
법인평균모금액	-0.01	-0.76 - 0.73	0.968
Ref.=밀집형4			
중소형2	37.89	-49.31 - 125.09	0.394
중소형3	23.97	-63.12 - 111.06	0.590
밀집형1	29.17	-59.02 - 117.37	0.517
밀집형3	27.18	-76.97 - 131.32	0.609
중소형1	24.82	-62.96 - 112.59	0.579
밀집형2	22.93	-65.91 - 111.77	0.613
농어촌형3	35.20	-51.30 - 121.70	0.425
농어촌형2	28.18	-58.81 - 115.18	0.525
농어촌형1	12.80	-82.01 - 107.61	0.791
Ref.=수도권			
중부권	-2.44	-21.05 - 16.17	0.797
남부권	-9.53	-25.60 - 6.55	0.246
Ref.=Y2016			
Y2017	-9.26	-20.16 - 1.63	0.096
Y2018	-1.30	-12.20 - 9.59	0.815
Y2019	7.33	-3.58 - 18.23	0.188
A * 중소형2	-3.30	-14.82 - 8.22	0.575
A * 중소형3	-1.24	-13.10 - 10.62	0.838
A * 밀집형1	-1.49	-13.22 - 10.24	0.804
A * 밀집형3	-2.09	-15.09 - 10.91	0.752
A * 중소형1	-1.18	-12.52 - 10.16	0.838
A * 밀집형2	-1.88	-13.64 - 9.89	0.755
A * 농어촌형3	-2.75	-14.95 - 9.44	0.658
A * 농어촌형2	-0.70	-13.29 - 11.89	0.914
A * 농어촌형1	-0.28	-13.12 - 12.57	0.966
Observations		840	
ConditionalR2		0.043	

제2절 소결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 관련 법인의 분포와 모금 규모에 있어 높은 수준의 지역 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내 법인 모금액 평균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금 관련 기관과 모금 역량이 치우침을 확인했다.

둘째, 기부 수준에 있어 다양한 지역적 편차가 존재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부율, 기부액 평균, 기부율 변화에 있어 지역 분포가 다양하게 포착되었다. 세 지표 모두에서 중위값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은 수도권의 대도시에 속하거나, 반대로 비교적 작은 지역에 속하는 양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세 지표 모두에서 낮은 특성을 보인 지역도 유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부 문화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의 독특성이나 기부 관련 촉진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매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기부 관련 기관이 기부 행위에 일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관련 조직의 수는 기부율과 정적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모금액 규모로 파악할 수 있는 기관 모금 역량은 평균 모금액에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 기부 수준에서 시기 효과가 포착되었다. 기부율은 최근 시점에 이르러 높아지고 있으나, 평균 기부액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수준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기부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의 심화에 따라 기부에 가용한 자원 크기가 한정되는 지역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연구 결과들이 갖는 이론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기부 관련 지표들은 지난 1년간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만으로 기부 지표를 산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부 지표를 기부율, 기부액, 기부변화율로 다양하게 제시하여 국내 기부 현황을 좀 더 다차원적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기부 현황을 나타낸 지표들은 기부 경험률과 추이를 확인하거나(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최근 1년간 기부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8; 서울특별시, 2020). 기부액의 경우 국세통계연보에서 국내 기부금의 총액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세 가지 지표로 기부

를 살펴본 결과 기부율이 높은 지역, 기부액이 높은 지역, 기부변화율이 높은 지역 등 서로 다른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지표 차이는 2016년과 비교할 때 2019년에 와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부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의 지역 비교는 도시 혹은 농어촌 지역인지 여부 혹은 인구밀집지역인지 여부로만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했으나, 본 연구는 시군구 210개를 대상으로 삼아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을 통해 기부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광역시가 도 지역보다 자원봉사활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이현기, 2012), 대도시 거주자가 기부 재참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양성욱, 201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대도시 지역이 기부 및 자원봉사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부율-기부액-기부변화율이 모두 상위 수준인 지역에 대도시 지역 일부(서울 종로구, 부산 동구) 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들도 다수 포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전남 영광군, 충남 부여군, 충남 공주시 등). 또한 모금기관 수가 적은 농어촌 유형의 기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포착되었다. 광역시 혹은 도 단위 내에서도 기부 관련 지표들이 지역의 특성이나 모금기관의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시군구의 특성과 해당 지역의 모금기관 수와 규모 등을 포함하여 기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 지역의 유형화로 기부 수준을 포착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선행연구 결과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기부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변수들을 통하여 유형을 구성하고 지역 유형이 기부수준에 일정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도출해냈다. 본 연구에서는 투표율, QOL, 출산율, 총인구수, 노령화 비율, 서비스업 비율, 빈곤율, 1인당 지역총생산의 8개 변수를 분석하여 10개의 지역 유형화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영향력이 확인된 노령화 수준(Schuyt, 2010), 빈곤율(임선영, 민소영, 2015), 지역의 재정수준(Einolf, 2017; Bekkers, 2016; Schuyt, 2010; Bielefeld, Rooney, Steinberg, 2000), 투표율(Bekkers & Veldhuizen, 2008) 등의 변수를 통하여 구성한 지역 유형 변수가 기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지역 내 모금기관의 영향력이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 내 모금기관의 존재가 기부 수준에 일정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ielefeld 등(2005)과 Bekkers(2016)는 지역의 모금기관 수가 증가하면 시민들이 지역의 기부 필요를 인식하게 되어 기부를 추동한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 주장이 일부 지지되는데 임선영과 민소영(2015) 연구에 따르면 지역 사회복지 시설 수는 기부참여에 영향을 주지만 기부금액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고언정(2011)은 지역의 복지관 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 문제에 기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모금기관 수가 기부율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모금기관의 모금액수가 기부액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모금기관의 모금액 규모가 기부율에 미치는 영향과 모금기관의 수가 기부액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모금기관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지역별 나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 및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모색의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나눔 규모와 나눔지수를 지역별로 파악하고, 지역별 나눔 규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지역별 나눔 규모는 공신력 있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기부,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현황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기부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나눔지수를 구성하여 지역별 나눔 규모를 보다 직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화 및 개인나눔수준 매핑을 활용한 시각화를 통해 지역의 나눔 현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개인기부,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현황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개인 기부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1년(2018년 5월~2019년 5월)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9년 기준 25.1%이고, 기부한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개인 기부참여율 변화 추이를 보면 2015년 29.2%에서 2017년 25.5%, 2019년 25.1%로 하락 추세에 있다. 또한 1인당 연평균 기부금액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기부에 참여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2019년 기준 평균 약 41만원으로 나타났다. 기부 참여율의 최근 변화 추이와 달리, 지난 5년간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평균 기부금액은 2015년 약 30만원에서 2017년 약 38만원, 2019년 약 41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지역별 기부참여율을 비교해보면, 세종시가 32.8%로 가장 높았고, 서울(30.1%), 광주·대전(28.6%), 강원(28.3%) 순이었다. 한편, 평균 기부액은 대구가 494,379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

(328,122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지난 1년(2018년 5월~2019년 5월)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6.2%로 확인되었고, 83.8%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자원봉사 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8.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17.9%, 2019년에는 16.2%로 하락 추세에 있었다. 평균 자원봉사 참여시간은 2019년 기준 약 24.20시간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균 자원봉사 참여시간 추이의 큰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2015년 24.61시간, 2017년 25.68시간으로 소폭 등락이 있었다. 개인기부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도 세종시가 16.0%로 가장 높았고, 전남(14.3%), 충남(14.2%), 강원(13.6%) 순이었다. 한편 자원봉사 평균 시간은 울산이 34.9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20.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헌혈건수에 대한 분석결과, 2015년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이 확인되었다. 2019년도 기준 헌혈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의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3개년 간 전체 헌혈건수의 3분의 1 가량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경기와 부산의 헌혈 건수 및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 헌혈건수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헌혈건수 전국 추세와는 다르게, 전국 장기등 이식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19년 장기등 이식건수가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장기이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말초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지역별 장기등 이식건수는 의료기관 지역 기준으로 수집되었으며, 2019년 기준 서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64.5%). 해당 결과는 장기이식이 가능한 병원이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기부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기부자 분석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 기준(중앙 포함)으로 데이터를 제시하였는데, 개인 기부자 수는 서울과 경기 지회가 높은 반면, 평균 기부금액은 대구, 부산, 제주 지회와 중앙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 현황 자료 중 개인 기부자 수, 개인 자원봉사자 수, 헌혈 건수와 장기등 이식건수를 지역별 인구 수로 나누어 나눔지수를 위한 기초값으로 활용하였다. 해당 기초

값을 바탕으로, 핵심지표(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와 확대지표(헌혈, 장기기증)를 구성하고,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인 표준화 점수로 재환산하였다. 2019년 기준, 개인 현금 기부는 세종(121.3)이 가장 높고 대구(79.9)가 가장 낮았으며, 개인 자원봉사는 세종(122.9)이 가장 높고 부산(76.1)이 가장 낮았다. 헌혈의 경우, 대전(117.7)이 가장 높고 경기 지역(82.5)이 가장 낮았으며, 장기기증은 서울(134.3)이 가장 높고 부산(92.5)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지표 항목이 전국 평균(100.0) 이상인 지역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인천, 경기, 충북 지역은 모든 지표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핵심지수와 확대지수 및 최종 나눔지수를 산출하고 지역별 순위를 살펴보았다. 2019년 핵심지수는 세종(122.1), 전남(106.1), 강원(105.4), 대전(104.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81.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확대지수는 서울(123.0), 대전(108.2), 광주(105.9), 강원(105.1) 순으로 높았으며, 경기 지역(89.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핵심지수와 확대지수를 종합한 나눔지수는 세종(114.8), 서울(110.1), 대전(105.8), 강원(105.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91.2), 경기(92.1), 인천(94.5)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서울 지역은 3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부 유형화 및 회귀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내 기부 행위 촉진 및 기부 문화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인의 분포는 높은 수준의 지역적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분포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차가 있었으며, 특히 평균 모금액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역 불균형이 발견되었다. 이는 관련 기관이 지역 사회의 규모나 경제적 자원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부 관련 행위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보였다. 규모가 작은 지역도 기부율과 같은 지표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10만 명당 기부자 수라는 기부율 계측의 특성상 분모에 해당하는 지역 인구수가 적으면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과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기부 관련 조직의 높은 지역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기부율이 높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 확산의 자발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 단위에서 보았을 때 기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기부액 평균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기부 문화 확산과 함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특징을 드러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의 소액 기부자들의 기부 행위를 유지,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개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기부율의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는 기부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역 간 편차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고착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기부율의 변화에서도 부정적인 추세가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불균형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부 촉진, 기부 문화 확산에 있어 도시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부 문화의 고른 확산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나눔 활성화 방안 수립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모금수준의 편차를 극복하고 기부 문화를 골고루 확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결과 지역별 기부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이 관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지역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역에 따라 기부 행위를 저해하는 특정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심해지고 있는 지역 간 격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부 촉진 조직의 지역적 편중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역별 법인 모금액 총액 분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수 지역이 전체 모금액의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심한 불균형을 관찰하였다. 지역의 경제적 불균형에 이은 모금 자원의 불균형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이중의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빈곤율과 노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기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인이 부재한 경우, 나눔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모금 자원 불균형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시, 단순히 법인의 존재 여부만이 아닌 법인의 모금 역량, 모금 가능 환경이 실제 나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지역별 모금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가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언정(2011)은 모금기관의 신뢰도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부에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함을 확인하였다. 「Giving Korea 2018」 보고서에서 제시한 일반 시민의 모금기관 인식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종교단체, 언론, 기업, 정부보다 모금기관을 더 신뢰한다고 보고한 비율이 26~4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른 사회조직에 비하여 모금기관을 더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8). 이는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 모금단체들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신뢰도 증진을 위한 노력(회계, 홍보 등에 대한 인력 배치)이 대형 모금기관에 유리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규모가 작은 지역의 모금기관들이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관이 모금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지역사회의 삶의 질 혹은 투표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환경분석을 진행하며, 지역 내 기부를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해당 집단에 부합하는 기부 행위 촉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략은 기부 문화 확산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미디어 전략과 밀접하게 접목될 수 있다. Bekkers(2016)는 기관이 포커싱하는 기부 집단을 선정하고 기부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성할 때 해당 지역의 미디어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부 이미지에 따라 기부 지역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금기관은 지역의 문화적, 제도적 요소를 반영하여 모금전략을 구성하고, 지역 언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SNS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지역별 모금 전략을 구성하는 것도 구체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부나 나눔 활동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결과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 모색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기부 확대'와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하여 '기부 방법의 편리성 증대', '다양한 기부 방법의 홍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나눔문화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가령, 기부 방법의 편리성 증대 필요를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는 지역은 제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 지역에서 나눔 실천 절차가 번거롭거나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부자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또한 경조금 기부, 유산 기부 등 다양한 기부 방법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은 충남이었다. 즉, 충남지역 모금 관련 법인들의 홍보 방법을 재점검하고,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을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에 유산기부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대구(79.8%) 및 경북(784%) 지역은 유산 기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산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역 간 나눔지수와 유형화를 진행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접근의 한계와 범위의 협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확한 분석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으므로 나눔 연구의 지속성과 정확성 제고 및 나눔문화 활성화 전략 수립의 근거가 되는 기초데이터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나눔의 지역별 차이 발생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연구 등의 후속연구 필요성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강철희, 유재윤, 박소현. (2012).기부와 자원봉사에의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 복지학, 64(2), 273-298.

강철희, 황지민, 오양래. (2015). 사회자본과 나눔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뢰, 호혜, 규범의 영향력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2.

강철희, 황지민, 이경혜. (2015).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행동에의 영향요인 탐색연구: 이전 세대 및 이후세대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41-71.

고경환, 이상신, 노연희, 최요한, 백승진, 우민희. (2015).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언정. (2011). 기부 대상에 따른 잠재기부자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6(), 1-21.

구지윤. (2013).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 93-122.

김교성, 강정한, 노혜진, 이현옥, 박태근, 김한별. (2015). 2015 한국사회 나눔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소영, 노법래, 조원희, 이창숙, 전예지, 유재윤. (2019). 2018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및 나눔지수 도출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형용, 박미희, 정지웅, 김윤민, 오양래. (2020). 2021 사회이슈 트렌드 – 뉴노멀 시대의 나눔 영역 개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연희. (2011). 사회복지조직의 기부자관리 및 조직의 기부자인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1), 1-31.

노연희. (2016). 일반시민과 모금실무자의 기부에 대한 인식 비교. 제16회 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16.

박세경, 강혜규, 이준영, 정진경, 한동우, 박소현. (2009).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나눔실태 20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 2020 사랑의열매 기부자·배분기관 만족도 및 욕구조사.

서울특별시. (2020). 2020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2019년 기준). 서울특별시.

손선옥, 김소영, 노연희. (2018). 기초자치단체 출현 지역복지재단의 유형별 역할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70(2), 35-59.

여유진, 오미애, 이병재, 최준영, 이주미, 김근혜, 김선, 한겨레, 신재동, 박나영, 송지은, 정다운, 이봉주, 강상경, 박정민, 안상훈, 정원오, 백승호, 김화선, 신유미, 김정욱.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양성욱. (2018). 개인 기부자의 기부 지속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재발사건분석의 적용.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5, 65-101.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2014).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학교.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김윤지, 박호준, 오수미, 차은호. (2020).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이현기. (2012). 노년기 생활환경과 중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현금기부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4), 305-329.

임선영, 민소영. (2015). 개인의 기부행동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 분석. GRI 연구논총, 17(1), 47-69.

정진경, 송정안. (2016). 자원봉사와 기부에 관한 다층적 영향요인 연구 – 지역 공공복지 지출규모와 개인특성 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68(1), 5-22.

조주희, 강철희, 민인식, 박태근, 이지선. (2014). 2014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은숙, 이석호. (2011).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기부 및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8, 115-140.

한창근, 조주희, 박태근, 조원희, 이보영. (2016).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및 나눔지수 도출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성철. (2000).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자원동원 능력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 173-191.

Bekkers, R. (2016). Regional differences in philanthropy. Routledge companion to philanthropy, 124-138.

Bekkers, R., & Veldhuizen, I. (2008). Geographical differences in blood donation and

philanthropy in the Netherlands–what role for social capital?.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9(4), 483-496.

Bielefeld, W., Rooney, P., & Steinberg, K. (2005). How do need, capacity, geography, and politics influence giving. Gifts of money in Americas communities, 127-158.

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2020). Doing Good Index 2020.

Charities Aid Foundation. (2019). CAF World Giving Index – 10th Edition. Charities Aid Foundation.

Clerkin, R. M., Paarlberg, L. E., Christensen, R. K., Nesbit, R. A., & Tschirhart, M. (2013). Place, time, and philanthropy: Exploring geographic mobility and philanthropic eng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3(1), 97-106.

Einolf, C. (2017).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Charitable Giving in the West and the World.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 Nonprofit Organizations, 28(2).

Fyfe, N. R. (2005). "Making space for 'Neo-Communitariansism'? The third sector, State and civil society in the UL". *2005. Editorial Board of Antipode.* pp. 536-557.

Glanville, J. L., Paxton, P., & Wang, Y. (2016). Social capital and generosity: A multilevel analysi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5(3), 526-547.

Global Philanthropy Index(2018). https://globalindices.iupui.edu/environment/themes/index.html에서 인출.

Graddy, E. A., & Morgan, D. L. (2006). "Community foundations, organizational strategy, and public polic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4), 605-630.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2020). Global Philanthropy Tracker 2020 Executive Summary. Indiana University.

McDonald, K., & Scaife, W. (2011). Print media portrayals of giving: exploring national 'cultures of philanthropy'.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6(4), 311-324.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19).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Paris: OECD Publishing. (pp. 41-43)

Schuyt, T. N. (2010). Philanthropy in European welfare states: a challenging promise?.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6(4), 774-789.

Schulz, T. & Halfliger, U. (2007). "Welfare State development and volunteering analyzing social policy effects at third Sub-National level in Switzerland". *CINEFOGO Conference,* Berlin.

Wiepking, P., & Handy, F. (2015). Explanations for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philanthropy. In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philanthropy (pp. 9-21). Palgrave Macmillan, London.

World Bank (2020). The Potential Impact of COVID-19 on GDP and Trade.

Wright, K. (2001). Generosity vs. altruism: Philanthropy and cha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2(4), 399-416.

Zheng, W., Chen, Z., & Ong, P. (2019). Environmental Philanthropy and Civic Engagement: a Comparison of Mainland China,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The China Nonprofit Review, 11(2), 328-364.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는 우리사회의 나눔문화 성숙을 위해 기부와 나눔, 사회변화, 임팩트를 탐구하며 나눔지식의 허브를 지향합니다. 사회복지 및 비영리 단체 실무자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나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모두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공간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사명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Think Tank

▣ 주요사업

- 조사연구사업 : 기부자·수혜자 욕구조사, 사회이슈 및 의제개발연구
  공동모금 제도에 관한 연구, 배분·모금사업 평가연구 등
- 정보분석사업 : 국내외 주요 이슈 및 동향 분석
- 교류협력사업 : 심포지엄 및 포럼 개최, 연구결과 발표 및 교육

▣ 2020년 조사연구사업 보고서 안내

- 2020 기부 트렌드 - 지나간 10년, 다가올 10년
- 보호 아동 · 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 2021 사회이슈 트렌드 - 뉴노멀 시대의 나눔 영역 개발

▣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블로그(www.nanumresearch.or.kr)

2020 지역별 나눔지수 및 기부유형 연구

조사연구 2020-11

인　쇄 : 2021년　3월
발　행 : 2021년　3월

발행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발행인 : 예종석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연락처 : TEL (02) 6262-3191~7, FAX (02) 6262-3130
인　쇄 : 리드릭 (02)2269-1919